

#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 책임연구원 : 은기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 공동연구원 : 박 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영인(연세대학교)  
정수남(고려대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1-0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31-03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희진 부연구위원 박현준교수(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김여진 연구원(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은기수교수	권영인 박사(연세대학교) 박건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수남 박사(고려대학교)



## 발 간 사 ■ ■ ■

전 세계적으로 성인기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방식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성인기 이행을 수행하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심화나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인기 이행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인기 이행 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축적된 경험과 준비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기 이행 양상은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범위는 광범위 할 수밖에 없다. 아동정책,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고용정책, 주거정책, 가족정책 등이 성인기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협동연구 방식으로 수행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 내용은 성인기 이행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 분석과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을 하는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대 간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고찰을 모두 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어 청년들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가 수행된 2010년과 2011년에 협동연구의 파트너로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호주멜버른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들에게 감사 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 연구는 취약위계층의 부모세대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 부모로서 자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기대와 태도 등을 살펴보고 청년세대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탈표준화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는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대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기침체의 장기화, 청년실업 증가, 개인화된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늘날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순조롭게 성인기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빈곤계층의 청년들은 이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중·상층의 청년들과 상이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좀 더 면밀하고 현실에 적합한 사회정책이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만19세에서 만29세에 이르는 미혼청년 25명과 40~50대의 부모세대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주관적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사 면접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가족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가정환경이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청년들은 부모의 제한된 자원과 지지로 인해 일찍부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성인기 경험을 쌓고 있었으며, 가정 내에서도 성인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반강제적인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일찍이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이른 성경험, 동거, 취업 또는 결혼과 가족구성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교육경험과 성인기 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공부는 거의 포기하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한다. 면접대상자들 중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규적인 교과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또래들과의 친분관계나 사회경험(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이 노동시장에 이른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저임금, 나이차별 등도 있지만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인기 이행은 평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한적인 사회적 자본과 기회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은 불안한 홀로서기일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성인기 이행도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네 번째로 청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주거지역, 학교, 노동영역 등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이들이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끝으로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토대로 가족, 교육 그리고 노동 영역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사회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인기 이행,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성인기 이행에 대한 세대 간 인식 비교, 계층 불평등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과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학진학율이 매우 높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취약위계층에 속한 젊은이들은 대학교육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들은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성인기로 이행할 때 가족자원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 한국 사회에서 취약위계층의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계층의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취업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 사회·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취약위계층에 속한 청년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 혹은 대학에 진학했어도 한국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생애과정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애과정의 다양성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떤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또한 이 연구는 취약위계층의 부모세대가 성인기로의 이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 부모로서 자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기대와 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위계층이 성인기로 이행할 때 이행의 당사자 및 부모의 인식과 태도 및 행위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부모세대 성인이 자녀의 성인기 이행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비판론적 관점의 틀에 기초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기존에 형성되어 온 중산층 위주의 기준이 아닌 취약위계층의 시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생애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취약위계층 청년 및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주관적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사 면접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체험해 온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생애면접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주제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세계를 구축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 3. 주요결과

### 1) 가족환경과 성인기 이행

-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가족적 맥락, 특히 부모의 제한된 자원과 지지로 인해 부모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또한, 이러한 가족적 맥락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경험을 하도록 하며, 가정 내에서도 성인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반면, 가정에서의 성인 역할 기대는 개인적 맥락 (여성이거나 첫째자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갈등 경험과 성인기 경험은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한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미래의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즉, 부모와 소원한 관계를 형성해 온 청년들의 경우라도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며,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부모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 모델로 다양하게 활용하며 바람직한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모든 성인기 이행 및 가족 관계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족 외적인 맥락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관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여기서 만나게 되는 성인들을 통한 바람직한 성인관 형성, 친척의 지원 등은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교육과정과 성인기 이행

-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한 태도는 취약위계가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정도 불가피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싶지만 열악한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의 파탄, 부모의 건강악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상실, 부모의 낮은 학력,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나 여유가 없다.
- 이러한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소위 ‘일탈행위’ 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공부는 거의 포기하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들 중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규적인 교과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또래들과의 친분관계나 사회경험(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축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인성교육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과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부모들 중에는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못했지만 대신에 ‘인성’ 교육을 특별히 강조한 부모들이 있었다. 청년 대상자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부모가 공부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인성적인 측면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빈곤청년들은 청소년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시장에 반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로 인해 학업보다는 생계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업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정규학교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업대신 일을 통해서 청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이행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다. 때로 이들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과정은 중산층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빈곤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이 되어 겪는 노동의 고통이나, 즐거움, 또는 보람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 청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사대상자들은 학교보다는 자신의 실제 사회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모색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로부터 방치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 대학은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에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육은 사회생활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학교육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즉, 성인기 이행에 있어 대학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거나 등록금만 쏟아 붓는 곳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특히 전문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보다는 다른 사회경험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또래집단과의 소통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들의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3)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

- 취약위계층의 청년들은 일반 중산층 청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여기서 노동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취약위계층이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경제적 요인이며,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저임금, 나이차별 등 여러 가지이지만,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면서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평탄한’ 것이기 보다는 ‘울퉁불퉁한’ 것이 된다.
- 이들의 노동경험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성인기에 일어나야 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동이 청년기 또는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기를 일부분이나마 선취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노동과 학업을 둘 다 조절해야 하는 이중의 구속과 역할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어지는 유예기는 없어진다.

-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의 부재,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매우 취약하고 빈약하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의 흔적이 남지 않는 임시직 노동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령노동’은 그렇지 않아도 저연령과 저학력, 저임금 노동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는 상태를 강화시킨다. 나아가 수급자 박탈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랜 시간 임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박탈감과 더불어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지 못함을 느끼게 되어 자아존중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 제한적인 사회적 자본과 기회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은 불안한 홀로서기 일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성인기 이행도 불안정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불안함과 ‘울퉁불퉁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성인기 이행의 개인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맞춤형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 4)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

-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다양한 차별의 경험이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질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의 장소에서 사회적 인정과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인정 등 다양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폭력과 불화 등은 가족관계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애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로 갖는 사회적 관계인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혹은 학업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이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개별성 또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유일한 창구인 포레집단에서의 인정은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노동경험에서 국가적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주장은 거부되어 임금체불이나 차별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적 자기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 형성은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들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인 경험을 한다. 불투명한 미래와 부족한 정보 그리고 경제적 배경 등은 완전한 형태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아니라 성인기 역할의 일부분은 먼저 수행하고, 또 다른 부분은 나중에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지원 등으로 말미암아 항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의 언저리에서 맴돌거나 탈 수급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정도에 그친다.
- 나이가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학교, 집, 그리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낳게 된다. 차별경험 속에서 이들은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기회를 보장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이들의 생애 과정에 맞춰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이나 사회적인 존중의 방식들 그리고 차별해소와 배제감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4. 정책제언

- 많은 수의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자라온 환경이 한부모 가족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공적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가족관련 정책들을 확대하여야 한다.
-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가족적 맥락 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전 생애적 가족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 생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취약위גיע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취약위גיע층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돕는 정책은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건강한 성인의 모델을 제시해 주거나,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돕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이 중소도시 지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외부 지원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중적 고충은 이들의 가정 문제나 성인기 진입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의 정책 시행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많은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욕구나 자질을 파악하여 직업훈련이나 취업 또는 진학을 돕는 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필요 하다. 조사 대상자 청년들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전공과 별개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대체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학교 차원에서 이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이 학교 내에서도 다른 또래집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전문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고 장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욕구와 기술적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대학 전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노동담당부서의 마련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나아가 이들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알선까지 담당함으로써 신고와 취업알선까지 안정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 노동현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담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의 경우 공교육제도 등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 현실적인 맞춤형 취업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고용안정센터)과 연계하여 전문 청소년 노동상담부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을 개별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추정소득부과 지침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대상자로 추정 받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노동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들 청년들은 이른 성인기 역할을 경험하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기간을 거치지 못한다. 따라서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에 대한 장기 해외연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 충분한 유예시간을 확보하고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일정기간 직업교육에 국한하지 않은 인문학 교육 등을 지원하여 성인기로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들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에게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체제에서부터 지역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하고 삶의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1인 1멘토’ 운동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선행연구 고찰 .....	10
3. 연구내용 .....	17
4. 연구방법 .....	20
제 2 장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	29
1. 가족적 맥락의 이해 .....	32
2. 가족 내에서의 성인기 경험과 가족 관계 형성 .....	44
3. 가족 경험과 미래 가족관과 결혼관 형성: 없는 것에 대한 갈망 .....	63
제 3 장 교육과정과 성인기 이행 .....	67
1. 교육기회의 제약 .....	70
2. 일과 중첩된 학업 .....	76
3. 제도적 배제와 교육제도의 이중성 .....	83
4. 복지(관)와 삶의 전략 .....	91
제 4 장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 .....	95
1. 울퉁불퉁한 성인기 .....	98
2. 제한적인 사회적 자본과 기회 .....	108
3. 경제적 독립과 노동경험 .....	110
제 5 장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 .....	117
1. 자아정체성 형성 경험과 인정 .....	121
2. 제한적인 성인기 이행 .....	124

3. 사회적 배제와 차별 .....	128
4. 성인기 이행과 사회적 지원 .....	135
<b>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141</b>
1. 연구요약 .....	143
2. 정책제언 .....	148
<b>참고문헌 .....</b>	<b>157</b>
<b>부    록 .....</b>	<b>165</b>
1. 청년대상 질문지 .....	167
2. 부모대상 질문지 .....	172
3. 생애사 면접표 .....	176
4. 면접 참여자 정보 .....	177

# 표 목 차

〈표 I-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인구학적 특징 .....	23
〈표 I-2〉 취약위기계층 부모의 인구학적 특징 .....	25
〈표 II-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가정환경 관련 개념 및 유형화 .....	31
〈표 III-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교육과정 관련 개념 및 유형화 .....	70
〈표 IV-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노동관련 경험의 개념 및 유형화 .....	98
〈표 V-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정체성형성과 사회인식의 개념 및 유형화 .....	120

# 그림 목 차

【그림 II-1】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패턴의 정리 .....	66
【그림 IV-1】 취약위גיע층 청년 노동경험 성인기 이행 개요 .....	115
【그림 V-1】 취약위גיע층 사회인식과 성인기 이행 개요 .....	139

# 제 1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연구 목적 하에서 이 연구는 특히 취약위기계층의 청년들은 어떻게 성인기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현대 사회변동의 특성

한 개인의 삶은 사회의 변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생애과정은 매 시기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period effect). 또한 개인의 발달과정, 주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의 시기에 겪는 경험은 개인의 평생의 삶을 결정하기도 한다(cohort effect). 이는 세대적인 특성을 발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발달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다양한 경험 자체가 개인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기도 한다(developmental perspective).

우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 또 한국사회를 포함한 세계사회의 변동의 요인과 방향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변동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성찰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이다. 먼저 성찰적 근대화는 20세기 후반 및 그 이후 사회 변동의 흐름을 대표하는 한 현상이다.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근대화는 서유럽의 근대화의 결과로 생성된 “근대사회”가 비유럽사회로 확산,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비유럽사회, 특히 동아시아에서 실현된 근대사회는 유럽의 근대사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제1세대 근대화론자에 대한 여러 비판이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이젠슈타트와 같은 대표적인 근대화론자도 후기에는 “The Modernity” 가 아닌 “Multiple Modernities” 로 입장을 바꾸어 근대성은 단 하나의 근대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사회의 전통, 역사, 문화, 지리학적 위치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근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로 다른 근대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한 개인이 에이전시(agency)로서 각자가 처한 여러 환경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성찰적 행위는 개인이 가족이나 사회 등에서 해방되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흔히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고 일컬어지는 과정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찰적 근대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고와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며, 개인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시키고, 개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화이다. 성찰적 근대화라는 표현은 이미 기든스 등 사회이론가 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사용되어 왔지만, 이를 차용한 개념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논의의 하나는 가치변동(value change, culture shift)을 주장하는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이다. 잉글하트는 사회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한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가 전통가치에서 근대가치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초기에는 전통가치는 물질적 가치이고, 근대가치는 탈물질적 가치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잉글하트는 사회의 변동을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좀 더 정교하게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변동을 전통적 가치에서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로의 전환 및 생존가치에서 자기표현의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잉글하트의 가치변동이론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전제는 결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인간의 해방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화가 극대화되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 태도, 행위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실현하려는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잉글하트의 가치변동이론과 흡사한 또 다른 이론은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SDT)이다. van de Kaa와 Ron Lesthaeghe에 의해 주창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은 1950년대 이후 유럽사회에서 출산력이 낮아진 후 인구대체수준의 출산력에서 안정되지 않고 계속 낮아지는 출산력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20세기 후반 출산력의 하락은 단순히 출산력만의 변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 사랑, 결혼, 출산 등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life style)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SDT를 주창하는 Ron Lesthaeghe는 잉글하트의 가치변동이론과 매우 흡사하게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 사회의 중요한 변동 방향은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변동의 가장 큰 흐름의 하나는 성찰적 근대화이고 성인기로의 이행에 중요한 함의를 주는 내용의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화, 자아실현의 개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화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표현 능력의 신장,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변동의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특징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탈규제화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고, 시장의 주체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며, 이를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논리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20세기 후반,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경제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부의 총량도 증가하고 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는 경제구조는 먼저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를 낳았다. 노동시장은 철저히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구조화되었다.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고용주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싼 값의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고용의 부담이 큰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이 선호되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다. 소위 유연한 노동시장이 추구된 것이다. 그 결과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주의 입장과 이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노동시장으로 변모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미숙련 초보 노동자보다는 노동현장에서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선호되었다. 숙련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언제든지 해고와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그래서 학교를 갓 졸업한 미숙련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직장을 찾은 숙련 노동자들도 언제 해고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층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지식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낮은 교육수준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노동자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수요가 많지 않고, 이러한 노동력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단순히 노동력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숙련된 노동자인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 2) 개인 생애과정의 표준화와 탈표준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표준화과정을 밟았다. 청년층의 생애과정에서 결혼에 이르기 전에 학교 교육, 한국의 경우 남자의 군복무, 노동시장으로 진입 등에 관해서는 거의 규범화된 생애과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후기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더 이상 표준화과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시간표에 의해 생애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 그리고 주위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생애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회가 근대사회를 넘어 후기근대사회로 이행하게 되면 표준화된 생애과정보다는 비표준화된 생애과정을 설정하게 된다.

비표준화된 생애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의 모습이 정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단순노동 중심의 산업구조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집약적인 지식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 아래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의 힘이 약화되고 개인이 선택하고 주장하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이런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을 중단 없이 마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혼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그동안의 표준화된 생애과정이 더 이상 표준적인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게 된다. 학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교육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상한 과정이 아니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단기간 혹은 장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탐색하는 과정도 비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나아가 한번 구한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아 계속 다니지 않을 수 있고, 직업을 바꾸는 중간에 잠깐씩 휴식기간을 가지는 생애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애과정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 3)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지금 한국사회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20세기 후반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수행한 국가에서는 유럽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다. 유럽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 소위 “압축적 근대성

(compressed modernity)” 이라고 표현되는 근대성이 한국사회에서 구현되었는데, 이 결과 한국사회에는 전통과 근대 그리고 후기근대 혹은 현대가 공존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전에 소위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라고 표현되었던 현상은 바로 압축적 근대성의 결과이다.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한 편에서는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는 후기근대사회의 모습인 개인주의적이고 비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정형화되거나 주류적인 생애과정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생애과정은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성인기로의 이행은 계급 혹은 계층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과정이다. 개인이 교육을 밟는 과정에서도 부모나 가족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직장을 구할 때도 공식적인 고용과정 뿐만 아니라 가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및 종류와 관계가 있다. 가족자원이 충분한 청년층은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다양한 가족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직장, 결혼, 출산 등의 생애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가족자원이 충분하지 않는 청년층은 자원부족으로 자신이 원하거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생애과정을 밟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1997년 말에 경제위기를 겪었다.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져왔고, 이 구조조정 속에서 한국사회는 노동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지녔던 노동구조, 노동에 관한 가치, 노동행위 등 모든 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소위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다행히 취업을 한다 해도 비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된다. 이런 직종은 임금의 측면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된다.

더욱이 취약위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학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 계층의 청년에게는 후기근대사회나 “압축적 근대성” 의 영향도 별 관계가 없고, 극단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학교를 마친 후에도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경제적 비활동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 수도 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청년들에게 성인기로의 이행은 부모 혹은 가족의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 4) 발현성인기의 등장

개인의 생애과정(life course)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transition)이 축적되는 궤적(trajjectory)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애과정은 생애주기와는 달리 역사적, 시기적 요인을 함축하면서 형성되어 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인생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하나의 단계라고 설정하는 생애주기와는 달리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영향,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의 영향, 역사적 사건의 영향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을 논의할 때 우리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성인기는 매우 긴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기를 젊은 성인기(young adulthood)와 성숙한 성인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위에서 설명한 현대 사회변동의 특성에 따라 초기 성인기를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Jeffrey Jensen Arnett는 발현성인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대개 18세부터 25세까지의 시기의 성인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Arnett는 이 시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고, 불안정한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개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깁” 시기이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가능성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에릭슨(Erikson, 1968)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해보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발현성인기는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자기실험이나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 정립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시기를 가리킨다(Arnett, 2000). Arnett이 지적하듯이, 사회발전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성인기가 늦춰지는 시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따라서 발현성인기는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Arnett에 따르면, 이 시기는 성인기도 청소년기도 아닌 이질성이 높은 시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Arnett, 2000).

이와 같은 발현성인기적 특징은 한국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초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그에 따라 출산도 늦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재학 기간이 점점 연장되고(대학 5학년, 6학년 등), 노동시장 진입이 늦춰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발현 성인기가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이 같은 시기는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매우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Arnett의 개념은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Arnett는 이러한 개념에 주목하게 된 배경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들고 있다. 1950년대에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대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직업의 종류가 달라지고 임금격차가 커졌다. 결혼하기 전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은 점차 힘들어졌고,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은 늦어지고 결혼대신 동거가 증가하였다. 미국적인 또 다른 현실은 10대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성인기의 개념에 새로운 형태도 혼란도 추가되었다.

Arnett는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18세 정도에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은 후 결혼하고 출산하는 등의 성인기이행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표현대로 성인기로의 이행은 멀고 먼 여정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18세 정도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업을 찾아 해매며, 아직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지칭하여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혹자에게 이 개념은 매우 매력적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현대 사회의 두 가지 큰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 당연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지식정보경제로 이행하면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교 교육도 더 이상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처음부터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Arnett가 설정한 18세부터 25세 정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발현성인기는 현대사회변동의 두 가지 흐름, 즉 성찰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떠올리면 전혀 새로운 현상,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한국사회에서는 18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한다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달리 한국은 18세의 연령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찍이 부모의 곁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18세에 한 성숙한 성인으로 독립한다는 개념이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는 갈수록 부모의 곁을 떠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시기는 결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변동 속에서 결혼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Arnett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현실은 비단 미국사회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실인 것이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의

과정과 시점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특히 성인기로의 이행 시 가족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소위 “취약위기계층”에 초점을 맞춘다. 대학진학율이 매우 높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취약위기계층에 속한 젊은이들은 대학교육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들은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성인기로 이행할 때 가족자원의 지원도 받기 어렵다. 현대 사회변동의 두 흐름의 하나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낳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취약위기계층은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층에 속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도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 예를 들어 교육, 취업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사회·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취약위기계층에 속한 청년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 혹은 대학에 진학했어도 한국사회에서 별로 평가받지 못하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생애과정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애과정의 다양성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취약위기계층의 부모세대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 부모로서 자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기대와 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위기계층이 성인기로 이행할 때 이행의 당사자와 부모의 인식과 태도, 행위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과 부모세대 성인의 성인기 이행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취약위기계층 청년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주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의 세부연구과제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적인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도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에 있어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 1)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Osgood et al., 2005). 특히 부모의 높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자녀가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면, 가족의 높은 소득수준과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대학입학률을 증가시킨다(Cameron & Heckman, 2001). Nguyen와 Taylor의 연구(2003)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직업수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인 경우)은 자녀의 2년제 대학교육, 4년제 대학교육, 취업, 실업의 4가지 범주의 경로 중 4년제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 제한된 재정적인 자원을 가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인 부모의 경우 부유한 가정의 부모보다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실제로 더 많은 자원이 있는 부유한 부모는 상대적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자녀들이 교육과 직업경로, 가정형성, 그리고 첫 주택구입의 경쟁상황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Swartz, 2008).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재정적 투자 및 지원뿐 아니라, 가족은 자녀의 가장 우선적인 사회화 매개체로서 자녀는 부모와 유사한 기대, 가치, 자존감 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직 종사자인 부모는 그들의 자녀의 자율성, 자기주장(assertiveness), 자기주도성 등을 더 격려하는 반면, 노동자계층 부모는 권위에의 복종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Lareau, 2003). 또한 더 많은 자원과 지식, 영향력, 더 나은 사회적 관계 연결망을 가진 가족은 자녀의 나쁜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 자녀의 발전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전문직 혹은 관리직 부모의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직업적 가치를 일찍이 전수받게 되고, 또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인해 학업성취가 높고, 높은 대학진학률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Kohn et al., 1986).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직업수준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주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Greenberger, O' Neal, & Nagel, 1994).

실제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일수록 성인기 이행 시의 선택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Osgood et al., 2005). Furstenberg(2008)는 성인기 이행 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원에 있어 계층 간 차이가 있으며, 이 시기의 결정은 누적적으로 이후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들은 계획적인 출산을 할 확률이 낮고, 교육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조기에 학교교육을 종결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불안정한 가정생활과 취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Aronson, 2008). Meier와 Allen(2008)도 낮은 계층의 청년들은 이른 시기에 동거나 성관계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인기 이행에까지 연결된다고 보았다.

Rossi와 Rossi(199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성인기이행을 포함한 성장과 발달 전 과정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지원을 멈추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동등하게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자녀에 대한 지원 정도와 내용에서의 격차는 불평등한 성인기 이행 결과를 낳게 된다(Swartz, 2008). 즉 이러한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정과 성인기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성인들의 인생경로는 자신의 근면성과 현명한 선택뿐 아니라 부모가 제공하는 발판과 안전망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Swartz, 2008).

## 2)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시작하는 시점인 동시에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여전히 의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Aquilino, 2006; Osgood, Foster, Flanagan, & Ruth, 2005). 지금까지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고자 한 문헌들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 외에도 관계적 측면을 포함한 가정환경이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Aquilino, 2006; Scabini, Marta & Lanz, 2006). 예를 들어, Scabini 외(2006)는 가족 내에서의 만족도, 효율성, 가족 지원 및 부모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Scabini, Marta & Lanz, 2006). 다양한 가정 환경적 요인들 중 성인기 이행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강조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부모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이 특히 주목받아 왔다.

우선, 성인기 이행과 부모-자녀 관계의 연관성을 연구한 Richardson과 McCabe(2001)는 지속적인 부모와의 갈등 관계는 성인기 이행 시기에 자녀가 가족에서 느끼는 친밀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발생을 완화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녀들이 성인기에 진입함에 있어서 부모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자녀와의 동료적 관계 형성을 들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의 독립기(성인기 이행)에 일방적인 보호자가 아닌 좋은 파트너로써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Aquilino, 2006; Osgood, Foster, Flanagan, & Ruth, 2005). 이러한 성인기 진입 시기의 청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전 생애적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 즉,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관계의 형태는 성인기 진입 경험 및 성인기 이행 중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Whitbeck, Hoyt, & Huck, 1994). 예를 들어, Aquilino(2006)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부모와의 동거 문제 및 재혼을 경험한 경우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되어 개인의 성인기 이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가족 요인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 및 지원을 들 수 있다(Osgood, Foster, Flanagan, & Ruth, 2005). 즉,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더욱 원활한 성인기 이행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Schoeni & Ross, 2005). 실제로 자녀의 성인기 진입에 있어서 부모가 제공하는 지지와 지원은 자녀의 높은 자아 존중감 및 가치, 성인기에 경험하는 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Lynch, 1989). 이러한 가족 지원은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 및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Schoeni & Ross, 2005).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가족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청년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교육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속해있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고찰하는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제공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례로, Scabini 외(2006)는 자녀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역할 사회화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직업적 성취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심리적 문제 발생을 해결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현재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는데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위계층의 경우 12.2%가 한부모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세대도 1.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한부모 세대 발생 요인 중 이혼으로 인한 발생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유계숙 외, 2007).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 취약위계층 청년 및 가족의 모습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성인기 이행 연구에서 보여준 연구 결과와는 차별되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그들의 가족적 맥락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성인기 이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 3) 대학 미진학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직후 대학진학률은 80%를 상회하며(통계청, 2009),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과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문제가 대학졸업자들의 실업과 하향취업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화된 우리사회에서 대학 미진학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인기 이행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인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중등교육이후의 대학교육을 청년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돕고 이후 행복한 성인기 생활을 도모하는 기본도구로 보고 있다(Redd, Brooks, & McGarvey, 2002). 특히 기술적 진보와 직업 변화(occupational change)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은 만족할만한 근무환경, 높은 소득수준 유지, 낮은 실업가능성, 높은 수준의 신체적, 사회정서적인 행복감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다(Baum & Payea, 2004).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학력만으로는 현대의 더 많은 교육과 기술을 요하는 정보화 및 기술기반 경제의 충분한 자격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Bangser, 2008). 그래서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은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일부터 시작하게 되고(Furstenberg, 2008),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청년들보다 실업과 저임금취업이 될 위험이 더 크다(Fussell, 2002). 결국 대학미진학자들은 충분한 생활비를 벌기 어렵게 되고, 빈곤을 경험할 위험이 매우 커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William T. Grant Foundation, 1988). 이러한 대학 미진학시 취업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피하고 또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사회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단순히 교육과 취업문제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교육을 더 받기 위해 취업을 미룰 뿐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의 성인역할까지 미루게 되었기 때문이다(Arnett, 2004).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보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비생산적인 성인기 이행 경험확률이 더 높은 것을 볼 때(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이는 빈곤가정의 부족한 경제력으로 자녀의 대학진학 등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예, 낮은 학업성취도, 가출, 임신 및 출산

등)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들 대학미진학자를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어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족배경의 청년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을 취약위계계층으로 보고 이러한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낮은 교육수준 등의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성인기 이행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4)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교육종료, 집중적인 훈련, 평생 일자리 탐색을 통하여 근로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평생소득을 결정하는 단계(이병희 외, 2010, p.29)’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가의 여부는 과거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축적되어 온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근로 생애 시작 시기에 경험하는 미취업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최초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좋은 일자리의 획득 여부가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병희, 2003, 이병희 외, 2010, 이시균, 2010), 청년들이 어떠한 경험과 조건 속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계층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약위계계층의 청년들은 다소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 출신의 청년들과는 일정한 정도의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축소와 기존 가족관계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배경내, 2009, p.6).

따라서 이들 청년들은 중산층 가정의 청년들보다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등 빠른 성인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노동이 용돈벌이용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문제와 겹쳐지게 되면서 성인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울퉁불퉁한’ 성인기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빈곤가정의 청년이 가지는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부모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공격적, 파괴적 성향을 보이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개별화가 억제되어 자기존중의식이 부족하게 되어 소극적 성향, 열등감 등 부적절한 자아개념을 가져오기가 쉽다(전귀연·이성기, 2006). 그러나 빈곤가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취약위계계층 청년들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관계를 만드는데 실패하는 이유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다른 전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청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지지자는 친구, 가족, 교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전준현·이수천, 2009).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심리적 요인으로 환원하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분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에서 이들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영역에서의 움직임에 고찰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호인정의 과정에서 주체의 자아존중감이 굴절되고 왜곡되는 것은 그러한 상호인정의 기대가 어긋나고 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도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정책적 수준의 지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인정투쟁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주체철학 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주체의 개념을 대화적인, 양방향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하나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개인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주체의 개념위에 올려놓게 되며, 상호주관성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는다(McNay, 2008, p.61). 이러한 개념을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이라는 측면과 연결할 때, 더욱 더 정교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네프에 따르면 먼저 개인의 발달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상호인정관계는 애정에 근거한 관계, 즉 감정적 유대이다. 이러한 유대가 형성되는 가장 일차원적인 장소는 가족이며, 업적의 원리가 관철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회사와 같은 결사체인데, 인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적 가치부여'의 형태로 표현된다. 즉 구체적 개인은 사회적 목표를 자기실현을 통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호네프, 1996, p.216). 따라서 특정 사회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취약위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 구체적 개인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추상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사회적 생활수준을 유지' (호네프, 1996, p.203)해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주체는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존중감과 주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취약위계층은 이러한 인식 자체가 다른 경로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존재조건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차별과 배제감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층은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우관계에서도 배제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층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의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성균, 2009)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 또한 차별적 경험은 경험 그 자체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들이 특정 단계, 즉 노동시장이나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 내용

#### 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 분석

이 연구는 취약위기계층에 속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취약위기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성인기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먼저 표준화된 생애사 면접표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다. 구술자로 하여금 생애사 면접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구술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사건들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사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Freedman, et al, 1988). 이뿐 아니라 구술자와 면접자가 생애사 면접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은 면접자로 하여금 보다 깊이 파악해야 하는 생애 사건들을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ettersten, 1999).

그러나 표준화된 생애사 면접표는 단순히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생애과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사건들에 대한 구술자의 감정 및 해석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생애과정은 매우 풍부한 스토리가 있으며, 이러한 스토리는 표준화된 면접표만을 이용하여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생애사 면접표를 통해 대강의 생애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파악한 후, 심층면접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거쳐 온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생애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생애사건에 대한 인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어떻게 성인기로의 이행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들은 중산층 청년들을 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성인기 이행과 차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인기 이행의 기준 또한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성인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밟았는지 파악한다. 생애사 면접표로서는 단순히 언제 학교에 입학했고, 중간에 혹시 중단과정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되는지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밟아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파악한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청년들에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학업의 중단과 계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 부모의 지원여부는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는 전문대 혹은 대학을 다닐 때 학업의 중단과 계속, 또 남자의 경우 군대의 시기와 경험을 함께 파악한다.

셋째,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서 또래집단(친구, 선후배 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창시절 누구와 주로 어울렸으며 그들과 주로 무엇을 했는지 등 또래집단과 공유하는 특정한 문화와 상징을 밝히는 것은 이들의 삶의 가치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사회관계적으로 고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래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별 그리고 분화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넷째, 교육을 받을 때 일의 경험을 파악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과는 달리 취약위기계층의 청년은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 단순히 학교만 다닌 것인지 아니면 학교교육과 함께 일을 병행했는지, 일을 했다면 일의 종류, 근무 시간, 소득 정도, 일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정규 교육이 끝난 후의 생애과정을 파악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정규 교육이 끝난 후부터는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생애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실업상태에 있기도 하고, 단순 시간제 노동을 하기도 한다. 또는 전일제로 일할 수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데 있어 취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취업에 관해 자세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의 파악이 필요하다.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생애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현재의 생애과정을 성인기로의 이행의 관점에서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생애과정을 원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애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애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생애과정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일곱째,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청년기는 자아정체성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취약위기계층의 경우 다양한 자본(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이동의 제약이 많은 만큼 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과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청년 개개인의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도 가족의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며 취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부모 및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가족자원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위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본 조사에서는 취약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나타난 계층적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해 틀이 아닌,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그들만의 맥락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취약계층 부모세대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에서 청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가족의 도움, 특히 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도움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사회는 가족,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취약위계층의 부모는 이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못 줄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성인기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위계층 청년과 더불어 부모세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첫째,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을 파악한다. 부모세대는 자신들이 어떻게 성인기로 이행했는지의 경험을 통해 자녀세대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생애과정은 어떤 것인지 파악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자녀의 취업에 대한 기대, 기대 결혼 연령 등 자녀세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한다.

셋째, 가족자원의 상태 및 자녀세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고찰해야 한다. 부모의 물질적 자원은 자녀세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성인기 이행이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있어 부모세대의 자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물질적 자원 및

자녀세대에 대한 구체적 지원 행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넷째,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미래 지원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 시점까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어떤 지원을 제공해 왔는지와 함께 미래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지도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들에게 부모의 생애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는 것과 더불어 부모세대를 심층면접에 포함시켜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경험과 자녀세대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언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중요시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취약위기계층의 청년이 가진 특수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이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가족,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모색한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조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의 준거로 삼는다.

첫째, 성인기 이행에 관한 사회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가족학적 차원의 중요한 문헌을 찾아 각 학문분야의 관점(perspective)을 이해하고,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관점을 찾는다.

둘째, 성인기 이행의 맥락이 되는 현대 사회의 변동에 관한 논의를 파악한다. 신자본주의, 압축적 근대화, 제2의 인구학적 변천, 잉글하트의 가치변동론 등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파악하고 이 연구의 관점을 확립하도록 한다.

셋째, 성인기 이행에 있어 계층 차별적 이행에 관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Arnett이 주장하듯이 현대 사회에서 젊은 청년층은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직업을 얻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이 동일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속한 청년들은 가족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취약위계층의 청년은 가족자원의 지원도 적고 자신의 능력 또한 열악해서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여러 쟁점 중 계층 차별적 이행 현상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취약위계층에서의 성인기 이행의 시점(timing)과 과정(process)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에 대해 살펴본다. 다양한 생애과정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도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한다.

## 2) 질적연구방법의 적용: 비판론적 관점(Critical approach)

질적연구방법의 주요 관심사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맥락적 이해, 의미 탐색 및 발견, 그리고 귀납적 결론 도출”에 있다 (Mertens, 1998, p. 160). 다시 말해, 질적연구방법은 사람들의 경험이나 특정 현상 아래에 존재하는 깊은 의미와 의미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oggman, et al, 2002; Strauss & Corbin, 1998). Patton(2002)은 양적연구방법과 대비되는 질적연구방법의 특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을 위한 것으로 적은 수의 대상자들이나 사례로부터 깊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자는 특정 대상이 경험하는 현상 및 생애에 대해서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Denzin, & Lincoln, 1994).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질적연구방법은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다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여러 가지 범주의 질적연구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비판론적 관점(critical approach)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적 주제와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성학적 접근(feminist inquiry)나 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등으로 대표되는 비판론적 관점은 힘의 불평등, 불균형, 소외, 그리고 권력의 분배 등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이다(Daly, 2007). 비판론적 연구의 주된 목표는 단순히 이를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비판론적 연구에서는 성적, 경제적, 민족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과 어려움을 알고자 하며, 이를 주류의 시각이 아닌 소외계층의 경험과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위계적이지 않은 협력을 기초로 얻어진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의 비판론적 관점의 틀에 기초하여, 본 조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

인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기존에 형성되어 온 중산층 위주의 기준이 아닌 취약위계층 자신의 시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생애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청년층의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만19세에서 만29세까지 미혼자로 한정시켰다. 현재까지 청년기에 대한 생물학적 연령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점 때문에 20대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 중 20대 초반(만 19세 - 23세)이 19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 중반(만 24세 - 26세)이 3명, 그리고 20대 후반(만 27세 - 29세)이 3명을 차지했다. 부모 면접 대상자로는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자녀를 둔 취약위계층 부모들을 참여시켰으며 부모들의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는 40대 부모 4명과 50대 부모 4명이 참여하였다.

둘째, 취약위계층의 범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면접을 시행한 결과 부모의 계층적 위치와 상관없이 청년 자신이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나 표면적으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열악한 대상자도 포함시켰다. 셋째, 다양한 상황의 취약위계층의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청년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명(부모 8명 포함), 경기도(성남) 2명, 강원도(춘천과 가평) 7명, 그리고 충청도 2명이었다. 넷째, 성별 분포는 청년층의 경우 남성 12명, 여성 13명으로 남녀가 반반씩 표집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 8명 모두 어머니로 아버지의 참여는 없었다. 연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표집은 주로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 procedure)이 함께 사용되었다. 우선, 지역사회복지관 담당자, 지역 YMCA 및 연구자들의 개인적 인맥을 통해 연구목적과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표집되었다. 다음으로,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시 연구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 받아 표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 중 4명의 부모와 두 명의 자녀가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여 선정되었다.

표 I-1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인구학적 특징

이름	성별	나이	지역	학력	부모 학력	가족 상황	경제 상황과 직업
김순애	여	20	서울 (노원)	고졸		이혼 후 어머니, 여동생 2 거주	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유근	남	20	서울 (노원)	고졸	초졸	부모 이혼 후 아버지, 남동생 거주	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김희영	여	20	서울 (노원)	고퇴	초졸	3자매 거주	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승구	남	20	서울 (마포)	대학 (2년제) 휴학	초졸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 거주	임대주택거주. 월평균 60-70만원 (어머니 공공근로)
신영희	여	20	서울 (마포)	고졸 (재수중)	고졸	부모 이혼 후 어머니, 동생 2명과 함께 거주	재수생. 어려서부터 계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110만원/ 임대아파트 거주
임미숙	여	20	마석	대재		부모이혼 후 어머니와 거주 (동생들은 아버지와 거주)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해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안됨(최근 이혼).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로 수입 유지
최서영	여	20	가평	대재	고졸	아버지와 사별 후 어머니, 오빠와 거주	집안사정에 대해 전혀 모름. 아버지 연금이 있어서 어머니는 일 안 하심.
차만진	남	20	춘천	대재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출 후 어머니와 거주하다 현재 혼자 살고 있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본인 아르바이트로 유지
이영준	남	20	가평	대재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거주, 동생이 장애인	잘 살았으나 아버지 사업실패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김진희	남	20	가평	대재		어려서 부모 이혼으로 엄마, 누나와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은 전혀 모름
박혜영	여	20	춘천	대재 (2년제)	고졸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들과 거주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나 소득이 80만원
안준기	남	21	서울 (마포)	대학 휴학 (2년제)		부모 이혼 후 어머니, 형, 누나와 거주	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김현중	남	21	경기도 성남	고졸	고졸	부모 이혼 후 할머니와 거주. 아버지는 두 번 이혼. 친어머니와 가끔씩 연락하고 지냄.	할머니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바텐더를 하고 있음.

진영택	남	21	서울 (노원)	고졸	초중퇴	아버지 사별 후 어머니, 누나2명과 거주	공부방 강사(월65~70만원). 임대주택 거주. 어머니는 야쿠르트 판매원.
이진희	여	21	서울 (마포)	대재	중졸	유치원 때 아버지 사별 후 어머니, 동생과 거주	정보부족으로 3년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됨. 어머니가 현재 취업 중으로 부분 수급. 현재 일반 임대아파트 거주
신태섭	남	21	춘천	대재	고졸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거주(현재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할머니까지 함께 거주)	아버지 월급이 있으나, 카드빚을 갚는데 다 쓰고 실제적으로 월수입은 70~80만원
정유미	여	22	서울 (마포)	대재	대학 중퇴	부모이혼 후 아버지, 동생과 함께 거주	부모이혼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임대아파트 거주
김현정	여	22	서울 (마포)	고졸	대학 중퇴	부모이혼 후 아버지 돌아가심(어렸을 때) 계속 할머니와 거주	회사원, 어려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취업 후 수급중단. 할머니가 수급자로 임대아파트 거주
윤미령	여	26	서울 (성북)	고퇴	고졸	어머니사별 후 조부모와 거주/현재는 동생과 거주	바리스타. 어머니 병수발과 아버지 사업 실패로 가정이 어려워짐. 정보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사회적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음.
김윤정	여	27	서울 (마포)	고퇴	고졸	부모이혼 후 어머니, 동생3명과 거주/(부모는 여전히 어느 정도 사실혼 관계)	무직. 이혼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됨./ 수급 금액 많음.
이문구	남	23	충남 아산	대재 (지방 4년제)	부(중졸) 모(고졸)	부모와 동생과 함께 거주	아버지는 크레인기사, 어머니는 병원식당에서 일함.
최태훈	남	25	충남 천안	대재 (지방 4년제)	고졸	부모와 동생과 함께 거주	아버지는 버스기사, 어머니는 공단식당에서 일함.
유지혜	여	28	경기도 성남	대학 중퇴, 후 병통대재학	고졸	어릴 때 아버지 사별 후 어머니 재혼. 현재 동생과 함께 출가하여 생활.	학원 강사 월 150만원 정도. 독립해서 동생과 원룸 거주 (보증금 500만원)
김우현	남	28	서울 (수서)	고퇴	고졸 (모)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 거주	현재 무직(사업 준비).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규모 사업 준비 중.
박수정	여	28	서울 (노원)	중졸		본인 이혼 후 혼자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 청년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됨

표 II-1 취약위גיע층 부모의 인구학적 특징

이름	성별	나이	지역	학력	가족 상황	경제 상황과 직업
부모 1	여	44	서울 (마포)	고졸	이혼 후 자녀 두 명과 함께 거주	이혼 직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시작 (구청에서 공공근로)
부모 2	여	48	서울 (아현)	초등학교	이혼 후 자녀 한 명과 친정에서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자녀와만 따로 거주	2년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복지관에서 공공근로)
부모 3	여	45	서울 (마포)	중졸	사별 후 자녀 두 명과 함께 거주	3년 전부터 건강 악화로 부분 수급 (학원 사무)
부모 4	여	49	서울 (마포)	고졸	이혼 후 자녀 네 명과 함께 거주. 이혼 한 남편과 관계 유지	이혼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재 무직
부모 5	여	54	인천시 (연수구)	중졸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거주	간병인 (급여 100 만원 내외)
부모 6	여	56	의정부시	고졸	남편은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출가, 둘째 딸과 거주	간병인 (급여 100 만원 내외)
부모 7	여	57	구리시	고졸	남편과 이혼. 자녀 세 명 모두 출가. 혼자 거주하고 있음.	간병인 (급여 100 만원 내외)
부모 8	여	59	경기도 (부천시)	고졸	미혼. 조카를 2살 때부터 30세까지 직접 키웠음.	간병인 (급여 100 만원 내외)

주) 빈 칸은 불확실하거나 모름.

### 3) 생애사 면접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취약위גיע층 청년 및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주관적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사 면접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체험해 온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생애면접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세계를 구축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생애면접의 활용이 본 연구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사 면접을 통하여 취약위기계층 청년이 주체적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성인기 이행의 의미를 재구성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인기 이행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주관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화자의 체험과 기억을 통해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경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화자들은 개인의 과거 생애사적 사건들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생애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는 그들의 현재 및 미래 생애 구성을 이해하도록 해준다(Scott & Alwin, 1998).

둘째, 생애사 고찰을 통해 성인기이행 과정에 대한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회고적 생애 면접을 통해 사회구조적 변화(주변 환경, 특히 경제적 문제)에 따른 성인기 이행 과정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문헌자료나 통계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하기 힘든 성인기 이행 과정의 주관적 세계를 행위자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생애사 면접은 개별성을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시킴으로써 성인기 이행 과정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틀을 적용하지 않고,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대한 복합적인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술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립하며 살아왔는지에 관한 생애이야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생애사 면접표를 함께 작성하였다 (<부록 3> 참조). 생애사 면접표 작성은 약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사 면접표는 직접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면접에 앞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 사건들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도왔으며, 면접자로 하여금 면접 중에 주목해야 하는 주요 사건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생애사 면접은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회에는 연구 참여자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 없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술자가 직접 자신의 생애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생애사적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약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회 면접에서는 연구자들의 준비한 반구조화 된 질문을 사용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질문은 문헌 고찰 및 연구자들의 지식에 기반 한 초기 개념(sensitizing concept)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성인기 이행에 대한 정의, 생애에 걸친 가족 관계를

변화, 교육 및 포레생활, 노동 경험,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취약위기계층 청년 및 부모의 인식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초반 몇 개의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질문 형식을 변화시키거나 보충하였다. 예를 들어, 취약위기계층 청년 및 부모들이 경험 해온 사회적 박탈감 및 차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질문내용은 <부록 1>, <부록 2> 참조).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가 편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집 근처의 카페나 일 하는 장소 등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약 4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또한, 면접자는 인터뷰 중에 간단한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현장노트는 연구의 객관성을 높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석과정에서 여러 연구자들 간에 인터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현장노트에는 면접 중에 연구자가 느끼는 분위기 및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간단한 기술, 면접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 주목해야 하는 대답, 분석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앞으로 물어 볼 수 있는 추가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Daly, 2007).

#### 5) 면접자료 분석

우선 녹음된 면접은 분석을 위해 녹취 되었다. 녹취된 면접은 Taylor와 Bogdan(1998)이 소개한 질적연구자료 분석 방법을 따라 분석되었다. 우선, 연구자들은 녹취된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읽음으로써 그 내용을 숙지하고 구술자들의 상황에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초기 개념(sensitizing concept)에 맞는 내용, 중요한 사실이나 경험 등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 “이른 노동 경험”, “부부 갈등에의 노출”, “교육적 지원의 부족” 등이 나열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구술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emerging themes)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즉, 연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면접 내용 중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을 찾아내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및 가족 지원의 역할”, “이른 결혼에 대한 열망”, “미래 계획에 대한 불분명함”, “미래에 대한 긍정적 해석”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열된 여러 개념과 문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맥락으로 유형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이른 성인기 경험”, “노동 진입과정” 및 “부정적 사회 인식” 등이 이 단계에서 찾아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들이 만들어진 후에는 각 유형들과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가족, 교육 및 일영역에서의 경험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 패턴이 이들의 성인기 이행 및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들 간의 관계와 패턴을 여러 개념 관계도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관계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하위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도와 전체적인 패턴의 흐름을 아우르는 관계도를 각각 마련하여 단계별로 개념들 간의 관계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6) 객관성 및 정확성에 대한 고려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정확성(trustworthiness)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객관성 및 정확성을 신뢰도(credibility)와 적용성(transferability)을 높임으로써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신뢰도의 강화를 위해 동료 평가(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즉, 네 명의 연구자들이 면접에서 찾아진 코드와 개념을 함께 논의하여 검토하였다(Mertens, 1998). 다음으로 삼각화(triangulation)를 고려하였다. 삼각화는 데이터의 질과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Patton, 2002). 본 연구에서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 뿐 아니라 부모들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 및 경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뷰 뿐 아니라 생애사 면접표 및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정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적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형화 하는 과정에서 주요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례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주요한 유형이나 패턴에 속하지 않는 사례들에 집중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고 맥락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질적연구방법에 있어서 적용성은 양적연구에서의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에 해당된다(Lincoln & Guba, 1985 Mertens, 1998). 다시 말해 질적연구의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를 접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 얼마나 연구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의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술자 개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공하였다(〈부록 4〉 참조). 또한, 부록에 반구조화 된 면접 질문을 비롯하여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포함시켰다.

## 제 2 장

---

#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1. 가족적 맥락의 이해
2. 가족 내에서의 성인기 경험과 가족 관계 형성
3. 가족 경험과 미래 가족 및 결혼 관 형성: 없는 것에 대한 갈망



## 제 2 장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본 장에서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해 온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취학 전부터 현재에 걸친 가족관계, 가족 내에서의 생활, 부모에 대한 인식 및 인식의 변화,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관 및 성적 개방성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선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 해온 가족의 맥락 (가족의 해체, 부모들의 특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족 분위기 내에서 생활하면서 청년들에게 주어진 또한 청년들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가족 역할 및 부모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 역할 및 관계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연관 지어 공통점과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미래의 가족 및 결혼에 관하여 갖는 생각을 그들이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도출된 개념 및 유형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 취약위계층 청년의 가정환경 관련 개념 및 유형화

하위 개념	유형화 I	유형화 II
부모의 이혼 경험 부모와의 사별 부모 연락 두절 부모의 재혼 경험	깨어진 가족 (가족 해체 및 혼란)	가족적 (부모) 맥락
부모의 교육 부족 부모의 차별 경험	취약함의 대물림 (부모의 자원 부족)	
부모 폭력 행사 부모 알코올 문제	부모 부적응	
부모-자녀 갈등 관계 부모-자녀 친밀한 관계	부모-자녀 관계 질	부모-자녀 관계 형성

부모 갈등 목적 부모 스트레스 노출	부모 갈등에 끼어들기	
술/ 담배 성관계 동거	미리 맛보는 성인기	빠른 성인기와 잃어버린 청(소)년기
가족 갈등 해결 역할 기대 가족 돌봄 역할 기대 자신의 미래 결정 역할 기대	성인되기에 대한 압박	
부모-자녀 관계 극복 노력 긍정적 성인기 모델로써의 부모 부정적 성인기 모델로써의 부모	긍정적 성인기 모델 찾기	미래 가족/결혼관 형성
이른 결혼에 대한 바람 경제적 안정으로써의 결혼 보살핌으로써의 결혼 부모로부터 이성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형성	결혼에 대한 인식 (없는 것에 대한 갈망)	
사회 복지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사회복지관 등) 친척의 도움 교회 및 기타 단체	사회적 지지	가족 외적 맥락
남성의 빠른 성인기 경험 여성에게 주워지는 역할기대 첫째에 대한 역할 기대	개인의 특징에 따른 차이	개인적 맥락

## 1. 가족적 맥락의 이해

### 1) 깨어진 가족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부모의 이혼 및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경험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Aquilino, 2006). 본 조사에 참여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가족 관계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가족해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특징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및 미래 가족관, 결혼관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접 대상이 된 25명의 청년들 중 절반 정도에 해당 되는 13명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며, 나머지 12명 중 6명은 한쪽 부모를 사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 면접에 참여한 8명의 부모들 중에서도 3명이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한명은 오래전에 남편을 사별한 채 한부모로 생활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모의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하였는데, 7명의 경우 취학 전 (0세 - 7세)에 가족 해체를 경험하였으며, 8명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4명의 경우 중학교 시절에 부모의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층을 망라하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경우 대부분 한쪽 부모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청년들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두 살 때 부모가 이혼한 21세 여성의 경우 이혼 후에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와 왕래가) 네. 전혀 없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별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크면서도 사실은 별 생각은 없어요. 크게, 뭐.... 티비에서 보던 것처럼 원망스럽다든가 아니면 보고 싶다든가 이런 감정도 사실은 없어서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사실 딱 만나고 싶다든가 아니면 보기 싫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예.... 별생각이 없어요. 엄마에 대해선. (어디 살고 있는 지) 전혀 몰라요(김현정).

또한, 2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살고 있는 20세 남성 역시 아버지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어렸을 때 뵈는 적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몇 번 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전혀요(김진희).

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인생에 전혀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만 스스로 연락하기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두 살 때 부모가 이혼 한 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21세 남성은 아버지와 연락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하였다.

아버지는 제가 한 살 때 어머니랑 이혼 하신 것 같고요. 가끔... 몇 번 최근까지.. 한 작년, 재작년까지 어찌다 설날 정도에는 왕복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연락 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그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 거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나의 의지로 하라고. 그 후에는 상관없다고. 몇 번 가봤는데, 아무래도 가끔 가봤자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명절이라고 불러 놓고서, 그냥 아버지는 티비 보시다 주무시고 형도 형 혼자 티비 보고서 자고, 그리고 딱히 불러봤자 그냥... 돌 가지고 예쁘게 꾸며 놓는 것 마냥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안 갔어요(조승구).

본 면접 참여자들 중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 본인의 의지로 연락을 한 경우라도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중산층과 달리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 10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후 대학교 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22세 여성은 재회 후 어머니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엄마랑 이렇게 추억이 어렸을 때는 많이 없죠. 이렇게 이혼을 일찍 했으니깐. 근데 그 후에 엄마 집에 자주 간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번 내지 방학 땀 자주 가서 하룻밤 자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고 혼자 생활 해서 우울증이 좀 심했고 약을 먹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정신이 좀 왔다갔다, 했어요. 그거 좀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하룻밤 같이 자도 이렇게 좀 걱정되고 그리고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정유미).

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20세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후에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가수로서의 목표 하나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서 네가 버렸던 자식이 이렇게 컸다. 니가 버렸던 자식이 남들이 알만큼 가수가 됐다 그리고 나서 한 대 치는 게 목표예요. 남들이 들으면 불효긴 한데, 엄마랑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그거거든요. 엄마랑 대화한 게 전화였어요. 동생이 되게 발작이 심하다 했잖아요. 동생이 어느 날 발작이 심해서 의사도 손을 놓을 정도였어요. 애는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의사를 잡고 애 한번만 살려달라고... 동생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빠가 염치불구하고 바람났는데

아빠도 다 참고 애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한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엄마 마지막으로 들은 게 이 목소리였어요. 내가 뭘 상관인데 애가 죽든 말든 뭘 상관이냐고. 전 아직까지 이게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요(나유근).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 반드시 이혼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20세 여성의 경우 부모의 이혼 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 지속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녀는 이후 부모의 이혼을 도리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음을 볼 수 있었다.

원래부터도 아빠가 집에 별로 없으니까 아빠가 집에 오시면 되게 어색한 거죠. 아빠랑 있는 자체가. 1년에 아빠 오는 거 다 합쳐도 한 달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없다시피 살았는데, 아빠도 좀 그런 게 저희들 생일을 몰라요. 그 정도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빠가 생활비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생활비 하나도 없이 계속 이제 밖으로만 도시니까 이제 엄마가 계속 힘드신 거죠. 정말 한참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부터 엄마 마음을 알았고,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하루는 엄마 아빠랑 이혼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차라리 잘됐어 이랬어요(신영희).

즉, 이들의 경험은 가족의 해체,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에 초기부터의 관계 지속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거주 형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양쪽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연구 대상 중 25%에 해당하는 5명에 불과했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부모의 여러 가지 문제, 재혼 등으로 인해 현재 한쪽 부모와 살고 있거나,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일찍부터 혼자 독립한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22세의 남성은 아버지의 재혼 후 자신이 할머니와 살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처음 보는 분을 어머니라고 부르자니 그런 것도 어색했었고 같이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 같이 살고 어머니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아버지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여가지고 (중략) 집안에서 싸우고 할머니 집에 가겠다는 말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간 다음에도 방학이 되면 할머니 댁에서 보냈

어요. 그렇게 버티는 거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저도 많이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고, 몇 번 화도 냈었고 그러다 결국 터져가지고 어머니가 전화로 할머니 집에 갈래?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고 할머니 집으로 혼자 왔어요. (김현중).

언니와 함께 동거 하고 있는 20세의 여성의 경우 음주 및 폭력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분이랑 사셨는데 그 여자 분의 돈을 훔쳤나 봐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그 아줌마랑 헤어지셨어요. 언니들이랑 상의해서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아버지한테 맞은 경험이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 때리고 잔소리가 심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알코올 치료 받으러 지금 병원에 있어요(김희영).

또한,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20세의 남성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거주를 하게 되었다.

그니까 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요, 따로 살고 있어요. 그니까 원래 저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새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게에서 주무시고, 어머니는 가게에서 주무시고 저는 원래 집에서 혼자 지내요. 혼자 지낸 거는 고2때부터고요. 이혼하신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랑 살았어요?> 네 5학년 때부터 고, 중 어 언제까지지 고1때까지 같이 지내다가 이제 고 1때부터 점차 혼자. 원래 그니까 새 아빠네 집에서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차만진).

위의 면접 내용에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잡성이 관찰되어진다. 본 조사의 경우 부모의 이혼 및 사별 후 청년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가족 현상으로 남은 부모의 재혼 및 사망을 들 수 있다. 면접에 참가한 청년들 중 6명이 한쪽 부모의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한 후 곧 나머지 부모의 사망 및 재혼을 경험하였다. 특히, 나머지 부모가 재혼을 한 경우 새로운 가족과 부모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의 성인들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방황과 가출로 이어지는 보다 심각한 일탈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으며, 곧 이어 아버지 사망, 새어머니 재혼 등을 연달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에서의 소외와 계속적인 가출과 자퇴 등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빠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중략)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쪽에서 키워졌어요. 그 전에 친엄마랑 기억은 없고요.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키워는데, 그 쪽에는 오빠 세 명이 더 있었어요. 있다가 제가 6,7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돼서 새아빠가 들어왔는데, 새엄마, 새아빠 양부모님이 되는 거죠. 제가 호적에 올라가서 키워지진 않았어요. 계속 혼자 있었어요. <몇 살까지 같이 사셨어요?> 열여섯? 열일곱? 이 정도요. 중3때부터 많이 방황해 가지고 나와 살다 다시 들어갔는데, 적응이 안돼서 다시 나오고 그랬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중간에 중3때 다시 학교 졸업하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퇴학 처리가 되잖아요. 너무 오래 많이 빠지면... 그래서 어렵게 졸업은 했어요. 고등학교를 가긴 했는데, 집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사회로 나왔는데..(손영혜).

이혼이나 재혼을 선택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 청년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이는 또 다시 가족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2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도 어머니의 재혼 과정에서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와 이에 따른 자신의 부적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웃음) 그때부터 제 인생이 꺾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재혼이라는게 자녀들의 동의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 좀 필요로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았고, 어머님이 좀 되게 강압적이셨어요. 그 과정에서 체벌도 좀 있었고 (웃음). 내가 집도 나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가고 뭐 이러면 또 뻘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냥,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또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하고 좀 어울리고... (웃음). 학업은 등한시하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유지혜).

## 2) 취약함의 대물림

청년들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오는 교육적,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에 의지하게 되며(Aquilino, 2006; Osgood et al., 2005),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지원은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choeni & Ross, 2005).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가족적 특징으로는 ‘취약 위기 상황의 대물림’을 들 수 있다. 즉, 가족의 해체 및 단절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수월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에는 그들의 부모가 가진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원 부족’은 부모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업 실패나 사별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경제가 어려워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사 참여자들 대부분은 부모 자신이 취약위계층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취약위계층의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와 어린 시절부터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 관찰되었으며, 원가족에서의 갈등적인 관계는 뿌리 깊은 남존여비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계층을 망라하고 전통적인 남녀의 지위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성장한 현재 청년들의 부모세대의 경우 “남존여비”의 차별을 가족 내에서 부터 경험하며 자라왔다. 이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어머니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으며, 그들 가족이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남자형제로의 자원 편중을 한층 심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옛날 할머니가 계시면서 항상 아들만 챙기고, 그러니까 생활은 솔직히 좀 무능력하세요, 그러면서 권위의식은 있어서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대우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생활력인 면에서는, 생활에 모든 걸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꾸리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 되면서 왜 대우만 받으려고 했는지(부모3).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부모들의 학력 수준 또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부모 혹은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이었으며, 가장 높은 학력은 대학교 중퇴였다. 이러한 낮은 교육 수준은 특히 어머니 사이에서 두드러졌는데, 위의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 아버지의 교육에 있어서의 편애 때문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표현하였다.

학교요? 중학교. 저희 아버지의 고지식한... 딸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게 지금도 심해요. 지금도... 지금도 딸 둘 아들 셋인데 아들은 엄청 편애해요. 딸 손자, 손녀딸은 그냥 있나 보다.... 아들 손자, 손자딸은 완전히.... 그래서 불행했죠(부모3).

또한, 현재 혼자 20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경우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때 가족 내에서 교육은 아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했고요, 제가 스스로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 졸업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좀 그렇게 안 봐요 <네(웃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싫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로 오빠 있으니까 오빠를 가르쳐야 된다, 형편이 안 좋은데 밑으로 여동생하고 나이차이가 한 4살 정도니까 그 사이에 집안이 괜찮아지면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럼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공부를 다> 네 <못 하신 거네요?> 네, 제가 검정고시를 봤다니깐요 그래서. 그러면서 <검정고시로 그럼 고졸?> 아뇨 중졸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한테 아우 무식해 그런 소리 또 듣기 싫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에요(부모2).

이러한 남존여비와 더불어 부모가 성장할 당시 취약위계층 가족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현재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교육기회를 한층 더 제한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저희 엄마 아빠는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는 진짜 엄마 아빠는 농사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문제는 뒷전이고,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도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2남 8녀예요 저희 집이, 아니 2남6녀, 2남 6녀여서..... 애들 8명을 키워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일밖에.....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예요. 단지 교육에 열의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뭐 화도 안 내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욕도 안 하시고, 사랑으로 키우셨기는 하지만 교육에는 조금 부족했다, 옛날 분들 글잖아, 아들한테만. 먼저 막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에요(부모1).

다음으로, 본 조사 대상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부모들 중 다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많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매우 이른 나이 (20대 초반)에 준비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난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22세의 여성은 부모님의 결혼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요인이 그 후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엄마 아빠 결혼이 양가 허락하는 결혼이 아니라서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결혼 한 후에도 저희 낳은 후에도 양쪽 집안이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정유미).

비교적 늦은 나이(27세)에 결혼을 한 한 어머니의 경우도 자신의 결혼이 자발적인 결혼이 아니었다고 회상하였다.

엄마, 어 결혼을 해서 살면, 엄마가, 엄마의 삶이 너무 피곤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혼 안하고 사는 게..... 내 삶에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부모님들은 절대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너무 너한테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핑계인 거 같아요, 반은 떠밀려 살았던 것도, 어쨌든 제가 굳이 막 어떤 식으로도 안하려고 했으면 했을 텐데..... 그래 한 번 쯤 나도 편하게 살아보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부모2).

### 3) 교육방치

위의 부모 면접 내용에서 연상 되듯이, 대부분의 취약위계층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원 부족으로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 대상자들 중 다수는 부모가 본인들의 학교생활이나 진학 등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네. 어머니는 하셨죠. 공부하라 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는 해요, 하는데 그게 오래 못가죠. 한 시간 하다가 말고. (자주 그런 말 하셨어요? 공부해라, 뭐 이렇게 좀 매일 하시다가요, 안 되니까 말씀 안 하세요. (언제쯤 포기하셨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웃음) (어느 순간) 네, 어느 순간 말씀 안 하셨어요(차만진)..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적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한 여성은 이러한 교육적 무관심을 ‘방치’라고 표현하였다.

사실 방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와 놓고, 아무 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 나이에 애들이 구체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냥 문제집을 사준다던지, 학원을 보낸다던지 이런 게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집안일 시키고 그리고 뭐 TV 보면 보지마라.... 이렇게 하고 그다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유지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과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충분한 교육적 관심 쏟지 못한 요인으로 ‘부모들의 어려운 삶과 경제적 자원 부족’을 들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카드빚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21세의 남성의 경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기 전과 후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님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맨날, 시키시고, 막 하라고 하라고. 그런 게 좀 심하게..... 참 견한..... 심하게 이렇게 하신건가..... 여하튼 거한테 그때 생각으로는 네. 되게 많이 (공부를) 시키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하시고, 중학교 때 잠깐, 조금 하셨어요. 왜 안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저도 뭐 어머니한테 뭐 공부 같은 거에 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시험 얘기도 안했어요. 그냥, 그냥 딱 갑자기 아침에 그냥, 아 나 시험, 오늘 시험이야 시험. 일찍 끝나니까 일찍 들어올게요 이런 면 아 너 오늘 시험이냐고(신태섭).

특히 이러한 교육적 방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는데, 부모들은 자신의 바쁜 생계 활동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에 한정된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21세의 남성은 아버지와 사별 후에, 바쁜 어머니는 거의 자신의 학교생활을 챙겨 줄 수 없었으며, 자신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에서 준비물 있잖아요. 준비물 말고는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준비물, 막 그냥 뭐... 크레파스 같은 것은 집에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큰 누나가 쓰던 것 작은 누나가 쓰고, 작은 누나가 쓸 때 저한테 내려오잖아요. 왜냐하

면, 그 시기가 있잖아요. 큰 누나가 4학년 되면, 이제 졸업,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은 누나 하고 그 다음에 저잖아요. 그렇게 쓰고 . . . . . 여태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 용돈 받아 본 적도 없고(진영택).

남편과 사별 후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한 어머니 역시 자신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딸이) 밑거름이 안됐던 것 같아요. 밑거름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흙이 고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밑거름을 참 잘해 놓으면 나무가 참 잘 할 텐데 그냥 가늘게 자란 거죠. 밑거름이 안 되었으니까 그제 참 아쉬워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제일 미안한 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거예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오로지 난 애들은 그냥 입만 안 굶겼던 것 같아요. 내가 애들 공부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교하고 제가 시험지를 시켰는데, 거기에만 의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시험지를 굉장히 오래 시켰어요. 10 몇 년을 시켰는데... 시험지만 한 가지 시험지만 거기에만 의지를 시켰더니 공부가 전혀 안되었던 거예요(부모3).

위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한 어머니는 이혼 전과 후에 자신이 자녀에게 쏟은 교육적 관심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육 참여를) 제가 다 했어요. 애들 셋 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 제가 딸리는 거죠, 제가 딸리는 거고, 저도 이제 일터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멀어졌죠. 점점, 그래서 저도 방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큰 애가 5학년 때 혼자 됐다 그랬으니까, 이혼했다 그랬으니까, 그 때부터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공부에 애들한테 신경 못 써주고 학습지 하면, 아이고 그것만 하면 아이고 잘 했어(부모 1).

#### 4) 취약위기계층 부모의 부적응

어려운 삶의 과정과 경제적, 교육적 자원 부족을 경험하는 취약위기계층의 부모들은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부적응은 흔히 알코올 중독 및 폭력의 문제로 나타나며, 많은 취약위계층 자녀들이 전 생애에 걸쳐 부모의 부적응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중 25%에 해당하는 7명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폭력이나 음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부모의 부적응을 보고한 청년들 중 5명은 유년기부터 겪어 온 부모, 특히 아버지의 폭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니까 이혼하시고 바로 온 게 아니라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셨구나. 4학년 때 이혼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시고선 저는 원래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요, 어 좀 많이 맞았어요, 좀.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시고 자기보다 먼저 잔다고 때리고 그냥 좀 막 맞고 이렇게 컸는데 크면서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니까 아버님께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를 안 해주셨어요. 빨래나 막 이렇게 밥 같은 거나 이런 거 아예 안 해주셔서 좀 힘들었었어요. 좀. 그러다가 무슨 계기로 제가 아빠한테서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간 계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계기가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는 거를 걸렸어요, 아빠한테. 몰래 몰래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날 된통 맞고서 못 견디겠어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차만진).

과장을 그만 두시고 근데 그 사업이 망쳐서 돈이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집이 안 좋아져서 아버지가 술을 계속 많이 먹어서 저희까지 매일 매일 폭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어쩔 때는 빌라 옥상에서 밤을 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너네 왜 어디 갔다 왔냐고 자기가 때려 놓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김희영).

폭력 및 음주 문제로 나타나는 부모의 부적응은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찰되었다. 부모가 종교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20세 여성은 아버지에게 맞은 기억을 다음과 같이 공유했다.

많이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많이 맞았는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 고3때부터 안 때리셨어요. <어떨 때 맞았어요?> 그냥... 그냥.... 엄마가 막 새벽 예배를 나가세요.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 어디 갔냐... 막 찾아. 찾아오라고 막...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엄마를 찾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오면 왜 엄마 못 찾

았나... 안 찾았냐고 때리고 그랬어요(박혜영).

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후 부모의 갈등과 음주에 대한 감정을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그렇게 5학년 때부터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많이 싸우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그 나이 되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진짜 전 데리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보이는 게 맨 날 술 먹고 싸우시고, 막 부딪히고 이러는 모습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엔 너무 창피했어요(신태섭).

지금까지 살펴 본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가족적 맥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전 생애에 걸쳐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된 취약한 가족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 원가족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교육 지원 및 기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의 부적응 현상(폭력 및 알코올 문제)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2. 가족 내에서의 성인기 경험과 가족 관계 형성

### 1) 부부갈등 속에 끼어들기

앞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조사에 참여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갈등, 이혼 및 재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장기에 쉽게 부모의 결혼 갈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에의 노출은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을 곁에서 목격할 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목격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20세의 한 조사대상자의 경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엄마의 가출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폭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시달려서 저희가 이모 집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온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는 알아차렸거든요. 엄마가 도망간다는 걸. 그래가지고 언니 도망간다고 엄마 잡으라고 했는데, 언니는 게임만 하다보니까 엄마가 택시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김희영).

더 나아가 다수의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결혼 및 재혼 관계의 갈등 속에 편입되어 다양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두 분에서 싸우게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 욱, 어머니는 아버지 욱..저한테 하는 게. <그런 것을 얼마나 자주 봤어?> 심심치 않게. 아... 잘 지내나보다 싶으면 한번, 잘 지내나보다 그럼 한번(김현중).

어머니의 재혼 관계에 있어서 갈등에 직접 개입이 되었던 28세 여성은 어머니의 부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가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다고 말했다.

어머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었기 때문에 새로 만나는 남편에 대해서 좀 집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마찰이 없이 잘 지내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서 새로 만나는 분에 대한.... 저 때문에 오는 마찰에 좀 겁을 내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구요... 또 그게... (새아버지가) 외도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히스테리나 이런 것도 이제 자녀들한테 다 화풀이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장래 계획도..... 목표는 하나였죠. 빨리 집을 나가는 것. (웃음) <집을 나가는 거요?> 네. (웃음) 보란 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빨리 나가는 것. 그리고 어머님이 재혼 하시고 아버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게 항상 저의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거나 해서 돈은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핸디캡들을 넘어 설 수 있는..... 또 조금 더 어떤 내 지위를 높여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유지혜).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20세 남성의 경우도 아버지의 갈등과 감정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대한 부담스러운 감정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술을, 약주를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나가신 이후로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약

주만 하시면 저희를 잡고 우세요. 남들 학원 보내는 거 못 보내서 미안하다. 그리고 니 엄마를 원하면 엄마를 찾아주겠다. 우시고 안 우시는 날에는 그냥 뭐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우시지 않으실 때는 그런 말씀 하세요. 자기만큼만 되지 말라고. 공부 안하면 자기처럼 된다.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욕하면서 한마디씩 던지시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꽂히셨나 봐요. 자기처럼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데... 저희는 아빠를 되게 멀리해요(나유근).

양쪽 부모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이혼 후 부모의 이성 교제 과정에서의 갈등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20세 여성은 어머니와 새 남자친구 간의 갈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엄마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런 건 없었어요. 만나는 건 괜찮았는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잘 안 맞았어요. (중략) 근데 아빠랑 살 때보다 더 많이 싸웠어요. 저희들 앞에서. 성격 차이로. 막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뭐 뺨때리면서 싸우고 아무튼 막 육탄전 막 벌이면서 얼굴에 멍도 생기고. 하루는 막 싸우고 들어왔는데 엄마 눈이 이렇게 막 멍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가만 안 뒤. 오면 뭐라 해야지 이랬는데 아저씨 딱 오니까 볼이 씹혀 있는 거예요. 이빨자국 이렇게 있는데. 아 엄마가 심했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도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이랬는데 적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가서 싸워 이랬어요.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정도로 그냥 익숙해 졌거든요.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 장면은 아저씨가 엄마 머리를 잡고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끌고 다니고 또 이제 엄마 뒷머리 채를 잡고 책상에다 머리를 이렇게 자꾸 박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답시고 그 전화기, 집 수화기를 들었는데 뭐 하려 하나면서 수화기를 뺏다가 옆에 있는 남동생 뺨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 하나고 나가라고 싸우려면 나가라고 지금 애들 겁먹은 거 안보이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신영희).

## 2) 미리 맛보는 성인기

부부 갈등 및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한 여성은 “정말 잘 자랐다면 다른 애들처럼 제가 그런 것을 몰랐을 거예요. 빨리 철들지 않았을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부모 갈등 속으로의

편입 및 노출 경험’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로 하여금 일반적 청년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인기의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의 자원 부족으로 인한 방치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방치된 사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기에 기대되는 행동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내용은 이른 나이에 술과 담배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 청(소)년들도 예외라 할 수 없지만, 취약위기계층의 경우 보다 이른 나이에 쉽게 술과 담배 등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성들에게 두드러졌는데, 28세의 남성은 “담배를 핀다던가, 술을 먹는다던가..... 제가 아예 대놓고 놀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부터” 라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남성들 역시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중학교 때는 무서우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 저는 피, 저는 피요. 나는 피. 이랬어요. 피는 데 그냥 저는 엄마가 한숨 쉬면서 아, 그럼 피라고...(이 영준).

많이 싸웠죠(웃음) 동갑내기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뭐 하기도 하고, 담배도 일찍 배워갖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탈선 할만 한건 거의 다 해봤죠(최태훈).

술과 담배 등의 비교적 흔한 경험 외에도, 취약위기계층의 청년들 중 다수가 이른 나이에 성관계 및 이성과의 동거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관계와 동거의 경험 역시 남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면, 현재 21세의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때 성관계와 동거를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단지 뭐 여자와의 몸으로 하는 섹스, 성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뜬 애들은 정말 많이 뜬 애들도 많죠. 요즘 중학교 가면 다 뜬다는데요. 저도 뭐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그냥 평균이거나....〈첫경험은?〉 고1때죠.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보통이구나...

특히, 동거의 경우 자신이 갖지 못한 지지적인 가족에 대한 대리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누나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같이 놀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그 누나 집도 놀러가고

하다가 누나랑 동거를 하게 되면서 살게 됐어요. 고 2 말 겨울방학 때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귀지는 않았고요. 되게 좀 특이한... 되게 많이 복잡해요. (중략) 지금까지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싸우면서 지내는 걸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그런 게 많았고.... (중략) 누나랑 같이 살면서 누나는 잠깐 일을 쉬고, 저는 계속 카페에서 일을 할 때 “누나 갔다 올게요” “잘 다녀와” 하면서 인사를 하고 마중을 해주고 그런 것에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었어요. (김현중).

또한, 28세의 남성은 현재 여자 친구와 동거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성 관계 역시 이른 나이에 시작했다고 언급하였다.

중학교 때 제일 남는 기억은 역시 노는 문화와 그때 이성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는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중략) 놀다 보니까 노는 애들 중에서도 여자애들도 있을 거 같아요. 몇 명 여자에 중에 이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가지고 그 때는 제가 좋아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되게 모든 게 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귀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힘들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에는 제가 사귀자고 그러면 다 사귀었던 것 같아요(김우현).

이 참여자의 경우 역시 이성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동거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되게 많이 쳐가지고 보니까 빨리 안정된 뭔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되게 빨리 안정되게 꾸렸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평범하게, 되게 빨리 살고 싶었던 게 강했던 것 같아요. <동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한 세달 되었어요(김우현).

고등학교 시절 여자 친구와의 동거를 경험해 봤다는 20세의 남성 역시 동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여자 친구랑 동거요? 어 그건 괜찮을 거 같은데. 아 그건 제가 했었어요. (웃음) 저 고

등학교 때, 아 중학교,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혼자 살았나? 맞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집이 가까웠으니까 거의 만날 같이 지냈어요. 그냥 일주일에 네 다섯 번?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동거에 대해서> 그냥 가족 같아요. 좋아요, 그냥. 좋았어요. (중략) <동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계기? 저 혼자 있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아 혼자 있는데 너무 심심해 이랬더니 여자 친구가 와서 그냥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여자 친구도 그냥 집에 안 가고(차만진).

위와 같은 남성들의 긍정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한 20대 후반의 여성 참여자의 경우 가족의 갈등 속에서 뜻하지 않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아빠의 작은 아빠? 동생 집에 갔는데 갑자기 심부름을 갔는데 문을 잠그고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새아빠와 작은 아빠?> 그러더라고요. 집에 오면 항상 그랬어요. 그 때...새아빠가 그랬던 건 새아빠 오셔서 별로 안됐을 때.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중략) 그리고 한번은 작은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부름을 갔는데, 한번은 심부름을 작은 아빠 집으로 보냈는데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문 잠그고 침대 데리고 가서 바지를 벗기고 나가려고 하면 다시 잡아다 방으로..... 소리를 지르고 30분 동안 계속 난리를 쳤죠. 나가려고.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울면서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오빠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깐 처음에는 뭐라 뭐라 하시면서 그냥 조금 화를 내시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나한테 따로 얘기하는데 오빠 있는데서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참여자의 경우, 가족 내에서의 부적응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결혼 그리고 이혼과 같은 성인기 경험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인은 자신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애정 결핍”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 3때부터 많이 방황해가지고 나와 살다 다시 들어갔는데 적응이 안 되서 다시 나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가기는 했는데 집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사회로 나왔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열여덟에 했어요. 나와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상황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혼자예요. 흔히 말하는 애정결핍?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빠지고 그런 것 같고, 그런 게 영향이 없지가 않더라고요. 누구 한명이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그게 아닌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빠져버리고요. 그런 게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서도, 지금까지도 그래요. 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 래도 못 봐요. 지금 남자 친구도 그렇거든요(박수정).

하지만, 면접에 참여한 모든 취약위계층층 참여자들이 모두 이렇게 빠른 나이에 개방적인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상당수의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이른 성적 경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 가족의 영향과 관련되어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이른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22세의 대학생은 그러한 태도가 “스스로 자원봉사 하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머릿속에 내재된 것 같다” 고 설명하였다.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이성 관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생겼다는 설명도 있었다. 28세의 여성의 경우 부모 갈등에의 노출이 남자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이성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이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저의 항상 연애 패턴의 문제는, 상대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마음을 그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진실성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재혼 하시고, 저는 남자라는 모델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인제 새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런 외도 (웃음) 엄마한테 오면 되게 잘해주는 척 하는데 또 외도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아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 언젠가는 변할 거야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유지혜).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20세 여성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선입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되게 뭐지... 되게 그런 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되게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을 되게 없애려고 하는데... <어떤 선입견이요?> 그냥 저희 아빠 같을 거라는 선입견.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다(박혜영).

또한, 친구나 친척의 개방적인 성관계 및 동거에 대한 간접 경험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21세의 대학생 여성은 동거나 성관계 대한 자신의 시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뒷마무리만 잘 해결한다면.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서로 잘 해결한다면. (중략) <동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도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 집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동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척 오빠도 동거, 결혼 아직 안했는데 동거하고, 저희 친구 보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느낌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아 재 왜 저러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이진희).

### 3) 성인되기에 대한 압박

이러한 동거, 성관계 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족 및 부부 갈등에 노출이 되어 온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내에서 다양한 성인 수준의 기대를 접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부모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모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를 요구 받음으로써 가족 내에서 주로 성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이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가족 내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갈등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중 일부는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종종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 및 문제 해결에의 기대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현재 재수 중인 20살의 여성의 경우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아빠 쪽은 이혼을 하신 다음에 계속, 계속 이제 연락은 거의 없었는데 큰집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놀러 와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가시죠. 이혼을 하셨으니까 안가시고 동생들이랑 같이 가면 이제 할머니가 불러요 저를. 불러서 한 시간정도 항상 갈 때마다 면담을 해요. 네가 큰딸이니까 엄마 잘 설득해서 다시 잘 합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매년 들었어요. 몇 년간을. 그제 이제 자기 아는 집도 그러는데 거기 큰딸이 어떻게 해서 잘됐다,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래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 들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네, 네 이러다가 좀 컸다 싶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아빠가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뼈가 다 아작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병문안 차 한번 가보고 그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직도 자기랑 재결합할 마음 없냐 이래요.... 아 엄마는 아직 아빠랑 합칠 마음 없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녁마다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가 술 먹고 전화해서 아빠 힘들다 이러면서 엄마는 어떡하 이렇게. 아 아빠 그냥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면 엄마 기다리지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더 빠를 거 같아 그랬어요. (신영희).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사별한 25세의 여성은 부모에 대한 주변의 불만을 듣는데 대한 부담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순간순간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순간순간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저런 게 있었어요. 뭐 친척들이 아빠한테 대한 불만들을 제가 큰딸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윤미령).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직면하는 두 번째 역할 기대는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다양한 이유로 자신 및 다른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경우, 부모 대신 자녀가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 받는다는 것으로, 주로 여자청년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허리 장애를 얻게 된 한 어머니는 딸이 감당해야 했던 자신의 보호자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가 우리 딸내미 수능 볼 때 고3때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제가 보호자가 애밖에 없으니까, 학교에도 수시로 전화하면 근데 내가 전화하면 당연히 우리 애는 조퇴해서 집에 오는 거야. 딸이 데리고 병원에 가야되니까. 그래서 그 때 애한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한창 수능보고 할 때, 허리를 못 써서.... 하체를 못 썼거든요. 개 고 3때 아예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개가 119 부르고, 그래서 공부 는 나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 3).

또한, 20세의 여성의 경우 어린 시절 엄마의 가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돌봄 역할과 그로 인한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즈음 엄마가 집을 나가셨으니까 엄마가 하던 일들은 제가 다 떠맡게 된 거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아빠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제가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애들 돌봐야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했다고 했는데 성이 안차잖아요. 아빠는... 제가 좀 안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빠가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날 많이 많이. 그래서 만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때는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임미숙).

마지막으로 많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가족 내에서 성인으로서의 역할로는 ‘결정을 내리는 역할’ 을 들 수 있다. 즉, 부모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나 상황에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인생 및 가족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경제적 계획에 대한 결정, 일에 대한 결정, 진로에 대한 결정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5세의 여성의 경우 자신의 성인기가 중학교 때 시작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면을 그때부터 자신이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뭘 상의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결정할 때도.. 학교 그만둘 때도 제가 결정한 거였고, 계속 쪽 그랬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스물여섯 살이 되었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순간 든 건 아니고 계속 그냥 꾸준히 그랬던 것 같아요(윤미령).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가족에서의 성인 수준의 역할 기대는 성별 뿐 아니라 그들의 출생순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막내들은 저소득층 가족에서 자라고 부모의 갈등 상황에 편입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순위 형제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성인 수준의 기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거주 하고 있는 20세의 여성은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저는 그 뭐지. 이혼하고 나서부터 그랬는데, 나는 난 아빠 역할도 하고 딸이 역할도 하고 난 가장이야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들 버릇없게 굴면 야 내가 아빠 대신해서 너, 너네 벌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억울해 하지 말라고, 애들 벌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고(신영희).

아버지와 어릴 때 사별한 21세의 여성의 경우, 일을 하는 어머니 대신 동생을 신경 써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동생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술, 담배 하지 말고 집 나갈 생각 하지 말고... 계속 제가 주입을 했어요. (중략) 그래서 저희는 둘 다 그냥 사춘기라고 말대꾸 정도.. 짜증내고 화내고 요 정도... 크게 반항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못하니까 저라도 해야 되고..(이진희).

첫째 자녀로서 겪게 되는 위와 같은 기대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한 여성은 가족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으로 표현하였다.

가족이요? 아... 좀.... 짐이죠. 네 좀....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뭐 가족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힘의 원천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마음의 근심, 뭐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죠. 많이 힘들게 했구요, 어깨가 좀 무거웠죠. 이제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좀 더 그러신 것.... 의지하는 것이 좀 많으세요. 그게 뭐.... 꼭 경제적인 부분만은 아니고요, 음.... 어떤 뭐 일처리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적인 것도 그렇게 많이 의지 하시는데요, 제가 맏이라서 그런지... 그런 거 조금 더 힘들어요(유지혜).

이와 반대로 집에 형이나 누나가 있는 20세 초반의 청년들은 부모의 갈등이나 집안의 경제적 사정 등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례로 아버지와 사별 후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20세의 대학생은 자신의 생활은 아버지 사망 후에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저는 사춘기는 없었던 거 같아요. 막 말썹 피우고 이런 거. 그냥 학교 굉장히 잘 다녔어요. (웃음) 네. <그때 엄마랑 관계는 어땠어요?> 음... 좋기도 하고 저 혼자 빠질 때도 있고 막 요구조건 안 들어주면 막 저 혼자 말 안하고 빠지면 엄마가 그냥 나중에는 못이겨서 그냥 해주고 그렇게(최서영).

누나가 두 명인 21세의 남성의 경우 생계에 대한 책임으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누나들과 모든

일을 상의하고 공유한다고 언급하였다.

엄마랑은 딱히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누나랑만 하고, 큰 누나랑 얘기하고, 진로나 그런 상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청자활(청소년자활지원관/공부방) 선생님들하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쪽으로는 나름 전문가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진학 할 때도, 엄마랑은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엄마랑은 한 마디도 안하고, 큰 누나랑, 큰 누나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대학도 뭐 그렇게 진학하고. (진영택).

#### 4) 소원에서 친밀까지: 변화하는 부모-자녀 관계

취약위기계층 청년들과 부모 및 다른 가족 간의 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반 이상(13명)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독립하여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28세 남성은 청소년기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화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안 좋아 하고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소리는 다 잔소리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늦게 들어가면 뭐라고 하시고,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한참 이제 놀 시기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내버려두라고 하고 화내는 쪽으로 되더라고요(김우현).

그는 또한 이러한 갈등과 학교에서의 퇴학으로 결국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따로 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고등학교를 완전히 자퇴하고 나서 어머님이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했으니깐 너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대신 엄마가 살 곳은 마련해 주겠다. 그 외 할 건 니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 저야 그때 당시는 그게 더 좋았죠. 왜냐하면 저만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들 데려오고 놀고 이런 생각이 또 좋아가지고 알았다

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김우현).

이와 마찬가지로 27세의 한 여성은 성장기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부모로부터의 도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알아서. 저희는 딱 엄마가 제가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그때부터는 돈을 안 주시겠다고 니가 알아서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알아서. 그때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넌 끝이다. 그때부터는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후회했어요. 방황한 것을. 안했으면 제가 틀려졌을 거 같아요. 공부도 방황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도 계속 했을 거고 대학도 갈 생각도 있었을 거고(김윤정).

구체적인 반항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라도 면접자들 중 많은 수는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모와의 대화가 매우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할머니와 거주하고 있는 21세의 남성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를 “맞지 않는 관계” 로 설명하였다.

아직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과연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땐 뭘 얘기를 해야될까... 어머니도 그런 거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 할 말이 없었을거구. 많이 그런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벗어나고... 다 셋이 다 안 맞았던 거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은 대화가 없었으니까(김현중).

이러한 대화의 부족은 특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더 자주 목격되었는데,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21세의 여성은 아버지가 도시락을 챙겨주는 등 매우 꼼꼼하게 자녀들을 생각했지만 늘 ‘표현이 없고, 너무 혼자 있고, 외롭고 슬픈’ 존재였다고 기억하였다.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는 21세의 남성은 아버지와 직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본적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다.

저...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시긴 하세요. 무슨 동사무소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저도 자세한건... 아버지랑 그렇게 대화를 (웃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몰라서요 (신태섭).

중학교 때 어머니와 사별한 25세의 여성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던 어머니의 부재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어색해졌다고 설명하였다.

엄마.. 그나마 아빠랑 저를 연결해 주던 그런 역할을 엄마가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깐 아빠랑 이게 아무것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아빠하고 더 멀어지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빠도 저랑 제 동생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윤미령).

특히 취약위기계층 가족의 경우 생계유지로 바쁜 부모의 스케줄이 자녀와의 대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맞벌이를 해온 25세의 청년의 경우 성장기의 집안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지금은 저희 집이 되게 화목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화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거에 이제, 넘어 가면 제가 대학, 그러니까 스무 살 되기 전으로 넘어가면 그 때는 아버지 뭐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어머니도 공장 다니면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대화도 부족하고, 만나면 싸우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탔던 게, 그 돈이나 가난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부터 제가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 했나 막 이런 생각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사춘기 때 딱 와버린 거죠. 한 방에. 그 사춘기 되게 길게 보냈고, 그 기간 동안 계속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빠그덕 댔던 거 같아요. 가족이 다 빠그덕 대고, 그렇다고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돈을 덜 벌 수 없는 것이고. 집 사정에(최태훈).

부모의 노동으로 인한 대화 부족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린 시절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21세의 청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엄마가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는 소리에 제가 깨요. 잠을. 그냥 그래서 엄마 나갈 때 인사하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전 다시 자거든요. 그렇게 인사하고, 오후에 엄마가 집에 들어 오셨어요... 인사하고 그것 밖에 없어요. 하루 인사나 말하는 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조금씩 시간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가 있는데, 딱히 할 말이 없는 거

예요. 엄마랑. 엄마랑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다보니깐(진영택).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사별 후 여러가지 일로 바쁜 어머니와의 대화 부족에 대하여 21세의 여성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크게 싸우지 않았는데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생도 그랬고. 동생이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원래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줄 알았대요. 원래 가족이란 게 그 정도로 대화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 때도 있고 일하느라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하니까. 뭐 저희 둘 있으면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이진희).

위의 면접 내용에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와의 갈등적인 관계나 대화의 부족은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며 실제로 성인이 된 후에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었고 대화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계 회복에는 다양한 계기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26세 청년의 경우 새로 직장을 구한 아버지와의 현재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새로 들어가신 직장에서 지금 2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수입이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 정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빠한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제가 말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뭐 그냥 나쁜 소식만 안 들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지 아빠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보내 주시니까 안심되요. 그래도 예전보다 좀 대화가 많아 졌다는 것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딱 10년 걸린 거 같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정말..(윤미령).

아버지의 재혼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했던 21세 청년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버지가 중간 중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술을 드시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

동안 너무 미안하다고 해준 것도 없고 못해준 것도 없고 잘해 준 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아버지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엄마랑 그만 살면 안 되냐고 저한테 이혼 허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힘들면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버지 인생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건데 즐겁게 살아도 짧은 인생 뭘 그렇게 힘들게 사시려고 하시냐. 그게 만족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이혼 법적절차까지 끝내시고 이혼이 됐어요. 이혼 하시고 아버지와도 그 때쯤부터 많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애기를 하고 저도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 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가 됐거든요. 할아버지 산소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김현중).

위와 같은 경우 아버지의 감정 표현과 아들의 성장으로 인한 대화 기술의 성숙이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춘기 시절 방황과 퇴학 등으로 어머니와의 극한 갈등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어머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살면서 성격이 바뀌게 된 영향을 되게 크게 주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꼭 굳이 싫다고 하면 끝까지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시고 안 된다 안 된다 말은 하시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은 제 편이잖아요. 제가 사고를 쳐도 도와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나중에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왜 힘들어 하셨는지 왜 아프신지 아픈 것도 저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바뀌어 가게 된... 그 시점이 바뀌게 된 시점 같아요. 담배도 저희 어머님 때문에 끊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았어요. 표정도(김우현).

물론, 모든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즉, 대부분의 중산층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부모나 다른 가족 성원(할머니)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취약위기계층 청년들도 다수

관찰 되었다(10명). 일례로, 어릴 때 부모가 이혼 한 후 어머니와 계속 함께 지내온 20세 남성은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긍정적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분이셨죠.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일하시느라고 평일엔 거의 못 보더라도 막, 주말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주시기도 하셨고, 미안함 때문인지..... 집에서 핫케익도 구워주시고 막 탕수육 해주시고 뭐 야채튀김 해주시고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자주 해주시고 막 어디 가더라도 지금은 어디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다고... 아무래도 추억이나 그런 것 때문에라도(조승구).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22세의 여성 역시 함께 거주한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과 지속적으로 불만 없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 청강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할머니 대신에 고모나 삼촌 와주셨거든요..... 일단 트러블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할머니가 워낙 제가 혼자이기도 하니깐 워낙 잘 대해 주셨고요(김현정).

역시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20세 여성은 사춘기 없이 어머니와 꾸준하게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제가 생각해도 (사춘기를) 별로 안 겪은 거 같은데 지금까지 쪽 비밀 없이 엄마랑... 원래 아빠가 없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엄마가 집에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한테 막 얘기 하기도 하고 또 큰 딸이니까 집이 지금 사정이 이래 이런 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래? 같이 제 생각도 얘기해 주고.... 비밀도 없고. 오, 엄마 오늘 뭐 있었어.. 다 다 얘기해 주고 엄마는 어 그랬어... 다 받아주고(신영희).

이들의 부모 및 가족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족적 자원’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로 인한 경제적 안정과 다양한 서비스가 가족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공부방 서비스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제공 할 수 없는 학습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큰 애와 둘째를 겪어봤기 때문에 셋째한테는 신경을 더 많이 쓰죠, 공부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죠. 찾아서, 학원은 못 보내니까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지금 제가 복지관에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뭐 한다 그럼 그 쪽에 가서 이제 알아보고 아니면 막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구요(부모1).

상담이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또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긍정적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집 주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21세의 청년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저도 복지관 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있으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라던가 그런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고요(김현정).

다시 말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는 정신적 지지나 성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사회복지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성인들을 통해 대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위기계층의 자녀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0세의 한 참여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 모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복지관에 한부모 모임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만 빅맘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엄마가 1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모임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나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거기서 엄마가 되게 새로운 걸 많이 했거든요. 책도 저희 책도 냈었거든요. 책도 내고, (중략)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신영희).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은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받은 게 없어서요” 라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경제적 혜택 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외에도 종교 및 가족적 지원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청년의 경우 종교적 믿음이 자신의 성격 및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불만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믿으니까 의지할 곳이 좀 있으니까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약간 편하고 그런 거(정유미).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20세의 여성 역시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을 통해 가정에서 제공 받지 못한 성인기 이행에 대한 역할모델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아빠 싫고, 집안 가정 형편도 싫고 환경도 싫고 다 싫었어요. 제가 살아 있는 게 다 싫었는데, 목사님 만나면서 그냥 바뀌었어요. 그냥 목사님 만나면서 불평불만이 사라졌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박혜영).

또한,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0세의 청년은 부모의 이혼 후 외가집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조부모와 이모들이 보여준 관심에 대하여 회상하였다.

어린 시절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두 분 그렇게 있었거든요. 되게 행복했어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때는 저 밖에 없었고, 제가 어렸으니까 그냥 저 맡기시고 어머니는 일 나가셔가지고 늦게 오시고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잘 해 주시고, 막 이모들도 막 진짜 지금도 느끼길 약간 누나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되게 잘해주셨거든요(조승구).

지금까지 살펴본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가족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및 성인기 이행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약한 가족 환경을 경험해 온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갈등관계에 노출되고

직접적으로 갈등에 편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적 맥락은 이들로 하여금 (특히 남성들) 음주, 흡연, 성관계 및 동거를 포함하는 성인기 경험에 빠르게 노출 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 특히 여성 및 첫째들의 경우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갈등 및 가족 문제 해결, 돌봄과 결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빠른 성인기 진입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약위기계층청년들의 가족 맥락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자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이며 자발적인 노력이 관찰되었으며, 사회복지기관, 교회, 친척 등의 부모 외적인 맥락에서 얻는 지지가 이러한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족 경험과 미래 가족관과 결혼관 형성: 없는 것에 대한 갈망

마지막으로, 가족생활 및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미래 성인으로서 기대하는 결혼 및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대부분(22명)은 결혼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결혼의 동기 및 조건은 취약위기계층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관계와 안정에 대한 갈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앞서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가족의 안락함에 대한 동경이 결혼의 주된 동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을 되도록 빨리 하고 싶다고 답한 21세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집에서도 빨리 애 낳으래요. <빨리 하는 건 대략 몇 살을 의미하는지?> 군대 갔다와가지고 빨리 애 낳으래요. 아.. 저는 솔직히 진짜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도 뭔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저는 되게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덜... 더 빨리 외로운 감정을 안 느끼고 싶어서요(김현중).

이 청년의 경우 결혼의 또 다른 동기로 “오로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 을 들었다. 즉,

정서적 안락함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그러한 안락함을 자신의 자녀에게 제공 해주고 싶은 바람이 결혼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 역시 이러한 가정에서의 안정이 결혼의 주된 동기가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좀 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손에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꼭 애기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그게 저한테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이 저는 그리워요. 꼭 하고 싶어요(윤미령).

크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꾸준히 사랑해 줄 존재가 있다는 것. 계속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상대나 아니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진영택).

이들의 결혼에 대한 동기 및 바람은 매우 확실한 듯 보였지만, 실제 책임 있는 성인으로써의 결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정서적인 면 외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해온 취약위계층층 청년들은 “물질적인 안정” 을 결혼의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 23세의 남성은 결혼을 떠올릴 때 “일단 현실적인 것은 돈. 돈이... 현실적인 것부터 떠오른다” 고 답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카드빚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21세의 청년의 경우 자신의 이상적인 결혼을 “빚이 없는 결혼” 이라고 정의하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범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게... 평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빚 없이 그냥 무슨 조금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쪼달리더라도 빚은 만들지 않고 그냥 작은 집이라도 괜찮으니까 가족, 아내랑 애들이랑 알콩 달콩 사는 게..(신태섭).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위 참여자의 경우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직업” 을 꼽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위의 면접 내용들은 부모가 취약 계층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물질적 환경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 결혼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해 온 청년들의 경우 자신의 미래 결혼관에 부모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경험한 한 청년의 경우 자신의 이상적인 결혼 생활에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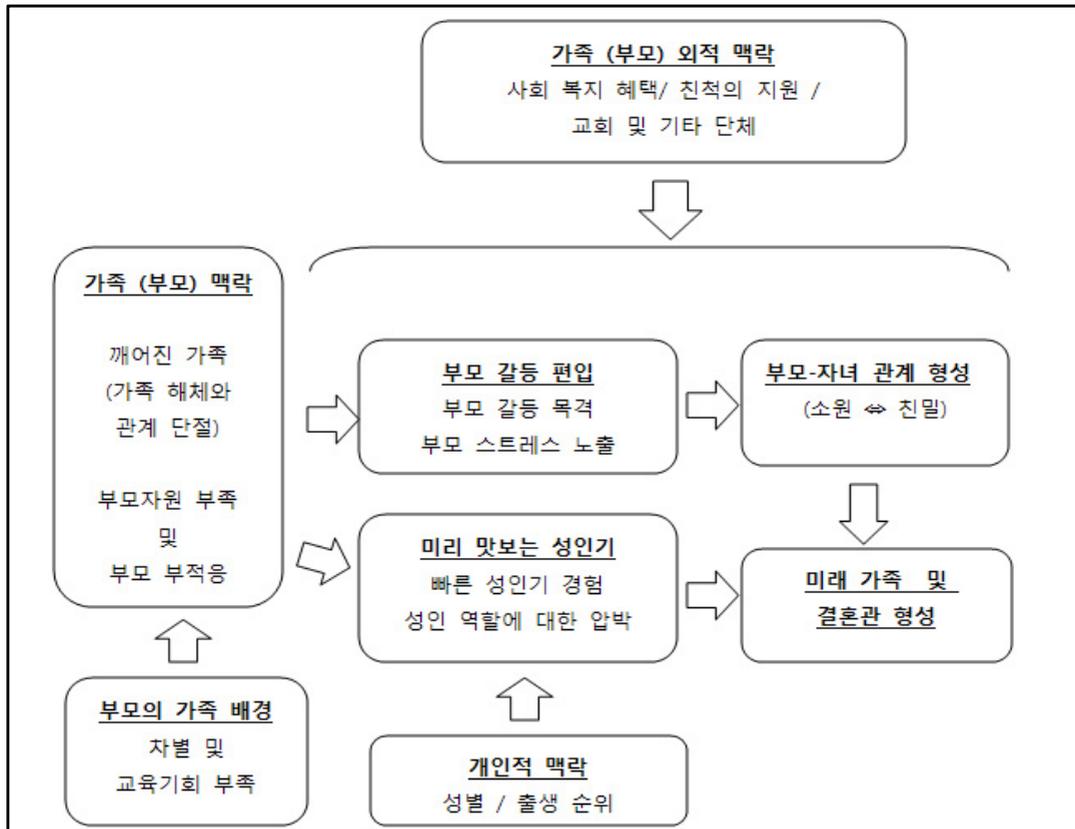
피곤하더라도 애들이랑은 계속 놀아주고 싶어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냥 웬지 꼭 애 들하고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얼굴 마주하고 만날 놀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중략) 최대한 이렇게 많이 놀아주고, 저도 제 어머니처럼 그러고 싶어요. 친구 같은 부모 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느끼기에 되게 편하거든요. 진짜, 모든 얘기를 이렇게 해줄 만큼, 저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조승구).

또한, 아버지와 사별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결혼생활을 관찰한 여성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 상으로 “아버지와 같은 남자” 를 지목하였다.

주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힘들게 아침에 일 나갔다 와도 항상 집에서 엄마한테 물을 묻히지 않게 했어요. 집안 일 하지 말라고. 시 장 보는 것도 혼자 가지 말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 (이진희).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를 결혼에 있어서 따라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역할 모델로 설정하는 반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경우에는 부모를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삼으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한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상호 관련 패턴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가족적 맥락, 특히 부모의 제한된 자원과 지지는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가족적 맥락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경험을 하도록 하며, 가정 내에서도 성인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반면, 가정에서의 성인 역할 기대는 개인적 맥락 (여성 및 첫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패턴의 정리

부모의 갈등 경험 및 성인기 경험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한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미래 결혼관 및 가족관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관 및 가족관 형성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즉,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를 형성해 온 청년들의 경우라도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며,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부모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 모델로 다양하게 활용하며 바람직한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모든 성인기 이행 및 가족 관계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족 외적인 맥락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여기서 만나게 되는 성인들을 통한 바람직한 성인관 형성, 부모를 제외한 친척의 지원 등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제 3 장

---

# 교육경험과 성인기이행

1. 교육기회의 제약
2. 일과 중첩된 학업
3. 제도적 배제와 교육제도의 이중성
4. 복지(관)와 삶의 전략



## 제 3 장 교육경험과 성인기이행

경제적 조건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청년들이 “정상적인” 성인기 이행을 거치기 위해서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경제자본이 적절하게 투자됨으로써 물리적 혹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은 경제적 제약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청년들의 부모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부모의 경제적 빈곤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10대를 거쳐 20대에 접어들었거나 20대 후반의 청년들 중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참고로 2011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39,413원이다. 최저생활보장 급여로 생계비 외에도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기도 한다. 2000년 이후 최저생계비지원으로 빈곤층의 경제적 삶이 일정 부분 나아지기는 했지만 수급자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급여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빈곤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는 생존 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빈곤을 가장 강하게 절감하는 부분은 충분한 교육기회의 박탈, 용돈부족,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등록금 부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모를 둔 20대 청년들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과 직결되는 고등학교 학창시절 다양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본 3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족과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현재 어떻게 교육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 취약위계층 청년의 교육 관련 개념 및 유형화

하위 개념	유형화 I	유형화 II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투자부족	부모의 경제적 지원결핍	방치된 청(소)년기
자녀학업에 대한 관심 부족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	부모의 교육적 관여 부재	
학업에 대한 무관심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함	일과 중첩된 학업	아르바이트화된 청년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찍 사회경험을 시작함 일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	이른 사회경험과 존재감	
학교의 방치와 무관심 학생의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부재 진로선택을 학생에게 전가	제도적 방치	탈제도적 성인기 이행
사적 연결망을 통해 진로모색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개인적 전략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없음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추상적 인식	대학교육의 양가성	대학교육의 무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사회복지관(공부방,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복지와 삶의 미래	제한된 미래와 자기인식

### 1. 교육기회의 제약

교육은 청년들이 성인기이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과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활용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물질적·정신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자녀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의는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녀교육의 문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면서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자녀에 비해 대학진학률은 물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계급과 교육불평등 간의 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구인희, 2003; 신명호, 2011).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교육과정이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청년 조사대상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학교로부터 받은 교육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학업과정에서 경험하는 몇 가지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초·중·고 이후 청년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들이 부딪치는 장벽이나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인기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결핍과 무관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생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많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전문대 재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지원이나 사회로부터 별다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냈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부모의 경우에도 경제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회고한다. 이혼 후 자녀 셋을 키우면서 현재 자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1]은 자녀들의 어린 시절 교육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진짜 힘들었죠 <네, 근데 키우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뭐에 더 중점을 두거나(웃음) 이런 거> 저는 키우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어가지고 애들 교육 문제도 많이 신경 못 쓰고 학원을 못 보냈죠, 학원을 못 보내가지고 그게 애들한테 미안해요(부모1).

이렇듯 조사대상자 부모들 중 절반은 자녀교육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불어 닥친 조기교육열풍으로 인해 최근에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조기교육 서비스를 받고 자란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모들은 자녀의 초·중·고 학업과정에도 치밀하게 관여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와 대학진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층 간 교육기회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2분기(4~6월) 월 평균 정규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경우 1만2766원인데 반해 5분위(상위 20%) 가구는 5만8733원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교육비 지출액 차이는 학원 교육비에서 더욱 커졌는데, 5분위 가구 자녀의 학원 교육비 지출액은 28만4832원인 반면, 1분위 가구는 4만114원에 불과했다. 학원 교육비 지출액의 5분위 배율은 7.10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11년 8월 29일). 이 같은 격차는 [부모 1]이 말해주듯이, 오늘날 사교육 차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오로지 그냥 학교 공부만 하면 됐잖아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뭐 학원을 다니고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학교공부를 잘만 하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완전 저 다닐때하고 틀리잖아요, 학교 공부는 요만큼인데 학원 공부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학원을 못 가는 애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학원에서 당연히 배우고 왔으니 알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학원을 못 보내는 애들은, 학원에 못 다니는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계속 뒤쳐지는 거죠.....(부모1).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부모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드시 자녀의 교육수준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는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더라도 자녀가 학업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교육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이 부모의 경제적 빈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개인의 역량, 습관, 실천 등 자발적 요인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실질적인 관여와 개입, 학교의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관계적 요인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부모들은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대체적으로 자녀의 교육과정 등에 대해 깊이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일해서 세명을 키워야 되는’ (부모1)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상황에 대해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너 알아서 해라’, ‘때 되면 하겠지’, ‘너 하고 싶은 거나 열심히 해라’ 와 같은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조사대상 청년은 “(어머니께서) 공부할 때 말로만 공부하라고 하는데 딱히 뭐라 하는 거 같지 않았고”, “하고 싶은 거 해서 잘 되라고만 했다” 고 말한다(안준기 사례). 물론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학원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사대상자 스스로 학원을 오랫동안 다니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머니로부터 교육에 관한 별다른 개입을 받지 않고 자란 한 청년응답자는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머님은 (공부와 관련하여) 그때 뭐 별말 없었어요. 그 아무리 공부하라고 학원에 막 보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그걸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예효, 할 때 되면 하겠지. 할 때 되면 할 거라고. 어차피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면 열을 가르쳐도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을 하면 열하나 열둘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라도, 그냥, 자기 공부하게, 자기가 느낄 거라고. 그럴 때 공부를 하더라도 해야지, 아님 그냥. 지금은 하기 싫다는데, 어리니까 놀게 해주자 뭐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조승구).

경제적 빈곤이나 개인의 역량부족으로 자녀교육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부모들은 교육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조사대상자들과 부모세대가 구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한 태도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 정도 불가피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싶지만 열악한 경제적 요건, 가족관계의 파탄, 부모의 건강악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상실, 부모의 저학력,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0살 이전까지 풍족할 게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서 살아가는 한 청년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아예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죠. 부모님도 아버지도 다 치이니까. 그리고 일부러 그냥.. 제가 해도 한다고만 말하고 <음, 별로 신경 안 쓰고>네. 성적표도 제가 직접 받아서(웃음) 잊어버리고(이영준).

또는 학업문제에 개입하고 싶더라도 부모 자신이 자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1]의 경우는 자녀 세 명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그 이후로는 “고학년 넘어가면 제가 딸리는 거죠, 제가 딸리는 거고, 저도 이제 일터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멀어졌고” 이혼 후 “방관하게 되고” “그 때부터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공부에 애들한테 신경 못 써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편 빈곤계층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은 경제적 요인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정환경이나 가족관계의 불안정성 또한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안한 가정환경(부모 갈등, 이혼, 부모폭력 등)에 자란 조사대상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유년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대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이 갖는 반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적 유대를 손상시키는 데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자녀의 학업문제에 대해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응답자는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살면서 열악해진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유지혜 사례). 그녀는 부모와 마찰이 좀 심해지고 어릴 적부터 “문제집을 사준다던지, 학원을 보낸다던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집안일 시켰으며”, “그닥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많았다” 고 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청년들의 부모들이 학력수준이 낮은 것도 교육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들의 학력수준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자녀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정보력이 약한 것만은 틀림없다. 조사대상자들의 부모들 중에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학원을 보내주거나 과외를 시켜주는 데 만족할 뿐이다.

## 2) 학업성적을 대체한 인성교육

청년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어릴 적부터 학업보다는 ‘놀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싸움도 많이 하고, ‘뺑 뜯고’, ‘오토바이타고’, 술과 담배를 일찍 시작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이탈하여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소위 ‘일탈행위’ 를 일삼는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공부는 거의 포기하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조사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정규적인 교과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또래들과의 친분관계나 사회경험(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축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별다른 인성교육 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부모들은 자식에게 마지못해 독립을 권하거나 독립을 시켜주면서 ‘네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태도로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못했지만 대신에 특별히 ‘인성’ 교육을 강조한 부모들이 더러 있었다. 즉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과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었다. 청년 조사대상자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공부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라는 구술들이 종종 나타났다.

교육 같은 거는 제가 학원을 못 보낸 준 그런 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애를 쓰다가 못 보내더라도 저기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신경 썼고요, 가장 신경 쓴 건 사실은 인성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나는, 저는 제가 이기적인지 모르지만요(웃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격이 나쁘면 부모한테 못하는,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는 공부는 못해도 저기..... 착한 아들이 더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인성 쪽에, 차라리 남을 좀 양보하더라도, 친구 구랑 가능하면 많은 친구를 사귀라고, 고등학교 때랑 중고등학교 때 사귀 친구가 아무래도 평생 가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 어렸을 때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줄만한 친구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오히려 그랬었거든요(부모 2).

위의 사례와 같이 인성의 측면,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배려, 봉사, 자발성, 성실성, 예의 등을 자녀들에게 강조한 부모들이 많았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을 위해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성교육만큼은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이 ‘착하고 올바르게 어디 가서 욕은 먹지 않는다’ 혹은 ‘우리 아이는 살아오면서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다’ 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리고 청년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이러한 부모의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여 그들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응답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어릴 적부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공부 쪽 보다는 어른에 대한 ‘예의’ 라고 말한다.

어머니께서 가급적 피해를 안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쪽으로 아무래도 좀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외에 무슨 사고 쳐가지고 어머니가 불려간다는가 최소한 어머니님 걱정 그런 일은 최소한, 최대한 안하려고 했고요, 어머니가 최대한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걱정하시지 않게 최대...좀 어른들한테도 밉보이지 않게, 어머니가 그런 거 원하셨거든요?... 최대 어디 가든지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리고, 또 공부 쪽으로 제외하고 어

머니 마음에 들도록 다 했거든요. 공부는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겠어 가지고 공부 쪽으로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의 지키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에서도 하는 거, 또 학교에서 사고치지 않는 거, 뭐 이런 등으로 살아왔어요(조승구).

위의 구술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강조했던 ‘예의’ 를 잘 지키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경우이다. 실제로 이 청년은 자신의 성장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부분으로 학교나 그 외의 다른 교육기관보다는 어머니의 가정교육을 꼽았다. 이와 같이 몇몇 취약위기계층 부모들은 경제자본의 결핍으로 인한 교육지원의 한계와 자신의 역량부족을 느끼면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들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공부는 제대로 시키지 못해도 ‘올바른 인간’ 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본을 제공하기 보다는 도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녀의 성인기 이행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 2. 일과 중첩된 학업

### 1) 아르바이트 일상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겪는 교육과정은 순수하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일정 정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아르바이트를 학업과 병행해왔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현재 대학생인 청년들도 등록금 마련과 용돈벌이를 위해 대부분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 생활은 곧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적도 떨어지게 된다. 청년들 중 구술자들이 경험한 전체 아르바이트 경험을 나열하면 전단지, 편의점 점원, 패스트푸드 점 점원, 술집 및 식당서빙, 주방보조, 택배배달원, PC방, 공사장(속칭 노가다), 대형마트(주차요원, 카트정리, 보안요원), 공장노동 등이다. 이런 일들은 보통 최저임금(2011년 현재 4,320원) 수준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면, 이들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는 일시적인 ‘경험’ 이 아닌 생계 그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일은 필요노동이 많았다. 당장 집안 경제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줘야하거나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부모의 별다른 제재 없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게 만든다. 조사대상자들 중 일부 청년들은 초·중학교 때 일당제 전단지배포, 식당보조 아르바이트 등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이후로는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다.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나이나 신분을 속이고 성인 술집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한 청년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다운 일이라고 해봤자 중학교 때 했던 거는 이제, 서빙, 고깃집, 뭐 편의점, 편의점도 그때는 뭐 그냥, 잠깐 도와주는 그런 식이었고, 중학생을 누가 대놓고 쓸 순 없잖아요. 전단지, 편의점도 중학교 3학년 때나 겨우겨우 잠깐잠깐 하는 거였지,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 때까지는 거의 뭐 그냥, 일용직이었죠 그냥. 전단지 돌리고, 이런 거 하고, 고정적으로 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고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백화점에서 일했던 게 제일 고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최태훈).

위 사례의 주인공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불가피하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는 학교수업 외 다른 교육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 청년들의 구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기에 가장 필요했었던 거는...뭐, 이거 또 돈 애긴데(웃음) <괜찮아요(웃음)> 돈이죠 뭐. 돈이 만약에 집에 좀 넉넉히 있었으면, 나도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음악도 하고 싶으면 음악학원 다니면서 하면 되고, 글쓰는 거 배우고 싶으면 논술학원 다니면 되고, 그랬을 텐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다는 거, 부모님이. 그리고 학창시절에 좀, 그랬던 게, 만약, 일을 안 하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 해봐요(최태훈).

(중학교)3학년 때인 거 같아요.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다면>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용돈을, 친구랑은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막 뭐 샀다 그러면 뭐 사고 싶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엄마한테 불만은 없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왜냐면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힘들었어요. 어리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안 주시고 그럼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프니까 거기 신경 써 계시니까 괜히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돈 벌려고 했죠. <보통 그 나이, 어리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집안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얘기조차 못 꺼냈던> 네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실 지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참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 동네에서 전단지 돌리고. 근데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러면서 재밌게 한 거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재미> 네 재미있고 힘들긴 하지만.... 제 기억에서 제가 돈 때문에 엄마 아빠를 원망했거나 그랬던, 그 엄청 큰 건 사실 없었던 거 같아요. 단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애들 학원 갈 시간에 사실 전 아르바이트를 한 거잖아요(윤미령).

그리고 소비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쓸 용돈별이를 위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오늘날 초등학생의 소비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빈곤계층 청년들이 어린 시절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은 예전 세대와 달리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생이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적은 용돈으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모임, 외식, 커피숍, 놀이공원, 쇼핑 등 이들은 오늘날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가생활마저도 누리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결핍감은 크지 않을 수 없다. 한 조사대상자는 경제적 빈곤 때문에 대학등록금은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나 여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등록금. 책값 이런 거. 아 등록금은 대출할 수 있지만 책값이나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돈도 더 많이 들잖아요.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차비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먹는 게 점심 외에도 막 있고 그러니 같이 다니게 되면 쓸게 더 많았던 거 같아요. 그때 그 좀 많이 힘들었어요..... 수급자니까 좀 미래로 장학금이라고 나라에서 주나 봐요. 그게 깎이면 한 제가 졸업할 때 천, 천이백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남아요. 그러니까 바로 취업을 할 거 같은, 1급 시험을 꼭 따서 취업을 하고서 한 달에 백만 원 적금하고 싶은데 백만 원 적금하기 힘들더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백만원이면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백만 원 적금하기 힘들다더라구요. 밥값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뭐 핸드폰 요금내면(남는 게 없다)... 없다고 해서 제일 못해도 칠십만 원씩 이렇게 적금

을 해서 계속 부었다가 2년 했다가, 그걸로 하면 천만 원은 갚을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 후부터 정말 저를 위해 돈 모으는 거. 2년 후에(정유미).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더욱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기라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은 그만큼 삭감된다. 본 연구의 구술자들 중 14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등록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 지방대 4년을 다닌 한 청년은, “다니는 동안 되게 깎았다고” 지방대를 다닌다는 “열등감도 좀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제 학업이 계속 이어갈만한, 등록금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다” 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 집에서의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해결할 순 없는 상태” 에서 등록금이 400만원에 상당했기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다(유지혜 사례).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동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졸업 후 “버는 족족 거의 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로 다 들어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다... 학자금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긴 참 힘든 것 같다” 고 말한다. 결국 “사회에 나오자마자 본인이 갚아야하는 이런 빚이나 이런 거는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어머어마한)돈” 이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재학 중인 청년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닌 청년들 또한 졸업 후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취업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일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저임금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빨리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4년제 한 지방대학을 다니는 또 다른 청년의 경우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거나 방학 내내 일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군 제대 후) 복학할 때 대출 받아서 복학하고, 그리고 그 한 학기 다니고 그 여름방학 때부터 또 백화점 들어가서 일 하고, 방학 동안에, 일을 해서, 근데 백화점 다니는 거, 방학 동안에 벌은 것만으론 등록금이 썩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내내 일한다(최태훈 사례). 그리고 번 돈으로 “일부 빼서 용돈 쓰고, 일부는 이제 저축해뒀다가 등록금 낼 때 보태서, 내고 했는데.... (그래서) 학업을 이어가기가 되게 힘들지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용돈을 버는 일은 최근만의 상황은 아니다. 예전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줄곧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우선 등록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으로 치솟았고,

생활 전반의 물가도 크게 올랐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에 달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빈곤계층의 경우 대학생들이 간헐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다면 학업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는 데 쏟아야 한다. 한 청년은 등록금을 위해 방학 때마다 돈을 벌어 왔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12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도 막 다른 애들처럼 바닷가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냥 그거 참고.. 개학하고 그냥 바닷가 간다고 치고.. 그냥 내일..부터 아님 내일 모레부터 그 정도부터 그냥 제가 거기 사장님 일했던 사장님한테 나간다고 일 나간다고 말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해가지고 또 <등록금마련.. 음>그때 한...한 백만 원..정도 백만 원 정도 벌 거 같아요. 거기서 한 팔 십은 보태고 이십은 또 제가 써야죠(이영준).

이와 같이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상당수가 주변적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중 일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업도 병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조사대상자들 중 몇몇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거의 쉬지 않고 해왔으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했다.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들이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우선 아르바이트는 이들의 빈곤한 경제적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 특히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유롭게 얼마간 쓰고 싶어 하는 용돈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청년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일정 정도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리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이 가족이나 학교생활로부터 느끼지 못하는 '자긍심' 을 경험하게 한다. 평탄하지 못한 가족관계나 일찌감치 학업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회의감에 가득 찬 학교생활을 일을 통해 보상을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다음에 살펴보듯이,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

## 2) 이른 사회경험과 존재감 인식

조사대상자 청년들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지만 그들이 일을 통해 터득하는 경험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몇몇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단면을 일찍 간파한다는 점이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고된 노동, 편법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당한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실 부당한 피해를 호소할만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일부는 편법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나 겪을 일들을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 하에 학업에만 열중하고 대학입시와 취업에 몰두할 때, 그래서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도 사회경험을 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빈곤청년들은 10대 때부터 이미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혹은 이미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왔을 정도로 부모나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빈곤 청년들이 자신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제적 독립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보람과 자존감, 자긍심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학생으로서 응당 해야 하는 성적관리나 학교생활에 적응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 을 획득한다. 한 청년응답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노동에 대한 의미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었다.

저는 되게 돈을 벌기위해서 일하는 스타일은 안 좋아해요. 굉장히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다고 따지면 나는 거의 시간당 만원어치정도 받을 만큼 그렇게 일을 할려고 노력해요. 사장님이 그렇게 못 챙겨줄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남들은 그래서 미친 듯이 일해 봤자 어차피 정해진 시급밖에 못 받을 텐데 라고 일을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꼴불견이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딴 데 가서 일하라고 저는 굉장히 같이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라면 그냥 뭐 어디 가서 대충 술먹어주고 술 따르고 뭐 하면서 충분히 불법적으로 돈 버는 방법도 많은데 굳이 왜 그런 곳에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긍심.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김현중).

위의 구술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이 청년은 일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실함,

책임감, 즐거움,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교생활에서 갖지 못했던 노동의 덕목들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동력으로도 작용한다. 그는 현재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미래전망도 갖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바텐더 일을 해왔는데 바텐더가 가수나 연예인보다 훨씬 더 매력 있고 즐겁다고 말한다. 이 경우는 다른 조사대상자들에 비해 좀 더 이른 성인기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릴 때 ‘사고’ 도 많이 쳤다는 한 청년은 현재 대학등록금을 자신이 직접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한 주변의 반응으로부터 ‘보람’ 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냥 동네 사람들보면 제가 대학교를 안 갈 줄 알았던 거죠. 친한 친구들은 알고 있었는데 가면은 별로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 돈으로 갔고...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몇몇 안 되잖아요. 다 자기가 써서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근데 그걸 아, 또 아버지께서..아들..제가 막..제 돈으로 대학교 갔다고 그리고 자랑하실 때가. 보람 느꼈죠. <뿌듯했어요? 그게>그렇죠.<그 부모님의 자랑>네.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가 좀.. 표현하시는 게 서투르고요. 때리는 걸로는 장난으로 때리는 걸 근데.. 어른들한테 들어가지고 또.. 아버지 아는 분들은 다 아니까 그냥 아빠가 칭찬하는 대학교 네 돈으로 갔다고 아버지가 완전 자랑하시고 다녀 막 이런.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냥(이영준).

위의 구술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 긍지, ‘뿌듯함’ 을 느낀다.

이처럼 학교생활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과 보람을 빈곤 청년들은 일을 통해 경험한다. 조사대상자들 중 마지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내몰려 일을 하더라도 노동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만의 성인됨을 준비하거나 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임금을 부모에게 지출하거나 학비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빈곤청년들은 청소년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시장에 반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로써 학업보다는 생계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은 학업 대신에 일을 통해서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이행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때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움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학비와 용돈을 벌기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중산층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빈곤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기에 겪는 노동의 고통, 즐거움이나 보람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 3. 제도적 배제와 교육제도의 이중성

#### 1) 제도적 방치와 개인적 전략

조사대상자들 중 대부분의 청년들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부는 취업을 했고, 일부는 대학(주로 2년제)에 진학한 상태이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듯이, 이들 청년들이 학교로부터 획득한 교육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회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교육자본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교육에 대한 부적응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학업부분에서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응답자는 학교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외적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는 학교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중학교 때 시간표는 학교 가서 수업시간에는 공부안하고, 떠들고, 잠자고 이런 거랑 쉬는 시간에는 끝나고는 친구들이랑 놀고 제가 봤을 때 중학교 때는 거의 학교 끝나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끝나고 농구하고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와서 애들이랑 놀다가 날씨가 선선해지고 괜찮으면 또 운동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김우현).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청년은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퇴했다. 운동선수로서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나 부모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한국사회의 교육이

여전히 획일화되어 있고 대학진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공부에 대한 부적응은 곧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청소년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배제 혹은 방치는 이들이 제도교육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

공고는 좀, 양아치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날라리 애들, 막 그런 애들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욕 대놓고 그냥 욕 하고 그냥 대놓고 다 교실에서 담배피고,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건 때리고, 그랬어요(이영준).

이 같은 학교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거나 계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학업을 포기한 몇몇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거나 또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또한 학교를 통해서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만큼 학생들이 대학진공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와 진학상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사대상자들 중 많은 청년들이 진학상담이나 학업과정에 대해 논의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 과정에서도 혼자 알아보거나 “거의 그런 고민은 어머니하고만 계속 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정보교환을 통해서 진학정보를 알았을 뿐이다. 반대로 학교 교사의 태도는 “방목형”이었다.

3학년 땀 (선생님이) 약간 방목형 스타일이었어요. 못하나? 쫓,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고, 찾아오면 해주겠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찾았어요, 학교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넌 어느 학교 가니? 난 어느 학교 간다고 그래? 어, 그래?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가, 들어와서 한번 학교 검색해보고, 아, 컴퓨터학과 있네? 나중에 한번 넣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봤던 것이거든요? ...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이렇게 어? 그런 학교도 있네? 검색해보니까, 여기 컴퓨터학과 있구나. 여기 성적보니까 대충 작년 것이 나랑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몇 개 넣어보고, 그러다보니까 딱 거기 하나 돼 있더라고요(조승구).

학생의 진학과정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사대상 청년들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교사와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고등학교 선생님 <상담하고 이런 거> 남자선생님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제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짝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4용지 한 장 주면서 학교 명단 써주고, 서울시 어디랑 써주는, 그니까 주소만 써주고 저보고 찾아보래요. 무슨 과가 있는지. 그래서 가고 싶은데 있으면서 거기다 써서 자기한테 달래요. 언제까지, 제가 안 썼거든요? 선생님이 너 대학 안 갈 거냐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그, 그래서 늦게 냈다고 맞고, 혼나고 그러다가. 그 정하고, 정하고 해가지고 ○○(대학명) 수시로 넣고 제가. 딱히 선생님이 뭐, 그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 상담해주는 거 별로...<그래?> 그냥 뭐...(진영택).

이들은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부모와 논의하는데 그치거나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혹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본인 뜻대로 알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공고나 상고를 졸업한 청년들은 전공을 토대로 취업한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한 청년은 공고를 다니면서 ‘워드 2급, 컴활 3급, 전산회계 3급, 글, 펜글씨,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운용기능사. 그리고 ITQ’ 등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취업은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시트 만드는 회사에서 컨베이어벨트 라인’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최태훈 사례). 그리고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공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두거나 전과를 생각하거나 편입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거의 생업을 위해서나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들 중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등학교로부터 학업이나 진학의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들은 학교라는 제도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사적 연결망을 통해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사적 연결망의 도움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고나 상고를 다녔던 청년들 중에 학교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강압이나 권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이다. 한 청년은 “인문계로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랑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를, 내가 뭐 손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 실업계다.. 무조건 실업계 가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무조건 전문계를 반대를 하고 인문계로...학업선택에 큰 부담이었다” 고 말한다(김현중 사례). 그리고 그에

따르면 “그 사람들(아버지와 친인척들)이 볼 때 그냥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넌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이 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자신을 어디까지인지 알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스타일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좀 서럽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하지만 되게 현실성 있게 ‘내 주제가 어느 정도다’ 막말로 내 주제는 이런 주제야. 그런데 주위에서 너무 띄워버리면 부담감밖에 안 들어요. 원래 하던 만큼도 안 돼버리기 때문에 가서 괜히 주눅 들고, 적응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도 없고……(김현중).

이 사례의 주인공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자 했지만 부모의 강압에 가까운 만류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진학에 관심을 가져주거나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 기술을 배우려는 선택을 했지만 이마저도 부모와 친인척들의 권유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적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바텐더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강한 자긍심을 갖고 현재에도 바텐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학교나 가정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모색한 경우로서 매우 이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 중 청년들이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와 꿈을 갖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개인사업, 바리스타, 공방운영, 상담사 등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학교교육과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뒤늦게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진학하여 대학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청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사대상자들은 학교보다는 자신의 실제 사회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모색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로부터의 방치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스스로 앞으로의 삶을 모색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학교에 대한 부적응을 문제 삼기 이전에 교육제도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를 어떻게 교육기관이 풀어나가야 하는지, 청년들의 대학진학이나 취업문제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가 청년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특기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적응이 '일탈'로 규정되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교육기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 2) 대학교육의 이중적 의미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학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사회적 인정, 취업, 인맥, 문화적 소양 등 대학을 통해서 쌓는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청년들은 좀 더 나은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성인기 이행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공간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아정체성, 자신의 미래, 세계관, 가치관 등을 좀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 중 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이러한 의미를 거의 찾지 못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대학생생활에 있어서도 쉽게 적응하거나 대학문화를 흡수하지 못했다. 한 청년은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한 학기만에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현재 휴학 중이며, 또 다른 청년은 대학수업 자체에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대학을 자퇴했다.

막상 전, 전문대잖아요. 2년인데, 1년은 무슨 디자이너의 자세 배우면서 기계 만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2학년 때 기계를 만지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학교에서 기초적인 실습만 알려주고, 2학기 때는 무슨 이거랑 연계된 학교에서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실무를 배워보래요. 그럼 솔직히 학교 기계를 만져볼 시간이 없잖아요.... 돈을 이저저저 해서 380만원인가를 딱 냈는데, 아 진짜 막상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기계는 맨 날 구경만 하고. 진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목공방에서 진짜 몇 개월 배웠지만 기계도 만져보고 해가지고.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학교는 그만 두고... 이런 느낌이랑 이런 대우 받으면서, 아니 뭐 380만원까지 주고 여길 다니냐고. 그래서 안 다닌다고 하고 엄마한테 잘 설명하고. 1학년 1학기 끝나기 전부터 제가 학교를 안 나갔거든요? 딱 한 과목 빼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진영택).

이처럼 조사대상자 청년들 중 몇몇은 대학교육 자체에 큰 불신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비싼 등록금을 내도 그에 응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청년은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등록금이 너무 막 쓸데없이 비싼 거 같아요. 솔직히 배우면서 항상 애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아 배우는 건 별로 없는데 등록금 그래도 그 정도로 얻어먹어 놓고서는 수업 이판 식으로 하냐고... 책이 이만오천 원인데 배우는 거는 오천(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 나 혼자 저 책 사가지고 혼자 공부해도 이 정도는 하겠더라는 생각.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수급자이기 (잘 안 들림) 혜택 받는 게 등록금에서 거의 없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내놓는데 내라고 하니깐 너무 부담이 가요, 저는 솔직히(이진희).

이처럼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매우 실망하거나 불신함으로써, 이들은 대학을 자퇴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청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부터 지식적인 부분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성인기 이행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청년들이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데 원인이 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되도록 빨리 취업을 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틀을 갖추려고 하지만 대학은 이들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위기계층 대학생들은 대학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돈 문제 제외하면, 일단, 시간관리하는 게 좀 골치를 썩었었어요. 아 이것도 어차피 돈 문제인데, 남들은 학원 다니면서 이제 뭐 토익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전 그런 걸 못 하니깐. 그것도 그랬고. 마땅히, 뭐 학원을 다닌다 해도 기초가 부족하니깐, 아예 배우던 게 다르니까, 저는 거의 뭐 걸음마 수준부터 시작을 해야되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되게, 뭐, 그가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뭐 거칠 거 없이 막, 그렇게 지내다보니까 대학교에서, 학번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좀 답답 했었구요.... 학업문제, 뭐 서열문제.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자기 계

발문제. 뭐 대학생들이 보통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죠. 지금도, 그게 어렵긴 하지만...(최태훈).

위의 구술내용처럼, 빈곤한 청년들은 등록금이나 용돈 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아르바이트나 일에 매달려야 한다. 그만큼 대학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취업에 있어서 ‘스펙’이 강조되고,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취업시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 중 몇몇은 대학에서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자본을 쌓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대의 경우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선후배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이년제다 보니까 전 후배는 없죠?... 솔직히 처음엔 약간의 설렘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 대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어쩌다 얻어걸려서 간거다 보니까, 그냥 뭐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당시엔. 그냥, 그냥저냥 가고, 그냥, 길도 인터넷에 있던 거 보고 가고. 그래서 그런지, 딱히 갔을 때도 이렇게 막, 대학이라고는 하는데 옆에 이렇게 고등학교랑 같이 엮여 있는 곳이라 그런지, 평소 고등학교 때랑 느낌이 큰, 다른 느낌도 안보였고, 그냥 고등학교랑 비슷하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그런 로망도 그때 없더라고요(조승구).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이라는 공간은 여러 차원에서 성인기 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학재학 중인 청년들 대부분이 이 같은 경험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에 대한 별다른 준비 없이 진학한데다가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히 선후배나 동기들 간의 상호작용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재학 중인 청년들 중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를 인식하는 청년들도 일부 존재했다. 그래서 조사대상자들 중 몇 명은 좀 더 나은 대학으로 재진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학을 불가피하게 자퇴한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최근 다니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상담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은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는 그냥...뭐 굳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적당한 때에...음.. 시집 가고, 뭐 이렇게...얘기하시고...뭐 굳이 돈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 어...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좀 처절하게 살아봐서 그런지요, 이...가난이라는 것에 대물림은요, 다시 말하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배우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의 한계가 있고,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한계가 또 있더라는 얘기구요.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소득의 차이가... 더 뭐 많이 벌 수 있느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운 부모님의 자녀일수록 가르치는 생각이나 눈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저도 좀 그런 거는 제 대에서 좀 끊고 싶어요. 그래서...학자금 대출이 됐건 뭐하건...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래서 더 있는 것도 있어요. 네...(유지혜).

이 청년의 말대로 대학은 사회이동에 큰 영향을 준다. 빈곤을 탈피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훗날 자녀교육에까지 많은 부분이 연동되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들은 성인기 이행에서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며,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성인기 이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는 이 청년은 대학 졸업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나은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청년들과는 상반된 사례로 4년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 조사대상자는 대학교육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했다.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청년만 하더라도 2년제 대학이나 고졸 청년들에 비해 대학생활에 훨씬 친척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이문구사례). 그는 ‘광고카피라이터’ 라는 직업을 일찍이 꿈꾸면서 국문과에 진학했는데,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한 문학적 소양과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 청년은 청년 조사대상자들 중 그나마 집안 환경이 좀 더 나은 편이며,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그렇지만 그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수시로 해왔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대부분 자신을 위해 쓰기도 했지만, 대학진학 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뚜렷한 자기인식과 삶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대학교육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학생활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가 더욱 확고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대학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점은 그가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아정체성, 세계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대학은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과 반대로 대학교육은 사회생활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대학교육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즉, 성인기 이행에 대학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거나 등록금만 쏟아 붓는 곳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특히 전문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대학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들은 대학보다는 다른 사회경험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을 거치고 있었다. 또래집단과의 소통이나 아르바이트 등 대학 밖에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대학은 그저 간판에 불과하거나 사회진출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대학교육에 대해 갖는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대학교육이 무가치하고 불필요함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좀 더 올바른 사회관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취업과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4. 복지(관)와 삶의 전략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학교나 학원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교육적 자원을 획득한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정 정도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교라는 제도적 틀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한 청년들과 경제적 빈곤이나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조사대상자들 중 서울시 마포구와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중학교 때부터 이용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공부방은 학교와 학원을 대체하는 가장 큰 교육기관이었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청년들은 이곳에서 각종 자격증도 많이 획득하고, 경제적 지원도 받고, 사회복지사들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았으며, 자존감도 크게 향상됐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획득했고, 생활에 재미를 느꼈으며, 삶의 계획과 꿈들이 생겼다. 중학교

2학년 진학부터 공부방을 다닌 한 청년응답자는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고 구술한다.

제가 낮가림이 은근히 심한, 낮가림이라기보다는 좀 소심해요, 소극적이예요...막 말도 잘 못하겠고, 수업을 하는데....이게, 말을 잘 못걸, 제가 먼저 말 거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말을 못 걸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다니다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친해졌구요. 그때 배웠던 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일주일에 한 과목씩 그러니까 총 삼일동안 했었구요, 그래가지고, 그, 그 흥대, 흥대 동아리래요.... 거기 동아리에서. 봉사활동 같은 느낌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 가르쳐주는 느낌이었던거예요? 근데 꽤 괜찮았어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했지만, 좀 다니다 보면 친하잖아요. 아무래도 공부방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네 명? 다섯 명?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생님들이랑 좀 지내다보면 아무래도 친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학원선생님 분위기가 좀 있을, 좀 이렇게 다가가기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말 걸기도 그렇고. 근데 막, 선생님이니까 말고 걸기 쉽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랬고. 그리고 시험기간에, 제가 원래 좀 잘 못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만약에 시험기간쯤 되면 시험과 관련 되가지고 이런 쪽 해주시고.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조승구).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부방은 인성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적극성을 떨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위 사례의 청년은 학교나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공부방을 통해 실행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은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여가나 문화생활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 청년은 공부 외에도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모임, MT 등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는 공부방 생활을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환점”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부방으로 인해서, 막, 그. 공부 그쪽 도움된 거 있고요, 그 복지관, 저희 그 가정 자체가 문화활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복지관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자리 이렇게 주선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문화활동도 하러 가고. 복지관에서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모임 같은 거 하다가, 뭐 MT라든가, MT 이런 것도 해주면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선 되게 큰 변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쌓이다 보

면. 그냥, 복지관 안 갔으면은 00(친구이름)이도 몰랐을 테고, 어쩌다보니까 고등학교는 같아졌지만, 과는 틀리니까 같이 다녔을 가능성은 진짜 드물고요. 막 또, 활동도, 야외활동도, 활동, 문화활동도 많이 적어졌을 테고...(조승구).

그리고 청소년자활지원관(청자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공부방을 이용한 한 청년은 학교수업이 끝나면 매일 공부방에 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았다’ 고 진술한다. 무엇보다도 공부방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쫓,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쫓 애들이 쫓 판 데로 새 짱아요, 나쁜 쪽, 나쁜 쪽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청자활이나 공부방이 되게 고마, 아직까지도 고마운 게, 맨날 그러다보니까 내일은 뭐 하고 뭐 할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학교는 재미없었거든요. 학교는 그냥 뭐 학생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솔직히 여기 청자활은 오고, 오고 가고는 자기 자유잖아요. 근데 그래서 청자활에서 이제 뭐 만드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그 이후로, 혼자 집에서 도 작업하고(진영택).

이 청년은 학교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무료하게 보낸 반면, 청소년자활지원관 공부방을 통해 재미를 찾고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다. 그는 “솔직히 제 경험,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학교 그렇게, 초등학교 6년, 3년....그 거 다닌 것 보다는 그냥 청자활 다닌 게 더 이익이었고” “솔직히, 그게 더 좋은 경험이었고, 더 많은 경험을 해봤다” 고 말한다. 특히 그는 청소년자활지원관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존재감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정말 좋은 건 이제, 인상 깊은 건 또 여러 개, 많이 있지만...이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목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깐, 여기 가끔 노원에서 쟁이장이라고 여기 청자활 관련된 친구들이 회사를 열거든요. 그 때 친구들이랑 만든, 만든 물품도 걷고 막 이럴 때 제가... 그때서 이제, 이제 좀 솔직히 전에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쫓 느낀 게...아 나도 쓸모 있는, 왜냐하며는 제가, 그 때 행사 도우미로 거기 세팅된 테이블을 다 조립하고 다 이제행사 마감할 때 이제 다 풀고 옮기고 하고, 또 그렇게 존재감 막 느낀 것도 있고 이제...또 쫓,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건진 모르겠는

데 그뎨 별로 있으나 마나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쯤, 저를 이제 쯤 한 사람으로 봐야한다 해야 되나? 이렇게 쯤...존중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이제 그것도, 그런 선생님들이랑 서로 의지해서, 서로 돈 벌고 해가지고 일본도 갔다 온 것도 인상 깊고……(진영택).

위의 구술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로부터 배제되거나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이탈한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존중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재감을 획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부방이라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킨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이들이 성인기 이행에서 필요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부방 경험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기도 하며,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주로 이들 청년들은 역할모델을 “복지사 선생님”으로 꼽았고, 직업도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모든 청년들에게 공부방이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공부방이 빈곤계층 청년들에게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몇 가지 점들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부방 사업은 빈곤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자활지원관에만 한정시켜 볼 때 서울에만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노원구, 성북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빈곤가정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사업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겠지만,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라도 올바른 사회관을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4 장

---

#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

1. 울퉁불퉁한 성인기
2. 제한적 사회적 자본과 기회
3. 경제적 독립과 노동경험



## 제 4 장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교육종료, 집중적인 훈련, 평생 일자리 탐색을 통하여 근로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평생소득을 결정하는 단계(이병희 외, 2010. p. 29)’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가의 여부는 과거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축적되어 온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근로 생애 시작 시기에 경험하는 미취업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청년들에게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최초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좋은 일자리의 획득 여부가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병희, 2003, 이병희 외, 2010, 이시균, 2010), 청년들이 어떠한 경험과 조건 속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인기 이행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계층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약위계층의 청년들은 다소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 출신의 청년들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 청년들이 최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후 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분포하지만, 주로 이들이 ‘알바’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장소는 대부분 서비스업종으로서, 식당,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이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소득이다(이경상 외, 2008). 따라서 빈곤계층인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다른 계층의 청년들보다 더 빠른 시기에 청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진입하게 되는 청년노동시장은 성인노동시장에 비하여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저임금, 나이차별 등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이행 후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일반적인 경로를 밟게 되기보다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학교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노동이라는 것도 안정적인 형태의 노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즉,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이는 다시 학교를 중퇴하거나 상급학교(대학)로 진학하지 못하게 되고, 이들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인기로의 이행은 다른 형태 즉, 평탄하거나 일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울퉁불퉁한’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별로 분류한 후, 이러한 어려움이 이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 취약위계층 청년의 노동관련 경험의 개념 및 유형화

하위 개념	유형화 I	유형화 II
전단지 아르바이트, 생계형 아르바이트 또래집단과의 교류	선취된 성인기	울퉁불퉁한 성인기
노동으로 인한 학업 포기 저임금 노동, 차별 부모의 학업 지원 부재	이중 구속	
성인기로의 준비기간 부재 삶을 계획하고 지켜볼 경제 조건 부재	유예 없는 미래, 저당 잡힌 미래	
기회 준비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 부재 희망이나 이를 구체화할 정보 부재	연약한 기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유지하기 위한 미등록 임시직 노동 저연령과 저학력으로 인한 차별적인 노동환경 노동가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발생	존재하지 않는 유령노동	

## 1. 울퉁불퉁한 성인기

### 1) 선취된 성인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청소년 노동의 증가는 노동빈곤의 심화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축소와 기존 가족관계의 해체 등은 청소년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배경내,

2009. p. 6).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린 경우 전단지 돌리기로 최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지만, 차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식점 서빙이나 배달, 편의점 점원 등의 노동으로 옮겨가는데(이경상 외, 2007), 이번에 조사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에 나서게 된다.

친구가 전단지 알바 한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알바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때 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냥 돈 벌고 싶어서...돈 그냥, 그냥 돈 벌고 싶,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었어요(박혜영)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들 청년들은 비교적 어린나이부터 아르바이트에 쉽게 접근하게 되며, 주된 동기는 용돈, 즉 경제적인 문제이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작 시점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돈이 완전히 최고’ 이거나 ‘돈이 목적’ 이었던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며, ‘친구도 있고, 수다도 떨면서’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중산층 가정의 청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택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친구와 어울리고, 최초 청소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주변의 친구들의 소개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라서 아르바이트 업종도 이들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노동에 대한 경험은 학창시절의 한 순간의 아름다운 경험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거쳐서 꾸준히 진행된다. 이것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친구들과의 사교 경험 여가의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친구와 함께해서 즐겁다, 함께 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이다,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일했다’ 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단순히 오래전 일에 대한 추억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노동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사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비록 이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노동을 시작하지만, 노동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친교와 생활의 중간적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처럼 생활과 친교의 중간적 위치에 서 있던 노동에 대한 관점은 점차 연령이 많아지고, 고학년이 될수록 친교보다는 생활의 관점에서 노동을 접하게 된다.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며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배달이나 식당 보조 등 혼자서 (최저임금 노동 중에서도) 그나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반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줘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그 짜라, 짜라는 배달하는 애가 있으면 배달하는 애 주변에 짜라하는 애가 있고, 애네가 이렇게 알려줘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이제 오토바이도 대놓고 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칠판, 쉬는 시간에 적어놔요, 그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그럼 개네는 알아오면은 좀 소개비를 줌 받긴 하나 봐요 얼마, 좀 몇 천 원씩(진영택).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적 입소문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던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의 경우 드러내놓고, 그것도 소개비를 받아가면서 매우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선생님들조차 이러한 일에 방관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은 비록 아르바이트 형태이기는 하지만, 성인기를 선취하여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니가 생활이 어렵다고 생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구했어요. 찾다보니까 없어서 거기 하나가 나와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면접보고(김희영).

이처럼 용돈벌이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 청년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목록으로 등장한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학비를 벌거나 일반 생활비를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노동이 더 이상 단순한 경험이나 용돈벌이가 아니라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집안 살림살이를 나누어 운영하는 주체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가족역할 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가족 내에서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역할을 맡게 되고 이들은 노동의 경험을 통해 성인기를 선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정환경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요구가 되고, 쉽게 이러한 요구에 적응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성인의 역할을 일부 받아들이게 된다. 즉, 조금씩,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중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 2) 이중 구속

이들이 미리 경험한 성인기는 이중삼중의 고난으로 표현된다. 먼저, 이들이 경험하는 청소년 노동은 차별적 노동환경과 낮은 시급으로 대표된다.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학력 차별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연령차별 등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의 경험인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노동을 통하여 성인기를 다소 일찍 경험하기 때문에, 학업을 동시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든 조건이 된다. 주말마다, 혹은 평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노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과도 같이 되어버리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갈수록 사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친구들 혹은 자신 혼자라는 외로움이 생기고, 이와 더불어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이들에게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처럼 이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삶에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이들은 실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달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열두 시간 해봤어요...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까지 (하루에) 열 두 시간 했어요. 그 이후로 알바라는 걸 너무 몸을 힘들게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정유미).

나이가 어리고, 존재조건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또한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집안에서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으며, 단지 ‘사람이 되어라’ 는 식의 이야기만 간간히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학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안에서는 학용품이나 책값, 수업료 등의 극히 제한적인 형태의 도움만을 주었을 뿐, 다른 어떤 방식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학업에 대한 간섭이나 훈계도 그것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들 스스로가 이미 많은 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이 청소년 노동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방식의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나, 어찌면 이미 이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기회자체가 봉쇄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아르바이트는 그 자체로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 자체 즉, 경제적 환경과 부모의 무관심 혹은 다른

방식의 관심 예를 들어, ‘사람이 되라’ 는 식의 인격 수양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식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에 이른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든 것만은 사실이다. 이들 청년들은 이러한 청소년 노동을 거쳐서 청년기로 이행한 지금에도 좋은 일자리보다는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다닐 때는 여섯시부터 열 한시까지 하고 <보통> 네 그리고 방학 때는 아홉시, 아침 아홉시부터 밤 열한시까지...네 꾸준히 했어요. 일주일에, 막 일주일에 세 번 나가는 날도 있고, 주말에만 나가는 날도 있고 그래서(박혜영).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현재 곧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위 사례의 청년은 자격증을 따고 난 후의 계획은 공부가 아니라, ‘알바’ 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이중적 역할이 청소년시기부터 청년시기까지(대학생인 경우) 끊임없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기 힘든 여건 속에 이들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어 왔던 것이며, 불행히도 이것은 현재진행형이다.

### 3) 유예 없는 미래, 저당 잡힌 미래

발현 성인기이론에 따르면, 고도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함에 있어서 성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취약위기 계층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충분한 형태의 미래에 대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청소년시기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그 속에서 학업에 대해 투자할 시간을 갖을 여유가 없었다. 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시절이 학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로 다가왔다면, 대학은 학문성취의 장이 아니라 더 열려진 아르바이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고, 학교수업 시간 이외에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이전의 시급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아르바이트 시장’ 으로의 접근성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 시 부터 열 한 시 옯을 거예요...한 4-5일은 했던 거 같아요. 평일, 주말 꺼가지고 (조승구).

이와 같은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방학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방학이 다른 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이고, 영어공부 등을 통해서 이른바 ‘스펙’ 을 확장할 시기이며, 혹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반면, 이들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을 진학한 경우에는 비록 소박하더라도 자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려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대폭 제한된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비록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오히려 그 꿈을 잠시 덮어두거나 혹은 자기와는 별개의 일로 치부하면서 불안정한 성인노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저는 유학가고 싶거든요. 대학보다는 유학가고 싶어서. 지금 앞으로는 3년간은 말 그대로 동생이랑 집안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제 꿈보다는, 그래야 제가 나중에 가족들한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김순애).

미용사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 가고자 한다는 위 사례의 청년은 집안을 위해서 3년간의 미래를 저당 잡힌 상태가 되어 버린다. 실제로 3년 이후에 프랑스로 미용유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적어도 3년 뒤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준비나 어학실력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을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인 것이다.

적어도 노동시장에서 만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급작스러운 이행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다른 중산층의 가정의 청년들처럼 한 번도 제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학을 위해 어학원을 다닌다거나,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계획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단지 일부 노출된 정보나 기회조차도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친교나 우연한 기회로 주어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보의 제공과 그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경우 '추정소득부과지침'에 근거하여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소득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취약위계층이 근본적으로 삶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발현적 성인기의 등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구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반드시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요구된다. 에릭슨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채로 즉,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다른 역할을 제대로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성인기로 급격하게 이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이 성인기로의 삶을 유예하고 자신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을 위하여 '디딤돌 일자리참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취업에 국한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업은 성인기로의 이행을 유예시키고 이들에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급작스럽게 성인기로 이행한 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강요하는 선택지일 뿐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자의 급여를 낮추는 비현실적인 추정소득 부과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들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에 충분히 자기 검증을 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연약한 기회 - 한 번 뿐인 그러나 부서지고 있는 기회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취약위계층의 사회적 경쟁력에도 급속한 변화를 주어 이들의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두 번은 고사하고라도 단 한 번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들 청년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생활과 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들 중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동력의 상당부분은 꿈과 그것의 실현가능성이다. 즉, 이들이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꿈, 혹은 희망이다. 이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단순히 거쳐 가는 것, 현재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삶은 다른 곳에 있다. 평일에 청소년 자활관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의 경우 ‘드라마작가’가 본인의 꿈이다.

스무 살 될 때까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에 꿈이 생겼어요. 드라마 작가. 제가 중학교 때도 소설을 썼는데 소설가라기보다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작가를 쳐보니까 드라마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랑 딱 맞는 거예요(김희영).

가수가 꿈인 청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임시로 하고 있는 일이며, 언젠가는 가수가 되어 원하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대에 꿈을 좇다가 30대가 되면 꿈을 포기하는 ‘유메오이 유형’이라고 불리는 프리터들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아마미야 가린, 2011, p. 43).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 역시 특별한 계기와 지원이 없다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희망과 꿈을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다른 것을 추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조건도 전혀 없다.

가수가 꿈인 청년은 한 달에 버는 돈의 대부분을 레슨비로 쏟아 붓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수로 데뷔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 외 다른 뚜렷한 삶의 대안이나 방법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드라마 작가가 꿈인 청년도 막연한 꿈만 있을 뿐, 그것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현재의 자유경쟁사회에서 한 번의 실패는 두 번 다시 도약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취약위기 계층의 청년들은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이다. 기회란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하나 뿐인 기회’일 뿐이다.

〈가수가 되겠다 뭘 해야겠다 꿈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친구들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애네가 되게 무기력해요. 아직은 스무살이니까. 군대 갈 때만 마냥 바라보죠.  
(나유근).

한편 구체적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다. 그 이유는 학창시절 부모나 친구, 아니면 주위의 선생님들 혹은 TV 등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잡아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 작가가

꿈인 청년의 경우, 드라마작가라는 직업을 우연히 접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가수지망생인 청년의 경우에는 가출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꿈이라고 생각한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의 경우 사회복지사라는 구체적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상당수는 지역자활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면서 갖게 되었던 꿈들이다. 반면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고 가정의 지원을 포함하여 여타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의 경우, 미래의 꿈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불확실한 꿈의 배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되어야 한다.

아직은 좀 엄두가 안나요. 뭔가를 계획을 세우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불확실해요, 수입도 적고, 1년 2년 일해도 빚 하나 갚기 힘들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한 게 있죠. (계획을)세운다고 내 맘대로 될까란 생각도 있고(박수정).

취약위기 계층 청년들이 다른 중산층 청년들보다 기회도 적고, 가정에서의 지원도 거의 없다. 따라서 미래를 유예시키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연마하고, 단련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처럼 기회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구상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특정한 조건 즉, 주위에 멘토가 될 사람들이나 최소한 정규교과과정을 마친 이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을 희망하게 하는 계기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다. 특히 대학을 진학한 경우에 이러한 꿈은 비록 취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뚜렷해진다.

따라서 꿈과 희망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정도 수준의 학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안정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은 한쪽은 집안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불명확한 꿈에 저당 잡힌 상태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속에서 이들은 한번 올 수도 있는 ‘기회’ 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성인기로 황급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 5) 존재하지 않는 노동 - 유명노동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행하는 노동,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명노동’ 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주로 이러한 개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미등록 노동자들이나, 여성들의 가사노동, 비정규직 노동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낮은 위계서열을 차지하는 노동층에 국한되어 종종 사용되던 개념이다.<sup>1)</sup>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노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지위 때문이라도 즉, 경제적 조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들은 ‘노동해 본적이 없는’ 노동의 경험이 전무한 이들로 남아 있다.

특히 이들 청년들이 과거에 종사했던 청소년 노동은 초저임 장시간 노동과 다양한 형태의 차별,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노동의 현장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배경내, 2009), 임금수준은 최저 수준이며, 노동인권의 최저 상태에 있으며, 하인과 다름없는 모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밑바닥 노동’ 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 역시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수한 위치에서 보이는 ‘노동의 보이지 않는 성격’ 을 포함하여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수급조건과 연결된다. 따라서 항상 이들에게는 세금신고가 누락된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른바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상태의 노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로 이들은 ‘현찰’ 거래 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 시절의 아르바이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혹시 일 하는데, 알바하는 데 선택기준이 있어요?〉 저요? 그거요. 통장으로 안 들어오거나 보험이 안 되는 일(정유미).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체납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하고 있는 이들의 존재조건, 즉 수급자, 어린 나이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항의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 때문에 그런 대우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었다. 가장 많은 것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항의하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린데다가 고용주는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친구와 항의한마디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나왔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1) 이들의 영어 번역인 'ghost worker'는 월급체계 내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즉, 부패시스템의 증거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는 ‘현존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흥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돈까스 배달하는 집이 불만족하는 편이에요. 그 집 사장이 제 돈을 떼먹었어요. 제가 부모님 모르게 일을 했잖아요. 돈을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알바를 해서 제 학원비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비를 내서 돈을 언제까지 주셔야 된다. 딱 학원비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안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했더니 너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다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언제요?> 면허 따고 바로였으니까 고2? 그때가 아버지를 최고로 무서워할 때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텐데 그래서 그냥 군말 없이 나왔죠(나유근).

청소년기에 비교할 때, 이들 청년들의 작업환경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단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전에 비해 확장되었다는 점과 이전에 비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의 조건 속에서 자신을 연소시키고 있었으며 불안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힘든 노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을 통해 이들이 과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는지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제한적인 사회적 자본과 기회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이들 청년들이 중고교 시절 비슷한 조건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의 도움이 얼마만큼 이들이 향후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청소년 자활관과 공부방을 중고등학교 시절 직간접적으로 이용했거나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 모지역의 피면접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방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방 선생님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울 다른 지역의 피면접자들 역시 청소년 자활지원관과 현재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이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먼저 공부방이나 청소년자활센터와 관계를 맺은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들은 이 속에서 관련 기관의 선생님들과 일정한 관계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대학을 진학한 경우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렵פות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을 보다 구체화하는 힘이 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직업적 전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복지관에서 공부방 좀 했었거든요. 그 때부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더 친해지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하고서 그때부터 사회 복지사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그냥 사회 복지사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정유미).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식교육을 통해서는 받지 못했던 주위의 관심과 주변 어른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긍심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런 기관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이 된다.

〈복지관에 다닌다고 하는 게 본인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제 삶에 있어선 되게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장난이 아닌 거죠.... 언제 이겨 끊겨질지 모르지만, 끊겨지기 전까지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가 이정도인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장난이 아닌 거죠(조승구).

반면 공부방이나 청소년자활관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들은 특정한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인간관계만이 개인이 경험한 최대의 인간관계였으며, 따라서 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종류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장래나 미래의 문제를 상담해주거나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대상도 매우 한정되며, 사회적으로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 더욱 더 심한 사회적 소외감을 안겨주거나, 혹은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형태로 나아가게 하였다. 따라서 더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해도 지역사회에 있는 공부방이나 청소년 자활지원관 등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매우 유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관은 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나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포기해 버린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인다.<sup>2)</sup>

또한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직업정보와 직업을 갖기 위한 방법 등을 현재 이들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설계해주고, 이를 위한 밀착적인 형태의 멘토링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모두 전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인 계획이나 예산 등의 큰 밑그림을 세워두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 밀착된 지역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비공식적 기관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경제적 독립과 노동경험

#### 1) 노동경험과 분리된 경제적 독립의 이중성

청년들이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역시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이들이 성인의 의미로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 했지만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격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이들이 현재의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것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한다기보다는 함께 살기위하여 생활비를 보조하는 역할, 혹은 스스로의 용돈을 마련하는 정도로 보인다. 물론 경제적 독립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만일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라는 의미로 생각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완전한 분리를 성인기 이행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식에서의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나 분기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의미로 작동한다. 그러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독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 분가한다는 것은

2) 그렇다면 '학교 등의 공간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의 연구에서는 차후의 문제로 미루고자 한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학업을 위해 잠시 분가하는 정도가 대부분일뿐, 사회적 불확실성과 개인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단선적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행을 넘어서 요요 이행(yo-yo transition)<sup>3)</sup>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독립과 분가는 결정적으로 연계되는 점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고실업이라는 사회적 현상속에서, ‘우리나라 분가의 패턴이 교육을 마친 후 취업, 결혼까지 마쳐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패턴’ (이병희 외, 2010, p. 203)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경제적 독립의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며,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성인기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하다.

성인이 됐으면 자기 혼자서 자기 앞가림이라든가,...그냥 나이만 성인이다. 나이만 스물이 넘었다고 해서 성인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한 능력,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경제적 까진, 자립까진 힘들더라도 최소한 집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될 정도는, 우선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잖아요?(조승구).

성인에 대한 자기 개념규정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내야지만 성인으로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었다(나유근 사례). 자기 앞가림을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데, 위 사례의 청년처럼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혼자서 독립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은 어떤 규정화되거나 정형화된 성인기에 대한 개념규정보다는 인격이나 성품 등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등 ‘자기 앞가림’, ‘인격’ 등의 내적 수양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내적 수양의 문제는 성인으로서의 자기 앞가림이라는 측면과 연결되는데,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 등의 희망사항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과 이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그것의 대체재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요? 포용력이라고 생각해요..능력적인 측면은 제가 말하긴 좀 그런 거 같아요(조승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현재의 노동조건이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을 시도할

3) 이에 대해서는 유럽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Du bois reymond & Blasco(2003)을 참조.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 또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적 환경의 불안과 더불어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둘러 독립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예를 들어 장래계획의 목표가 '빨리 집을 나가는 것' 이었던 한 조사대상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계부와의 불편함과 같은 가정환경문제로 어린 시절부터 항상 집을 나가고 싶어 했다. 이 청년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 혼자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른 경제적 독립을 한 사례이다.

경제적 독립에 있어서도 이들 취약위계 청년들은 다른 중산층보다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으며, 더 늦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안 환경, 경제적 조건(임대 아파트 유무), 본인의 소득이나 직업 등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산층 가정의 여타 청년에 비하여 무한정 독립을 유예하거나 미룰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중산층 청년에 비하여 분가 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 2) 불안한 홀로서기

인터뷰에서 만난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대 후반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분가하여 따로 독립하여 사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 것에서부터, 집안에서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독립을 해야 했던 사례까지 이들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공통적 인식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모습과 거주조건과 경제적 여건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독립을 했다고는 하나 불안정한 독립의 형태였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모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는 싫어서 못 들어가고, 집을 나온 거잖아요. 집이 없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반이 없으니까 사회에서 뭔가 힘들거나 조금만 좌절해도 너무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게 없더라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월세내가지고 나는 언제 전세 옮기고 언제 집 사나 되게 먼 얘기(박수정).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 달에 1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독립은 불안정한 자신의 삶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이다. 이 속에서 사회에 대하여

이들이 갖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돌아보게 만들고 이와 함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위 사례의 청년과 동일한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택배, 마트, 소규모 공장 등에서 일하며 한 달에 약 200여 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독립하여 살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은 이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김우현사례). 그런 차이는 성별의 차이와 소득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집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그리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미래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여유는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 그 정도 여유만 되면 저는 일을 안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러 다닐려구요(김광훈).

위 사례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삶에 대한 나름의 계획과 생계문제나 집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본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회가 자신이 성인이 되는데 어떠한 도움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오히려 방애나 장애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의 어려운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을 영위하면서도 ‘홀로서기’를 해야만 하는 이들의 경우에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심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극도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저학력 청년층일수록 더 심한 경향을 보였다. 비록 대학교육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학원에서 일하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은 대학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삶의 전망(복지상담)을 밝히고 살아갈 것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은 막 돈을 막 크게 벌고 막 이런 직업을, 큰 욕심은 없구요...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직업을 떠나서 강 스스로가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거에 되게 초점이 다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담 쪽을 하게 될 것 같아요(유지혜).

비록 동일한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불안한 홀로서기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학력자본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고, 경제력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보면, 저학력 취약위계층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이러한 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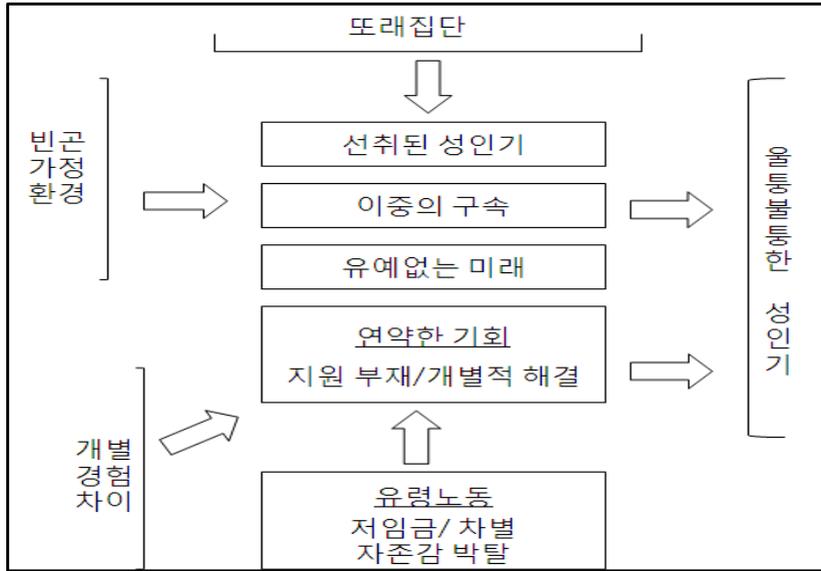
대한 요구가 좀 더 요청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졸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2011년 10월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이 대학교육으로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거나 유예하면서 추가적인 준비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대학교육을 받았는가의 유무만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이행을 할 것이라고 쉽게 기대할 수는 없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 그리고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기는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독립의 의미나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 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이 청년노동을 대표하는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돕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민간 인력파견업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비 상당 부분이 민간업체로 들어가고 있으며 대부분 월평균 수입 120만원의 저임금 일자리에 6개월 취업유지율이 54.4%인 점 등을 고려하면<sup>4)</sup>, 맞춤형 취업훈련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해도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한 조사에서는 청년 1인당 부채액이 1,000만원이라고 조사<sup>5)</sup>되는 등 불안정한 홀로서기가 강요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나 장기적인 취업교육, 청년층 창업지원 등은 그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문제와 사회적 경쟁의 문제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경향신문, 2011년 9월 28일.

5) 청년유니온과 함께 일하는 재단은 청년 근로자의 경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8월 서울 지역 15~34세 비정규직 근로자나 취업준비생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 중 취업자는 79.7%, 실업자는 6.0%, 비경제활동인구는 14.3%였다. 하지만 취업자 중에는 계약직이 31.1%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29.9%, 호출·용역 근로 등 비정규직 12.4%였다. 정규직은 19.1%에 불과했다.



【그림 IV-1】 취약위גיע층 청년 노동경험 성인기 이행 개요



## 제 5 장

---

#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

1. 자아정체성 형성 경험과 인정
2. 제한적인 성인기 이행
3. 사회적 배제와 차별
4. 성인기 이행과 사회적 지원



## 제 5 장

#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주체철학 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주체의 개념을 대화적인, 양방향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하나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개인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주체의 개념위에 올려놓게 되며, 상호주관성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는다(McNay, 2008, p. 61). 헤겔철학 전통을 계승한 호네프에게서 더욱 더 정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이라는 측면과 연결되어 고민할 때, 더욱 더 정교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네프는 3가지 인정역역의 구별의 결과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였는데, 사랑, 업적, 권리의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의 발달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상호인정관계는 애정에 근거한 관계, 즉 감정적 유대이다. 이러한 유대가 형성되는 가장 일차원적인 장소는 가족이며, 이를 확장하면 1차적 관계가 지속되는 공동체나 또래집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업적의 원리가 관철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회사와 같은 결사체인데, 인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적 가치부여’의 형태로 표현된다. 즉 구체적 개인은 사회적 목표를 자기실현을 통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호네프, 1996, p. 216). 따라서 특정 사회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취약위גיע층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 구체적 개인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추상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사회적 생활수준을 유지’(호네프, 1996, p. 203)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체는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존중감과 주체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취약위גיע층은 이러한 인식 자체가 다른 경로를 밟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장소와 공간에서 인정의 원칙과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취약위גיע층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기에 대한 인식과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과 원칙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온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각각의 공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 이들 주체가 향후 어떤 경로를 밟게 되고,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청년들이 각기 다른 사회적 인식과 성인기 인식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사회적 성원으로 정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개입의 내용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정체성형성과 사회인식의 개념 및 유형화

하위 개념	유형화 I	유형화 II
짚은 대화 가정폭력 부모님의 칭찬	가정에서의 애정과 유대감	부정적 자기정체성 VS 긍정적 자기정체성
선생님과의 관계 왕따 경험 비슷한 또래집단과의 교류	사회에서의 가치인정	
평등한 기회제공에 대한 인식	평등한 권리	
취약한 경제적 조건 시간적 여유의 부재 정보의 부재(사회적 자본의 부재)	불투명한 미래와 제한적 정보	제한적인 성인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의 유지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지원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군대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 남성적 군대문화에 대한 무비판 유예기로서의 군대	성인기로의 통과의례 : 남자는 군대	남성성과 성인기

## 1. 자아정체성 형성 경험과 인정

### 1) 가족 - 애정의 경험

앞선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들의 가족 내에서의 부모와의 경험은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나 폭행으로 점철되거나, 좋았던 기억은 매우 제한적이다. 애정에 근거한 유대관계가 가족 내에서 형성되지 않으면서 이들 청년의 자기관계는 원천적으로 부정된다.

제가 아버지한테 맞지 않고 정말 잘 자랐다면 다른 애들처럼 제가 그런 걸 몰랐을 거예요. 빨리 철들지 않았을 거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때리고 생활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 저도 알바를 경험해서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김희영).

하지만 반면 그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대학등록금을 ‘할머니 병원비로 날려버려서’ 대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례에서처럼 일찍 철이 들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성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 다른 한편, 가족 내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을 한 사례도 찾을 수 있다.

고양이가 온 후부터 가족이 진짜 많이 웃고 서로 막 대화 많이 했거든요. 집에 오면... 여기 앉아봐, 애가 어쨌는데 막 이러면서 동생도 누나 여기 앉아봐(이진희).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취약위계층의 청년이 감정적 유대를 쌓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 내에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위 사례의 청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문대에 수시로 합격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엄마가 힘들게 결정해서 학원을 보냈고, 재밌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엄마는 되게 좋아

하셨고, 고2때 제2외국어 일본어를 하고 있어서 그 시험보고 1등하면 엄마가 좋아하시고, 신경을 쓰시긴 쓰셨는데, 그렇게 강요는 안했어요(이진희).

물론 이러한 관계가 항상 상호적인 것도 아니며, 단순히 가정 내에서 청년의 자기관계가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한적 조건 내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2) 사회 - 사회적 가치의 경험

보통 사회관계에서의 경험들은 또래집단들에서 시작된다. 특정한 또래집단에서의 경험은 앞서 언급한 1차집단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학교의 경험과 또래집단에서의 경험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경제적 자원과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과 결부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는 공교육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공교육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들의 가치는 또래집단을 통해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대개 2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교육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겉돌게 되면서 또래집단이 대체재의 성격을 갖게 되는 방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교육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존중감이 강화되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이 우수한 학교성적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2번째의 경우, 학업성적이외의 다른 방식의 존중을 통해서 강화되는데, 대개는 스승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혹은 인격적 대우 등을 통한 존중의 형식을 취한다.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저는 수하여행이라고 하죠. 그걸 못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신의 돈을 내면서 까지 고등학교 마지막 추억이다. 이걸 꼭 가자 이리고...그리고 성적 안 되는데도 저 학교 보내고 어쨌건 저한테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을 보내셨어요....저에게 삶의 멘토셨어요(나유근).

이런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산은 이들 청년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인 ‘가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한편 또래집단의 경험 역시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년과 오히려 또래집단을 구성하여 그 속에서 자신의 취약한 위치를 보상받고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왕따를 당했던 청년의 경우에도 자신의 내적 소망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과의 교류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빠 없는 애 꼭 찾아낼 거야’ 라거나 ‘개량만 놀거야’ 라고 하는 등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그냥 방과 후 아동교실이라는 곳에는 거의 애들도 생활이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맘 편이 애들하고 친해졌는데 교실, 수업 방과 후 이외의 애들하고 만나면 사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좀 싫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이진희).

그러나 이와 같이 같은 경험을 가진 또래집단을 통해서 자기관계를 맺었던 경우는 그 외 다른 확장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로 학교, 또래집단의 경우인데, 학교의 경우 학업성과 학업부적응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래집단에서 인정받는, 예를 들어 ‘이른 성경험’이나 ‘담배나 술’ 등은 이후 이들이 성인기 혹은 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또 다시 굴곡을 겪는다. 가정에서의 정서적 유대감도 부족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중받지 못한 경험 그리고 그나마 또래집단에서 가졌던 경험이 부정적으로 사회화되는 경험 등은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만든다. 권미순(2001)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가정의 자녀들은 긍정적 자아개념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자아 존중감의 상실, 부정적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기 쉽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세워줄 수 있는 비공식적 기관의 도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3) 국가 - 평등/ 권리의 경험

이들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 문제와 결부된다. 즉,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가기 위하여 정부나 사회가 자신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다. 실제로 이들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경제적 문제에 민감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질적 조건들은 국가로부터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지적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이들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인식은 불명확하고,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는가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오히려 자신의 운명이나 부모님의 탓이라는 식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절망을 느끼거나 문제의식을 느낀다.

역시 돈 때문이긴 한데, 그냥 꿈만 보고 가기에는 거기에 달려있는 시간 투자나 제가 살 수 있는 환경 요건이나, 사회적으로 이를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최태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순응하게 되고 꿈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갖는 상호관계는 항상 패배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당당히 현실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러한 것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인정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정체성은 이들이 향후 사회적 인식을 하게 되고,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준다. 때로는 부정적 자아인식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긍정적 자기관계를 맺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기관계의 근간에는 각각의 특정단계에서 이들 청년들이 겪는 자기존중의 관계들이 놓여있는 것이다. 당장 이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들 청년들이 사회적 주체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긍정적 자기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2, 제한적인 성인기 이행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성인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다른 계층의 청년들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경로와는 다소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불충분한 정보와 훈련, 미흡한 경제적 자원이나 가족 내 지원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계층보다 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빈번한 직장 이동이나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만이 겪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충분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 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직업 찾기를 끊임없이 유예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대안,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는 식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를 같이 공유하고 설계할 수 있는 멘토나 역할모델의 부재나 협소함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형태의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앞서 제시했듯이 공부방에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구체적인 자신의 희망으로 사회복지사를 장래 직업으로 선택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 1)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부족한 정보

그제 워낙 월급이 적으니까 한 달에 150에서 200만 되도 한 달에 백만 원씩 모아 서.....2년 뒤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생기겠는데요. 지금 그런 모으는 것조차 불확실하게 되니까 계획을 안 세우게 되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건 검정고시 따는 거. 내년까지 꾸준히 일을 해서 빚을 일단 갚는 거(박수정).

중졸의 학력, 가지고 있는 기술의 부재,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제적 조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자활관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100여만 원의 임금이 전부인 위 사례의 청년에게는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빚을 갚아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중졸의 학력을 끌어 올리는 것 이외에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다른 중산층 가족처럼 자녀가 뭔가 제2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줌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안정된 공간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을 끊임없이 어려운 길로 몰아넣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공부방이나 자활관에서 사회복지사나 관련 단체의 교사를 만나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고민을 상의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은 주로 또래집단이나 TV 등의 매체 혹은 부모세대의 충고 등으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사회적 자본 자체가 워낙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폭의 수위나 깊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시달리면서도

이것을 지지할 조건이 없는 상태이며, 함께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의 부족으로 이중·삼중고에 놓여있는 것이다.

## 2)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독립의 언저리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혜를 받으면서 자라왔다. 면접자에 따라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수급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모님이 일을 해봤자 수급금액 이상을 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로 일을 하기보다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동사무소 등에서 지정하는 일만을 하고 있었다. 자식세대인 이들 청년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편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도움이 한편으로는 매우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저는 직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니가 그 돈을 줄 거냐, 우리 수급자 떨어지면 니가 그 돈을 줄 거냐, 그냥 그거 떨어지고 엄마도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안된다고, 처음 저는 그럼 평생 나는 그럼 거기 직원도 못하고 맨 날 알바나 해야 되냐고, 그 때 많이 싸웠어요(김윤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애를 갖고 있는 위 사례의 청년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었다. 그녀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받은 사회적 차별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수급자 자격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단절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사례 중 하나였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수급자의 자격이 노동을 하게끔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3개월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방은 매우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금방 실현되기는 힘들어도 이들 수급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직장이 늘어나서 이들이 불안정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연기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한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 3) 성인기로의 통과의례: 남자는 군대

한국사회에서 군대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이들 취약위계층 남자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과 군대문화는 이들 청년들이 군대에 대해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제도 자체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군대와 성인을 연결시켜 사고하는 방식은 중산층의 그것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군대와 성인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이해방식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아직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곧 1년 내에 군대에 가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은 조금씩 하고 있었다. 특히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공익을 무시하거나 남자답지 않게 취급하고 이른바 ‘현역’ 을 갔다와야 남자다운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발견된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성인(혹은 어른)이 된다’ 는 매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다른 중산층의 청년들의 태도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즉, 이러한 남성성의 강도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되고, <군대는 갔다와야 된다?>네. 군대는 9월 달에 신검 받거든요. 차차 성인이 되겠죠.....제가 진짜 싫어해요. 공군은 진짜. <만약에 신체검사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 하면 전 자살할거예요. 공익근무 싫어하는데요(나유근).

남성성과 군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과 함께 군대를 갔다 와야 성인이 된다는 태도는 다른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남자는 군대’ 는 이 말에 남성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성인이 될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요, 남자는 군대요(이영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군대의 경험이 본인이 성인이 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인내심과 책임감이다. 군대를 통해 이러한 성인의 덕목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대를 제대한지 100일된 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잘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인내심 같은 게 굉장히 늘었고요..책임감...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모든 걸 다 책임지고....부정적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구요(이문구).

이들 청년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응은 남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것이며, 군대는 미성년자를 철이 들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군대를 바라보는 모든 남성 응답자의 일관된 표현이었으며, 군대라는 곳을 일종의 유예할 수 있는 장소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인생계획이요?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해보게요. 우선은 그냥 우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때부터(차만진).

이처럼 취약위기 계층의 청년들에게 군대는 남성성을 드러내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였으며,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 유예기간이 없는 이들에게는 유일하게 허락된 유예장소였다. 군대에 대한 다른 방식의 사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이들이 남성인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다르게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들의 경우 보수성이 더욱 더 극단화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3. 사회적 배제와 차별

취약위기계층의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감과 차별 등의 원인 중 1순위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별과 이에 따른 사회적 시선이다. 먼저 사회적 배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많은 개념 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빈곤개념인데, 여기서 빈곤은 개인의 욕구 미충족 혹은 자원의 결핍을 의미한다(김안나 외, 2008).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빈곤이나 실업 등 하나의 원인이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 간의 결합이나 사회구조 속에서 복합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과정에 중심을 두고,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다. 공동체와의 연계 결핍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신명호 외, 2004; 김안나 외 2008). 특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층은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우관계에서도 배제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층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의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균, 2009)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감정의 형성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 빈곤, 한부모가족 등의 상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다시 이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고, 차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 그리고 성인으로 이들이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차별경험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모욕과 무시' 의 감정을 차별의 경험으로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이 살아왔던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의 구조 속에서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규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가장 먼저 이들이 겪었던 차별의 경험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왕따나 놀림 등의 경험이다. 경제적 원인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했던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놀림에 시달려야 했다.

애들이 알아가지고 그 때부터 왕따 엄마 없다고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하교시간에 맞고 울고 그랬어요...6학년 되고나서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고 이러니까 왕따 당하게 됐는데 특히 남자애들한테 여자애들은 그냥 무관심한데 남자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

고 놀리고(김희영).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우연히 밝혀진 사실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고, 성격 자체가 소극적으로 변해져 버린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는 또 그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한 대표적 사례이다.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다. 많은 경우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왕따 혹은 사회적 모멸감어린 시선을 받아왔던 경험을 갖고 있다.

돈이 있는 애가 절 보면서 그래요. 야 재 그지잖아, 재랑 놀지마. 이려고 나랑 놀자 PC 방비 내가 내줄 게. 그럼 저는 달려가서 얼굴치고 부모님 달려와서 호로새끼 니네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러고(나유근).

다양한 아이들이 모인 공간에서보다는 비슷비슷한 경제적 규모와 가정환경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래집단을 이루는 경험 역시 많은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배제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역으로 자신(들)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세계 혹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항상 느꼈어요. 애들은 아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 싶은데 애들은 살 수 있을 때 난 못 사고 막 그럴 때. 그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학원 다니고 싶을 때도 못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근데 그런 억울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이진희).

이러한 경험은 차차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을 내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여유로운데, 훨씬 더 부유한데도, 그런데도 항상 개네들은 불만있고 되게 좀 다 그런 거 같아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애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삶이 더> 네.....<그럼 혹시 그런 애들보다 내가 더 빨리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네. 어른이 되, 개네는 엄마 아버지께서 다 해주잖아요 집안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박재현).

## 2) 거주지에서의 차별

임대주택 단지 혹은 주변에서 이들이 받은 차별의 경험 역시 빈번하다. 특정한 거주지에 산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다던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일부러 사람이 안다니는 시간에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돌아서 간다든지 등의 경험이 있었다.

엄마가 이삿집 하시니깐 맘을 하루 쫓길 흘리고, 이제 비도 맞고 하다보니까 쫓, 솔직히 말해서 냄새가 좀 심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깐, 그 택시 아저씨한테, 그 9단지라고 얘기 했는데, 택시아저씨가 그러셨대요. 내리라고, 거기동네 안 간다고(진영택).

이 경우 택시기사가 맘에 안 드는 손님(이 경우 지저분한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는 지역에 대한 차별로서 즉, 가난하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험으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손버릇이 나쁘다거나 혹은 행실이 바르지 못할 거라는 편견이 작용하여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도난 사건 같은 거 있었는데,....저라고 바로 찍은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애는 분명히 반항하는 애 일것이고 문제아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좀 있는 거 같아요(이진희).

이들의 이런 경험은 이들의 주거지가 대체로 일정한 곳에 모여 있는 임대주택단지일 때 주로 발생하였고, 임대주택단지 주변에 다른 일반아파트가 있을 때 더욱 심하였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 청소년들이 겪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는 경험도 다수 존재한다.

남들이 뭐라 하기보다는요, 건영아파트는 좀 사는 애들, 무지개 아파트는 좀 사는 애들.....이 쪽 면에서 앞쪽을 보면 학교하고 건영아파트 사는 애들 집이구요. 집에 갈 때 마다 밤에 보면 전체 짝 다보여요. 그럼 진짜 이 넓은 동네에 왜 하필이면 저런 집이 우리 집 앞에 있을까, 진짜 1분, 2분 차이인데도 왜 우리 집은 저럴까...근데 저는 그렇게 자살충동까진 아니에요. 죽고는 싶다. 막 못 죽어서 안달 나는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구요(나유근).

이밖에 일부러 이곳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없는 시간에 피해간다는 사례에서부터, 빙 돌아간다는 이야기까지 이들이 겪었던 차별적인 시선과 그것에서 낙인찍혀서 오점이 있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한부모 가정, 혹은 수급자들이 사는 임대주택 단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실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며, 차별의 요소를 억지로 숨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3) 노동시장이나 입시 등에서의 차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겪는 소외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나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배제감을 느낀다. 가정환경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졸의 학력을 가진 한 청년의 경우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해야만 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곤 한다고 말한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거요. 거의 한 50%가 거짓말? 왜냐면 남들은 이런 거 쓰잖아요. 누구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근데 그런 거 못쓰잖아요...최대한 좋게 써야 되는데 나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일 맞고 힘들게 자랐다고 쓸 수 없잖아요(박수정).

가수가 꿈인 청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용음악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생각했던 그는 입시원서 살 돈도 부족하여 대학 하나만 정해서 입시원서를 구매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는 ‘저쪽 물에서 논 아이들’ 과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대학 자체를 포기한 사례이다.

저는 가수 쪽으로 내보낼라고 만들어낸 애고 개네는 대학을 갈라고 만들어 논 애니까 거기 심사위원이 저 보자마자 10초 듣더니 바로 땡을 치더라고요. 너 완전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심사위원?> 학교. <학교 심사위원? 시험 봤어요?> 네. 거기 시험 보는데 심사위원이 짹 앉아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10초 땡 치더라고요. 거기서 격차를 느꼈어요. 대학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대학은 포기하게 됐어요...꿈도 못 꾸죠(나유근).

물론 이 경우, 가수라는 명확한 자기 희망이 있었기에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는 쉬웠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의 경험은 남들과 다르게 성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과 동시에 가정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걱정 없이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생계형 음악을 추구하는 자신과의 차이를 더 확연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정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두드림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취약위기계층이 겪고 있는 차별은 하나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즉,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노동시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의 흐름을 인지하여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4) 사회적 배제와 차별극복의 개별적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취약위기 계층 청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손상 받지 않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라는 존재조건이 발견되어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주위의 모욕적인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에, 이들은 분명히 차별을 경험한다. 그러나 차별경험을 하는 이들은 국가나 사회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차별의 경험을 극복하는 전략을 구성한다. 대체로 이들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급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수급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별..느낌 없어(김현석).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다른 비수급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즉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모욕감을 갖게 된다. 그 계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러한 감정을 통해 사회적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개별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은 원래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부끄러운 것 없었어요. 뻘히 친구들도 저희 집..잘. 어느 정도 잘 살았던 것 아니까.. 그래서 확 망한 거 아니까(이영준).

위 사례의 청년은 원래 자신은 수급자가 아니고 대단히 부유했었고, 그것을 주변 친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렇게 수급자가 되었어도 떳떳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경우 자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무시하는 방법이다. 한 피면접자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뿐이다. 즉, 다른 수급자들과 차이를 두고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친구들이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라는 사실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주변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거부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수급자였기 때문에 한 두 번씩은 급식비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거나 손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경험이 싫어서 급식비를 무료로 지원받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식비를 마련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즉, 대학생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수급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이들을 낙인찍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면서 이러한 사실을 극복한다.

그냥 좀 혜택이 많은 거 같아요. 학교에서 자격 뭐지 장학금 혜택도 많아요....그래서 좀 애들이 부러워하죠....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안 부끄러워요...만약에 또 뭐지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하면 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 없어요(차만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화하여 자신이 수급자라는 사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 즉, 자신이 가난하지만 부자인 아이들보다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기도 한다. 그것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예를 들어 노래를 잘 하거나 운동을 잘한다는 식)이

있음을 주위 사람들과 자신에게 표현하면서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극복방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교육체제가 학업을 중심으로 짜여있고, 다른 특기나 재능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능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교육에 대한 태도와 열정만으로 개인을 판단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비록 학업적인 부분에서 취미나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다양하게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거나 지역의 노동센터와 연계하여 미래를 설계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차별을 극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하다못해 하나라도 위다. 공부를 제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애가 제가 체육을 잘한다 그럼 제가 그 사람보다 위잖아요. 넌 나보다 아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저보다 아래인 애들이 몇 명인데요<싸움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아래죠(나유근).

이러한 개별적 극복방안은 반드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후 자신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비록 이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한 편이지만, 학자금 대출을 혐오하는 한 청년은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 자체를 받기 싫어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의 도움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극복방식을 볼 수 있다.

#### 4. 성인기 이행과 사회적 지원

취약위기 계층의 청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매우 많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들은 누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데다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기보다는 직접 이들이 요구했던 사회적 지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울퉁불퉁한 사회적 경험을 한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경우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빈곤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평한 기회나 자원을 제공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었다. 대체로 이야기되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기 집에 대한 요구, 대학생 혹은 대학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높은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냥 대학교 등록금 밖에 생각 안 들어요, 저는...그거 외에는 사회가 날 위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정유미).

또한 기회의 분배나 실현에 관하여서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도출되었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제시되었다.

사회가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간에. 그니까 일자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우선 최소한 이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없고, 아무리 진짜 똥고집 진짜 아무 것도 안하고 논 애라 할지라도 한 번은 시켜봐야지, 애가 공부는 안했지만 이 일에 대해선 천성적으로 맞을 수는 있고, 공부는 잘 했지만 이 일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조승구).

그 외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등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생각들이 제시되었다. 장애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문제제기 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받았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했으며,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고통 받았던 사람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문제제기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장애인이라는 생각, 판단 달라져서. 무시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김윤정).

큰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 나아지게 해 달라고 그런 건 없는데 돈이 없건 적건 같은 대우였으면 좋겠어요(이진희).

그리고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끔 수급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는 이야기들, 즉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부터,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좋은 어른. 어 제가 미래에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지원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막 되게 힘들게 살거나 그런 애들 위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여가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박혜영).

좋은 어른, 혹은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세상이 공평하게 자신을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것,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봐 달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달라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성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곳이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문제였으며, 기회자체가 봉쇄된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

학교를 안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꼭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가 있고 뭔가 그 정도 레벨이 되어야지만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미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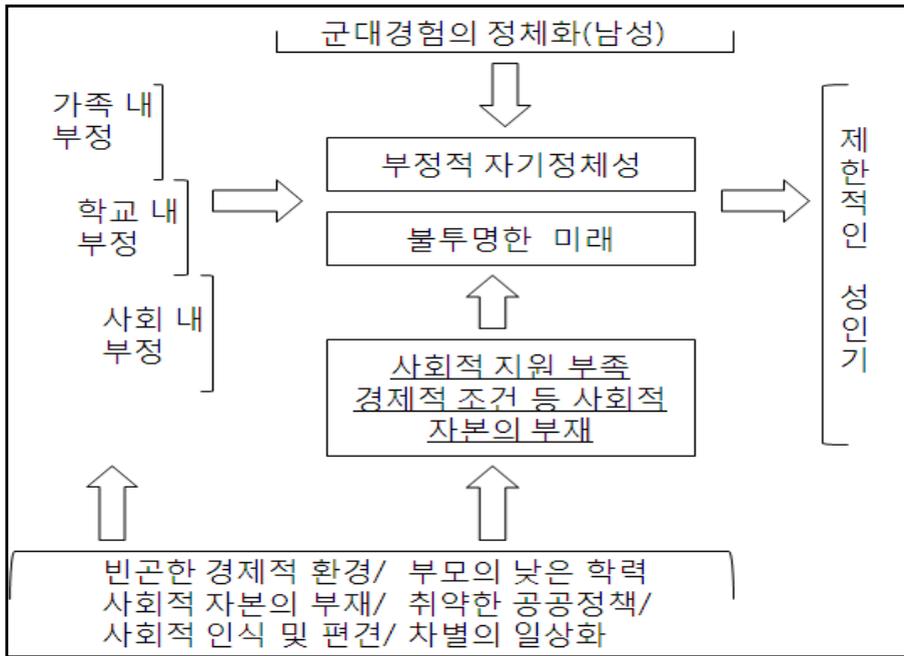
부모님 세대의 응답자 역시 과거에 비해 현재가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여기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사회가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사회는 분명히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저는 나아진 거 같이 생각안돼요. 뭔가

모르게 더 힘들어지고 그 때는 진짜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속으로 싫어도 겉으로는 웃고, 막 그런 가식이 더 오히려, 심해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부모 2).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 한국사회에서의 경쟁의 치열함, 자기계발의 열풍 등의 원인으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이 구조화되거나 혹은 스스로 체념하여 내면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청년들이 이른바 ‘일반적’인 성인기로 이행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성인이 되기에는 너무 먼 존재라고 느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만큼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좋은 사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이들의 생애 과정에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이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이나 사회적인 존중의 방식들 그리고 차별해소와 배제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들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청년들이 정당한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빈곤청소년들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에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은하 외, 2011)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인정되는 일상의 공간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그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1】 취약위계층 청년의 정체성 및 사회인식과 성인기 이행 개요



## 제 6 장

---

#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요약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구성원들과 어떤 정서적 유대를 맺어왔는가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정서적 혹은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은 청년들의 성격이나 가치관, 정체성 등 개인의 개별성이 형성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구술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모이혼, 부모사별, 가정폭력, 가족들 간의 대화 부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절대 부족 등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왔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싸우거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의 유년시절은 물론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가족구성원들 중 한 사람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또는 혼외관계를 유지하거나 불성실한 아버지를 둔 (여성)청년들은 남성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향은 연애, 결혼 등 이성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나 두려움을 내재화함으로써 자신의 인격, 성정체성 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주로 집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가출을 일삼는 등 가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행동들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가족 간의 불화를 외현화 함으로써 돌출적인 행동이나 일명 ‘일탈’ 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을 일으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경향성은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상이한 행위양식을 습득하게 만든다. 이들 청년들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등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경향은 구술자들에게는 불우하고 폭력적인 가족환경에 대한 ‘보상 및 대안으로 가족구성’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으며, 상당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기반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 청년들을 조사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가족적 맥락, 특히 부모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부모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가족적 맥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경험을 하게 되며, 가정 내에서도 성인 수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를 지닌다. 물론 가정에서의 성인 역할 기대는 개인적 맥락(예를 들어 딸이거나 및 첫째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부모의 갈등 및 성인기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한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는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관 및 가족관 형성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데, 부모와 소원한 관계를 맺어온 청년일지라도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 모델로 삼아 바람직한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모든 성인기 이행 및 가족 관계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족 외적인 맥락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이를 통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성인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거나 혹은 친인척의 지원 등은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교육과정과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한 태도는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싶지만 열악한 경제적 요건, 가족관계의 파탄, 부모의 건강악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상실, 부모의 낮은 학력,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조사대상자들 중 몇몇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소위 ‘일탈행위’를 일삼는 청년들도 있다. 이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공부는 거의

포기하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한다. 조사대상자들 중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규적인 교과교육을 통해서 아니라 학교 밖에서 또래들과의 친분관계나 사회경험(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별다른 인성교육 조차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학업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못했지만 대신 특별히 ‘인성’ 교육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못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과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청년 조사대상자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부모가 공부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인성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다.

빈곤청년들은 청소년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시장에 반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로써 학업보다는 생계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정규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청년들은 학업대신에 일을 통해서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이행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때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중산층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빈곤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이 되어 겪는 노동의 고통, 즐거움이나 보람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계층의 청년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사대상자들은 학교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회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모색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학교로부터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미래의 삶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대학은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학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은 사회생활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대학교육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즉, 성인기 이행에 대학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거나 등록금만 쏟아붓는 곳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특히 전문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오히려 이들은 대학보다는 다른 사회경험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을 거치고 있었다. 또래집단과의 소통이나 아르바이트 등 대학생활 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취약위계층의 청년들은 중산층 청년들과는 상이한 경험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노동경험이다.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이른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며,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저임금, 연령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면서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평탄한’ (순조로운) 것이기 보다는 ‘울퉁불퉁한’ (굴곡적인) 것이 된다.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 통상 성인기에 이르러 하게 되는 생계형 노동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성인기 이행 기간을 일부 선취하면서 이들은 노동과 학업을 둘 다 조절해야 하는 이중적 구속과 역할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어지는 유예기나 준비기는 단축되고, 이들에게 현재는 그야말로 곧장 미래와 맞닿아 있을 뿐이었다.

이들 청년은 취업을 준비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의 부재,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매우 취약하고 빈약하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이력의 흔적이 남지 않는 임시직 노동을 영위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령노동’은 저연령과 저학력, 저임금 노동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는 상태를 더욱 강화시킨다. 나아가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랜 시간 임시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박탈감과 더불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아존중감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제한적인 사회자본과 기회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은 불안한 홀로서기 일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또한 불안하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불안함과 울퉁불퉁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성인기 이행의 개인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맞춤형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에 대한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성인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생활세계를 보면 어느 성인 못지않은 경제적 책무와 사회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술자 대부분은 성인됨의 요건으로 ‘책임감’, ‘배려’, ‘의무감’, ‘이해심’, ‘인내심’, ‘고민’, ‘포용력’ 등의 용어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이 요건들에 비취볼 때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이미 일정정도 성인의 역할에 준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구술자중 한명은 정신적 독립은 물론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찌감치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의식하려는 태도도 많이 엿보인다.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다양한 차별의 경험이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엄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질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 등에서의 인정과 권리 관계의 다양한 원리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청년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폭력과 불화 등은 이들 청년들이 가족관계에서 애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인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혹은 학업에 대한 태도로 인해 이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 개별성 또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유일한 창구였던 또래집단에서의 인정은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상당부분이며, 평등한 권리의 부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인정의 과정은 노동의 과정에서 거부되고, 이는 임금체불이나 차별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적 자기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는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사회인식에서 뿐 만 아니라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불투명한 미래와 부족한 정보 그리고 경제적 배경 등으로 인해 완전한 형태의 성인기 이행이 아니라 일부분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부분은 나중에 경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지원 등으로 말미암아, 항상 수급자 자격의 언저리에서 맴돌거나 탈 수급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학교, 집, 그리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낳게 되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 죽을 만큼 창피한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차별경험 속에서 이들은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기회를 보장받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원했다.

따라서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로 안착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이들의 생애과정에 맞추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이나 사회적인 존중의 방식들 그리고 차별해소와 배제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 2. 정책제언

### 1)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의 정책적 제언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가족 관계 및 가정환경은 이들의 빠른 성인기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 가족 및 결혼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육 및 경제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기 경험을 하며, 이는 청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부작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위גיע층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본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관련 정책을 확장하여 다양한 취약위גיע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취약위גיע층의 가족 관계 및 가정환경을 다루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취약위גיע층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들은 “한부모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부는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황은숙, 2008).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한부모 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외에도 자녀 양육, 가족 갈등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자라온 환경이 한부모 가족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다른 사회적·정책적 맥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가족적 맥락이 반드시 한부모 가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본 조사에 참여한 가족들 중 양쪽 부모 모두와 동거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한부모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한부모 가족 정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자녀 가족이 아닌 부-자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성공적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 가족에 초점을 맞춘 가족관련 정책들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취약위גיע층을 돌볼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었고,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가족적 맥락 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전 생애적 가족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책적

도움 역시 문제가 표면화된 후 특정시기에 집중되어서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어린 시절부터 복지관이나 교회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모델을 제시받거나 교육 및 친교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경우, 보다 적절한 시기에 준비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장을 놓고 보았을 때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청년기에 성인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특정한 측면을 보고, 전 연령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에 대하여서도 생애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의 전 생애적 접근을 위하여 각종 사회, 교육 및 종교 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맺고 있는 관련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적절히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한 기관에 모든 정책적 요구가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서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부모교육의 역할도 어느 정도 기관별로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취약위גיע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취약위גיע층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진입을 돕는 정책의 내용에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건강한 성인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도록 돕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여러 복지관 등을 통한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과 공부방 운영 등의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대상도 20세 미만의 청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중 복지관 혜택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20세 여성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요새는 복지관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다 초등학교 이런 애들 과외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 밖에 없더라고요. 동아리도 없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하는 애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김현정).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부모는 가정에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결혼 및 가정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적합한 존재이다. 따라서 적절한 부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위기계층 청년 가정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경우 수급자격 유지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일정한 수준의 현물로 참석수당을 제시한다면 참여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의 지역적 확대가 요구된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 도시나 지방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수급 외의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도 접한 경험이 없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있는 경로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외부 지원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고충은 이들의 가정 문제나 성인기 진입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대도시외 지역에서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2)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교육환경과 성인기 이행의 정책적 제언

교육 영역은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와 지식을 쌓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사람일수록 경제적, 문화적 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배제되거나 방치되어 왔다. 그런 만큼 학교 밖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부대신 일을 찾아서 십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학교로부터 특별히 보호되거나 관심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다. 학교 차원에서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낼 정도의 여력도 없어 보인다. 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사대상자들은 취업문제나 진학문제에 있어서도 담당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진학문제를 ‘전적으

로' 맡겨버림으로써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전문계 고등학교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위기계층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욕구나 상황을 파악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위기계층 청년들이 지닌 개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유도하여 직업훈련과 연계시켜주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관리자도 필요하다. 특히 조사 대상자 청년들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전공과 별개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취업이 면밀하게 연계됨은 물론이고, 각 취업위기계층 청년들의 적성과 직업전망을 고려하는 그야말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위기계층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수록 인격적인 성숙이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변의 또래집단은 물론이고 또 다른 유형의 또래집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교내외 또는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된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취업위기계층 청년들을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조사대상자들 중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전공과 연속성을 갖지 못하거나 대학공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고 공부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적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배운 지식과 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는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학교육에 대해 불신이 높고, 장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러한 욕구와 기술적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대학 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는 물론이고, 개별 학생들의 취업이나 적성 등의 문제를 대학 내의 상담실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의 과업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제도에서 보다 더욱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취업연계나 적성개발 프로그램을 자체 내 교과과정에 투입하여 좀 더 내실화되고 현실화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학에 진학하기 훨씬 이전에(고1 혹은 고2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유용하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대학과목선 이수제’ 나 일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대학과목을 미리 수강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양강좌인데다가 고 3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 ‘대학체험 교육’ 혹은 ‘미래 진로 체험’ 등으로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고 현재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시행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경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장학금수혜 탈락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생인 경우 고액의 등록금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부여하는 ‘미래드림 장학금’, 차상위 계층에게 해당되는 ‘희망드림 장학금’ 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장학금 제도는 신청자에 한해서 일정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학생에게 지원해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빈곤계층 청년들이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대학생할에도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대학생할까지 이어지면서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 했다. 또한 특별전형 형태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성적이 좋게 유지되지 않으면 장학금은 자동적으로 지원이 끊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장학금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낮추거나 상대적 개념의 기준(이전보다 몇 % 증가 등) 혹은 다른 기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노동환경과 성인기 이행의 정책적 제언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경우 선취된 노동경험을 통하여 성인기로 조기 이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의 청년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주위의 차별적인 시선과 무시 속에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역시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과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점은 이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 노동정책과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노동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들 수 있는데, 첫째, 청년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조건은 최저임금제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사례에서부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혹은 부당대우를 받는 사례까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당장의 생계나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첫째, 고용지원센터 등에 청소년 노동 전담업무부서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노동청에서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신고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분리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노동담당부서’ (혹은 담당창구)의 마련을 통하여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며, 나아가 이들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알선까지 담당할 수 있다면 ‘신고와 취업알선’이라는 형태로 청소년 노동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고 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수급자인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부당노동행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발동하여, 수급자격에 있어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들 청소년들이 거리낌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일상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의 경우 공교육제나 미디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에 이러한 10계명을 명문화 하여 보여주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현실적인 맞춤형 취업교육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민간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위탁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예를 들어, 고용안정센터)과 연계하여 앞서 언급한 ‘전문 청소년 노동담당부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을 개별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노동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수급자 자격을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비현실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청년을 노동현장으로 떠밀고 있다. 따라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재보다 상향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등의 기준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추정소득부과지침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대상자로 추정 받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 충분히 유예기를 거치고 준비기간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정소득부과지침으로 인하여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들 청년들은 빠른 성인기를 맞이하면서 충분한 실험기간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중산층 청년의 경우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받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적성을 시험하는 기회가 있지만, 취약위기계층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노동현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기의 정체성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 대한 장기 해외연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 충분한 자기 유예시간 확보 및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일정기간 직업교육에 국한하지 않은 인문학 교육 등을 지원하여 삶을 유예하고 성인기로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성인기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경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 취약위기계층 청소년들에게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부족한 것은 사회적 자본 뿐 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공교육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등을 들 수 있다. 공교육체제에서부터 지역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고양하고 삶의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1인 1멘토' 운동을 제안한다. 멘토를 통하여 이들 청년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고,

좀 더 확장된 사회경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성적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비공식기관과의 교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와 미래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확장된 시야를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pp. 7-30.
- 권미순(2002).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반사회적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나 외(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하 · 엄태영 · 주은수(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pp. 197-221.
- 배경내(2009).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노동'의 현실. 「청소년노동인권개선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2007).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신명호(2004).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통권 67호.
- 신명호(2011). 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서울: 한울.
- 아마미야 가린(2011). 프레카리아트-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김미정 역. 서울: 미지북스
- 안그라미(2010).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 월간복지동향, 제135호, pp. 54-65.
- 안선영, Cuervo, H., & Wyn, J. (2010).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계숙 · 장혜경 · 전해정 · 김윤정 · 민성혜 · 박은미 · 안재희 · 장보현 · 한지숙(2008).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89-117.

- 이경상·유성열(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의 변화와 특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균(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2009 국제사회학대회」 발표집. 한국사회학회.
- 이시균(2010).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전귀연·이성기(2006). 부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청소년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5호, pp. 27-51.
- 전준현·이수천(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 pp. 5-28.
- 통계청(2009).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황은숙(2008).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부모가정연구, 제3호, pp. 1-24.
- 호네트(1996).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서울: 동녘.
- Aquilino, W. S. (2006). Family Relationships and Support System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pp. 193- 2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5, pp. 469-480.
- Aronson, P. (2008). Breaking barriers or locked out? class-based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 J. T. Mortimer (Ed.), *Social*

-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119*, pp. 41–54.
- Bangser, M. (2008). *Preparing High School Students for Successful Transitions to Postsecondary Education and Employment* (Issue Brief). National High School Center. Retrieved February 3, 2009, from [http://www.betterhighschools.org/docs/PreparingHSSStudentsforTransition\\_073108.pdf](http://www.betterhighschools.org/docs/PreparingHSSStudentsforTransition_073108.pdf).
- Baum, S., & Payea, K. (2004). *Education Pays 2004: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for individuals and society*. Washington DC: College Board.
- Cameron, S. V. & Heckman, J. J. (2001). The dynamic of educational attainment for Black, Hispanic, and White Ma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9 No. 31*, pp. 455–466.
- Daly, K. J. (2007). *Qualitative Methods for Family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 Lincoln, Y.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u Bois-Reymond & Andreu Lopez Blasco.(2003). Yo-yo Transitions and misleading trajectories:towards Integrated Transition Policies for young adults in Europe. In Andreu Lopez, Wallace McNeish & Andreas Walther(Eds.), *Young People and contradictions of inclusion: towards integrated transition polices in Europe*. Policy Press.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London, Faber & Farber.
- Freedman, D. A., Thornton, D., Camburn, D., Alwin, D., & Yong-DeMarco, L. (1988). Life history calendar: Techniques for collecting retrospective data.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8*, pp. 37–68.
- Fussell, E. (2002). Youth in Aging Societies. In J. T. Mortimer & R. W. Larson (Eds.), *The changing adolescent experience: societal trend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p. 18–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F. (2008). The intersections of social clas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110*, pp. 1–10.  
San Francisco: Wiley Periodicals, Inc.
- Greenberger, E., O'Neil, R. & Nagel, S. K. (1994). Linking workplace and homeplace; Relations between the nature of adults' work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No. 6*, pp. 990–1002.
- Kohn, M., Slomeczynski, K. M. & Schoenbach, C. (1986).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values in the family: A cross-national assessment. *Sociological Forum, Vol. 1*, pp. 73–103.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McNay, Lois.(2008). *Against Recognition*. Polity.
- Meier, A. & Allen, G. (2008). Intimate relationship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ifferences by social class.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119*, pp. 25–39.
- Mertens, D. M. (1998).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Integrating diversity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Nguyen, A. N. & Taylor, J. (2003). Post-high school choices: new evidence from a multinomial logit model.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6*, pp. 287–306.
- Osgood, D. W., Foster, E. M., Flanagan, C., & Ruth, G. R. (Eds.), (2005). *On your own without a net: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popu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Redd, Z., M. P. P., Brooks, J., & McGarvey, A. M. (2002). *Educating America's youth: What makes a difference*. Washington DC: Child Trends.

- Richardson, S. & McCabe, M. (2001). Parental divorce during adolescence and adjustment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 32, pp. 47–61.
- Roggman, L., Fitzgerald, H. E., Bradley, R. R., & Raikes, H. (2002). Methodological measurement, and design issues in studying father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pp. 1–30).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ssi, A. & Rossi, P.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Vol. 60, pp. 340–356.
- Scabini, E., Marta, E. & Lanz, M. (200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Family Relations: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Schoeni, R. & Ross, K. (2005). Material assistance from famili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R. Settersten, F. F. Furstenberg,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pp. 396–416).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ott, J., & Alwin, D. (1998). Retrospective versus prospective measurement of life histories in longitudinal research. In J. Giele & G. H. Elder (Eds.), *Method of life course resear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pp. 98–127). Thousand Oaks, CA: Sage.
- Settersten, R. A. (1999). *Lives in time and place*. Anityville,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
-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119, pp. 11–24.
- Taylor, S. J. & Bogdan, R. (1998).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Guidebook and resource* (3rd ed.). John Wiley & Son, INC., NY: New York.

Whitbeck, L., Hoyt, D. & Huck, S. (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9, pp. 85-94.

William T. Grant Foundation. (1988). *The Forgotten Half 1988*. New York: William T. Grant Foundation.



# 부 록

1. 청년대상 질문지
2. 부모대상 질문지
3. 생애사 면접표
4. 면접 참여자 정보



# 부 록

## 1. 청년대상 질문지

I. 사회 인구학적 배경	
현재 나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현재 거주 상태	
부모님 직업	
부모님 학력	
현재 월수입	

II. 성인기에 대한 정의 및 사회적 지원	
본인이 현재 성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가? (언제 성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III. 부모자녀관계 및 지원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춘기 이전 (중학교 전)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시절)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현재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렸을 때 내가 느끼는 부모님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부모님의 현재적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가?	Yes)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No) 언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내가 성인이 되는데 부모님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치관, 교육, 정신적/ 물질적 지원 포함

IV.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1) 초등과정	
초등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친구 관계는 어떠했는가? 학업 성취는 어떠했는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초등학교 시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초등학교 시절 가장 좋았던 경험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부정적인 경험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교육 참여 정도는?	
2) 중등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친구 관계는 어떠했는가? 학업 성취는 어떠했는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좋았던 경험은? 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부정적인 경험은?
중고등학교 시절 미래 진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중고등학교 시절 미래 진로와 현재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교육 참여 정도는?	
3) 전문대/대학 경험 (해당자에 한함)	
전문대/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대/대학 진학까지의 과정은 어떠한가?	진학 과정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진학 과정 중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
전문대/대학 진학과 관련된 경제적 계획은 어떠한가? (등록금, 생활비 등)	
전문대/대학 진학까지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였나?	

전문대/대학 진학까지 도움을 받은 타인이나 사회적 기관이 있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나? 없다면, 어떤 도움이 있다면 진학과정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까?
전문대/대학 졸업 후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함)	

V. 군대 경험에 대한 이해 (해당자에 한함)	
군복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군복무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나에게 미친 가장 긍정적 영향은? 나에게 미친 가장 부정적 영향은?
군복무 경험이 성인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VI.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보통 평일과 주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평일/주말 하루 일과 중 바꾸고 것은? 평일/주말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과는?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VII. 취업 경험 및 태도에 대한 이해	
처음 일을 한 경험을 설명하십시오.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일을 시작한 시기는? 일을 한 이유는? 일의 종류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는? 일의 지속기간은? 근무시간은? 소득은?
처음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일을 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 시작한 일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본인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현재 직업이 이상적 직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재 취업자에 한함)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하기 까지(혹은 현재까지) 구직 경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현재 취업 중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에 한함)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어떠한 취업 준비를 했는가? 어떻게 현재 직업을 찾았는가? 직업을 바꾼 경험이 있는가? 구직에 실패한 경험은 있는가? 구직 과정 중 가장 힘들게 느꼈던 점은?

취업(직장)이 자신의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현재 취업 중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에 한함)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취업 중인 사람에 한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Ⅷ. 이성교재, 결혼, 출산에 대한 태도	
나의 이성교재 경험은?	언제 이성교재를 시작했는가? 현재 이성교재 상대가 있는가? (있다면, 교재 기간은?) 내가 이성교재 상대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혼전 성관계에 대한 나의 의견은?	(실제 성관계 경험)
결혼전 동거에 대한 나의 의견은?	(실제 동거 경험)
결혼을 하고자 하는가?	Yes) 결혼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No)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함)	대략적인 시기는? 결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부모님이 나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부모님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시는가? 나는 부모님의 바람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나의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 (경제적 / 물리적) 정도는 어떠한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가?	Yes)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No)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IX. 사회적 박탈감, 차별, 무시 등에 대한 경험**

<p>지금까지 커오면서 가정환경이나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p>	<p>사회적으로 말고 친구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떠한가?</p> <p>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불평등한 대우나 부당한 대우를 학교생활, 직장 및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받은 적이 있는가?)</p> <p>그럴 때 기분이 어떠한가?</p> <p>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가?</p> <p>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p>
---	---

**X. 사회에 대한 인식**

<p>내가 성인으로써 살아가는데 우리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p>	<p>우리 사회가 성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p> <p>우리 사회가 성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p> <p>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p> <p>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p>
---	---

**XI.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p>전반적으로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p>	<p>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가?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운가?</p>
<p>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p>	
<p>자신이 지금까지 살아 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어떻게 다른가?</p>	

XII.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은?	
좋은 성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갖춰야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은 성인이 되도록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2. 부모대상 질문지

I. 사회 인구학적 배경	
현재 나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현재 거주 상태	현재 결혼 상태
현재 직업 (본인 / 배우자)	현재 월수입
자녀 수 / 성별 / 연령	자녀의 학력 / 직업

II. 자녀의 성인기에 대한 정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할 것들은 무엇인가? (언제 성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본인은 언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의 청년기 때와 비교해 현재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변화가 있는가?	
현재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III. 부모자녀관계 및 지원	
나의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었나?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나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는가?	
나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녀가 사춘기 이전 (중학교 전) 나와 관계는 어떠한가? 자녀가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시절) 나와 관계는 어떠한가? 현재 나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가?	나의 바람과 비교하여 볼 때 지금 자녀는 어떠한가?
자녀가 어렸을 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가?	Yes)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No) 언제부터 도움을 주지 않았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자녀가 성인이 되는데 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V. 자녀의 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의 학창시절은 어떠한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자녀의 교육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본인의 참여 정도에 만족하는가?
자녀의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자녀의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자녀의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나의 교육경험과 자녀의 교육경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녀의 전문대/대학 진학에 대한 태도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전문대/대학 진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의 전문대/대학 진학까지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였나?	본인의 역할 (참여 정도)에 만족하는가?

V. 자녀의 취업에 대한 태도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 원했는가?	
현재 자녀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가?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구직 경험은 어떠한가?	
자녀의 구직 경험이 본인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직장 경험이 있는 부모에만 해당)
자녀의 구직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본인의 도움 정도에 만족하는가?

VI.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의 결혼에 대해 어떤 기대는 어떠한가?	자녀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대상을 만나기 바라는가? 대략적인 시기는?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자녀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모 역할과 본인의 부모역할이 어떻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VII. 본인의 삶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해	
1) 자신 및 자녀의 삶에 대한 태도	
현재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가?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운가?
젊은 시절 나의 삶의 계획 (꿈)과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일치하는가?)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가 사는 방식 중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사는 방식 중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 온 과정이 다른 자녀들과 어떻게 다른가?	

### Ⅷ. 사회적 영향력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녀가 성인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자녀 나이 일 때 사회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자녀가 좋은 성인이 되도록 사회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3 . 생애사 면접표

ID:

취약위기계층 청년

날짜:

년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나이																				
교육(학교)																				
일																				
Events 이성교재 가족사건 친구관련 이사 죽음 건강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나이										
교육(학교)										
일										
Events 이성교재 가족사건 친구관련 이사 죽음 건강										

기타 사항

#### 4. 면접 참여자 정보

##### 나유근

나유근은 만 20세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임대아파트에 아버지와 남동생 한명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가수가 꿈이며, 보컬학원에서 보컬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청소년 자활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대학은 포기했지만, 가수가 꿈인 관계로 대학에 대한 미련은 갖고 있지 않다.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으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으며, 매우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대화를 즐기는 편이었다.

##### 박수정

박수정은 만 28세의 여성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월세집을 구해서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다. 당장의 꿈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이며, 낮은 학력과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청소년 자활관에서 일하고 있다. 삶의 굴곡이 심하여 인터뷰 도중에 설움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쏟기도 하였다.

##### 김희영

김희영은 만 19세의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 임대아파트에서 친언니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같이 살던 아버지는 현재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진학하여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며, 아버지와 의 갈등 때문에 아버지와 정반대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한다.

##### 김순애

김순애는 만 20세의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두명과 함께 살고 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였으나, 김순애는 아버지와 함께 산 경험이

있으며, 미용사가 되기 위해 미용고등학교를 다녔으나 현재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성격은 매우 밝은 편이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와 돈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

### 신영희

신영희는 만 20세의 여성으로 서울 임대 아파트에서 어머니 및 두 동생과 거주하고 있다. 어머니는 본인이 11세 때 이혼하였으며, 이혼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되어 지금까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이혼 전에는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일정한 지원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 중이며, 재수를 결정할 당시에 정부지원이 끊길 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겨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영희의 성격은 매우 밝은 편이며,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친밀하였다.

### 정유미

정유미는 만 22세의 여성으로 서울 임대 아파트에서 아버지, 동생과 거주하고 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였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계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했으나 어머니는 최근 건강 쇠약으로 돌아가셨다. 부모의 이혼 후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복지관의 여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선생님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며 교회에서 주는 약간의 학자금 혜택 등도 받고 있었다.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매우 뚜렷한 편이었다. 성격상 아버지와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얌전하고 말 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면접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또렷하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김현정

김현정은 만 22세의 여성으로 서울 임대 아파트에서 친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연락은 해본 적이 없으며 소식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현재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취업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혜택을 받았으나 현재는 할머니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학창시절 내내 복지관을 통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및 대외 활동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도 복지관 선생님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님 대신 여러 면에서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이러한 주변의 도움으로 매우 밝은 성격으로 성장하였다.

### 이진희

이진희는 만 21세 여성으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사별한 후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3년 전부터 수급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매우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가족 간에 문제는 크게 나타내지 않았다.

### 김윤정

김윤정은 만 27세의 여성으로 중학교 때 부모가 이혼 한 후 동생 세 명, 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님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본인과 아버지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 다리가 불편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함께 장애인 복지혜택도 받고 있다. 본인은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싶으나 그럴 경우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취업 반대가 심하여 현재 무직으로 지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이 자주 있었으나 현재 취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면접동안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의 경제적 형편보다 본인의 장애에 더 불만을 나타냈다.

### 윤미령

윤미령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중학교 때 어머니와 사별한 후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한 달 전부터는 동생과 따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으며, 경제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여 어머니 사별과 아버지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신의 선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현재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교회를 매우 열심히 다니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조용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표현했다.

### 임미숙

임미숙은 만 20세의 여성으로 가평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학교 때 부모가 별거를 시작했으나 법적으로 이혼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혼 거부로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부모의 이혼 후 얼마간 아버지, 동생들과 함께 지냈으나 아버지와 의견 충돌로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현재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정규적인 직업은 없다. 중학교 시절에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최서영

최서영은 만 20세의 여성으로 가평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군인이던 아버지와 초등학교 때 사별하고 어머니,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은 받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사별 후에 특정한 직장을 갖지 않고 있다. 오빠 역시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아버지의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경제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집안의 경제나 기타 사정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면접 질문에 거의 단답형의 짧은 대답만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 차만진

차만진은 만 20세의 남성으로 춘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출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의 재혼(사실혼) 후 현재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를 받았으며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용돈을 벌었으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환한 태도로 임했다.

### 이영준

이영준은 만 20세의 남성으로 가평지역에 살고 있다. 현재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으나 아버지의 사업실패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형편이며, 자신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족의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자신의 미래 희망을 개그맨이라고 밝힌 것처럼 첫 번째 면접에는 매우 쾌활한 분위기로 임했으나, 두 번째 면접에서는 조금 조용해진 모습을 보였다.

### 김진희

김진희는 만 20세의 남성으로 가평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계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지만 금액은 전혀 알지 못하고 현재 가족의 거주 상태도 알지 못했다. 본인의 용돈 등은 어머니나 누나에게 의지 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도 거의 하지 않았다. 면접을 하는 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말 수가 거의 없었다.

### 신태섭

신태섭은 만 21세의 남성으로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에 할머니가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를 돌봐주고 계신다. 현재 전문대 졸업반에 재학 중이며 곧 군 입대를 할 예정이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친척의 사기로 인해 지게 된 카드빚을 갚느라 가족의 수입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졌으며 어머니의 음주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이 많았다. 자신의 미래나 가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면접 내내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 박혜영

박혜영은 만 20세의 여성으로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식구 수에 비해 가계수입이 매우 낮아 (70-80만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목사님으로부터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면접 내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으나 부모님, 특히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눈물을 보였다.

## 조승구

조승구는 20세 청년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전문대 휴학 중이다.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현재까지 어머니와 함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와는 아주 가끔씩 만나지만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컴퓨터 게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게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어머니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월 70여 만원을 받고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학업과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흥미를 갖지 못해 군 제대 후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갖고 있는 미래의 꿈은 사회복지사이다. 면접 내내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매우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 안준기

안준기는 21세 청년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전문대 휴학 중이다. 부모 이혼 후 형과 누나와 함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족들과 대화가 거의 없으며,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학교보다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고, 친구도 이곳에서 사귀게 되었다. 자신을 매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단답 형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지난 경험을 자신 있게 말하거나 서사화하는 데 어려웠다. 대체적으로 혼자서 놀고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하다고 했다. 군 제대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뚜렷하지 않다.

## 진영택

진영택은 현재 21세 청년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누나 두 명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자활지원관 강사로 일하면서 70여 만원 월급을 받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네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녔다. 고등학교 때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에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공부방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의 폐지 위기를 언급하면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 이문구

이문구는 현재 23세 청년으로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충남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다. 부모와 동생과 함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와 각별하게 지내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각종 모험을 즐겼으며,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면서 했다. 광고카피라이터를 꿈꾸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있다. 면접 내내 자신감에 찬 태도로 임했다.

## 최태훈

최태훈은 25세 청년으로 현재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충남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릴 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해 왔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우연히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서 자신이 글재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4년제 대학 국문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었다. 현재 등단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끼도 많아서 격투기, 악기 연주 등도 꽤 수준급이다. 면접 내내 자신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묘사하면서 흥미롭게 풀어나갔다.

## 유지혜

유지혜는 현재 28세 여성으로 성남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재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가족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새아버지의 무능력 때문에 가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신의 삶은 어머니의 재혼 이후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 마련이 힘들어 중퇴하고 말았다. 학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졸업 후 상담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 김우현

김우현은 현재 28세 남성으로 서울 포이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았는데, 현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와 동거 중에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싸움도 많이 했다. 고등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고등학교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고, 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왔다. 현재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약간의 돈과 자신이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 부모 1

부모 1은 신영희의 어머니이다. 만 44세로 남편과 이혼 후 3명의 자녀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사회복지관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이혼 전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다가 수급을 받기 시작한 이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부모 어머니들과 모임을 만들고 책도 출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녀들과의 사이가 매우 가깝고, 특히 큰딸과는 서로 의지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부모 2

부모 2는 조성광의 어머니이다. 만 48세로 아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다가 현재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 아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계속 직장에 근무하다가 2년 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들과의 사이는 매우 좋은 편이며,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교육보다는 인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강조했다.

### 부모 3

부모 3은 이진희의 어머니이다. 만 45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자녀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기 전까지 남편과의 사이는 매우 좋았으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보험회사, 건설 현장 등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으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3년 전 건강악화와 수술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학원에서 사무를 보며 부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복지관의 한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면접 동안 자신의 상황을 매우 솔직하고 밝게 이야기 했다.

### 부모 4

부모 4는 김윤정의 어머니이다. 만 49세로 남편과 이혼 후 4명의 자녀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혼은 했으나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 명의 자녀는 이혼 후 출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남아있기 위하여 이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큰 딸의 장애로 인해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혜택 유지를 위해 딸의 취업을 반대하고 있다. 면접을 하는 동안 활발한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경제적 측면을 얘기할 때는 주변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 부모 5

부모5는 현재 54세 여성으로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 전셋집에서 계속 살다가 몇 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두 자녀는 모두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딸은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 중에 있다. 풍족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올바르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한다. 자녀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며, 특히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한다고 말했다.

#### 부모 6

부모 6은 현재 56세 여성으로 현재 딸과 함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사업상 해외에 체류 중이며, 거의 집에서 함께 머무는 때가 드물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출가한 상태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만류하자 혼자 작은 아버지 댁으로 와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녔다. 학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장벽 때문에 대학은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일찍 돈 벌기 시작하여 집안 살림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살아왔지만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자신은 간병인을 하기 시작했다. 자녀 모두와 사이는 좋지만 아들은 여전히 철이 덜 들었다고 말하는 반면, 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했다. 면담 내내 질문에 대해 조리 있게 답변을 잘 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 부모 7

부모 7은 현재 57세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혼자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예전에는 넉넉한 살림을 살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 자녀 세 명을 두었는데, 큰 딸은 혼자 힘으로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막내아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에 매우 헌신적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막내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잘 다니지 않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 한다. 이혼을 하면서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가족들과 흩어져 지내면서 불교공부도 하러 다니고 놀러도 다닌다고

했다. 지금은 야간에 간병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자립심을 키워주는 교육을 강조했으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지원을 끊었다고 한다. 면접자의 질문에 매우 쾌활하게 답변해주었다.

## 부모 8

부모 8은 현재 59세 여성으로 미혼인 채로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부모8은 자신의 오빠의 큰 아들, 즉 조카를 유아 때부터 도맡아 키우면서 조카가 서른이 넘어 장가를 갈 때까지 자신의 보호 아래 자랐다고 한다. 시누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자신이 맡아서 키웠는데, 거의 자식과 다름없이 조카를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조카가 성장해 가면서 점차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학업이나 생활에서도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현재 간병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 면담 내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길 꺼려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면담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 Abstract

### Transition for Youth to Adulthood : Vulnerable Youth's Transition to Adulthood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st vulnerable class of youth on their path to adulthood, and aims to find alternative social policies to facilitate their smooth transition to adulthood.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parent generations' expecta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s path to adulthood such as how they perceive the fulfillment of adulthood and what kind of assistance they believe is required of them as parents. Unlike previous genera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youth are experiencing a post-standardized transition to adulthood. Here, complex factors such as flexibility in labor markets,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and individualized culture due to the expansion of a neoliberal economic order in post-capitalistic society have affected youth' s path to adulthood today. In this vein, policy efforts to assist these youths path to adulthood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general trends, lower-income youth are experiencing different paths to adulthood due to their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ircumstance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seek for thoughtful and more detailed and sensible social policies to help the most vulnerable class of youth.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means of in-depth interviews of 25 young singles between the ages of 18 to 28, and 8 parents aged 40 to 50. In particular, in order to observe the subjective meaning in their lives and actions on a daily basis, life-history interviews were adopted as a basic method.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family context was analyzed to see the impact of household environment on the most vulnerable class of youth and their transition into adulthood. These youth had been

experiencing adulthood responsibilities from an early age due to the limited resources and support they received from their parents, and even within their families they were almost forced to perform the roles of adults. Within this process, these youth had a strong tendency to strive for early emotional and financial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and this showed in their early sexual encounters, co-habitation, employment, marriage, or desire to form a family of their own. Secondly, these youth paths to adulthood we reexamined through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As they did not received much support from their family from a young age, these youth spent more time with peer-group members or gave up studying prematurely to get part-time jobs. The research shows that a majority of young interviewees gained necessary resources for their path to adulthood through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or social experiences, such as through their part-time jobs, outside schools rather than in regular school settings. Thirdly, these youth labor experience and their path to adulthood was examined. The most determining reason why this most vulnerable class of youth entered prematurely into the labor market was the financial factor. Their difficulties came from low-payment and age-related discrimination, but also from the fact that they had to juggle school work and part-time work which made their path to adulthood easily disrupted. Therefore, limited opportunities for social capital and unstable labor conditions make them insecure to stand on their own feet, and make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uneasy. Fourthly, these youth's self-identity and social attitudes were examined. These youth established their self-identity as a consequence of experiencing social discrimination or exclusion. Discrimination they experienced in their living areas, schools, and labor caused them to build negative social attitudes. Lastly, this study recommends appropriate social policies within household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most vulnerable class youth.

Key words: transition to adulthood, transition to adulthood of vulnerable youth, inequality in transition to adulthoo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acilitating transition to adulthood

##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고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욱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21-2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82-0

ISBN 978-89-7816-979-0(세트)

